

3346

조선어 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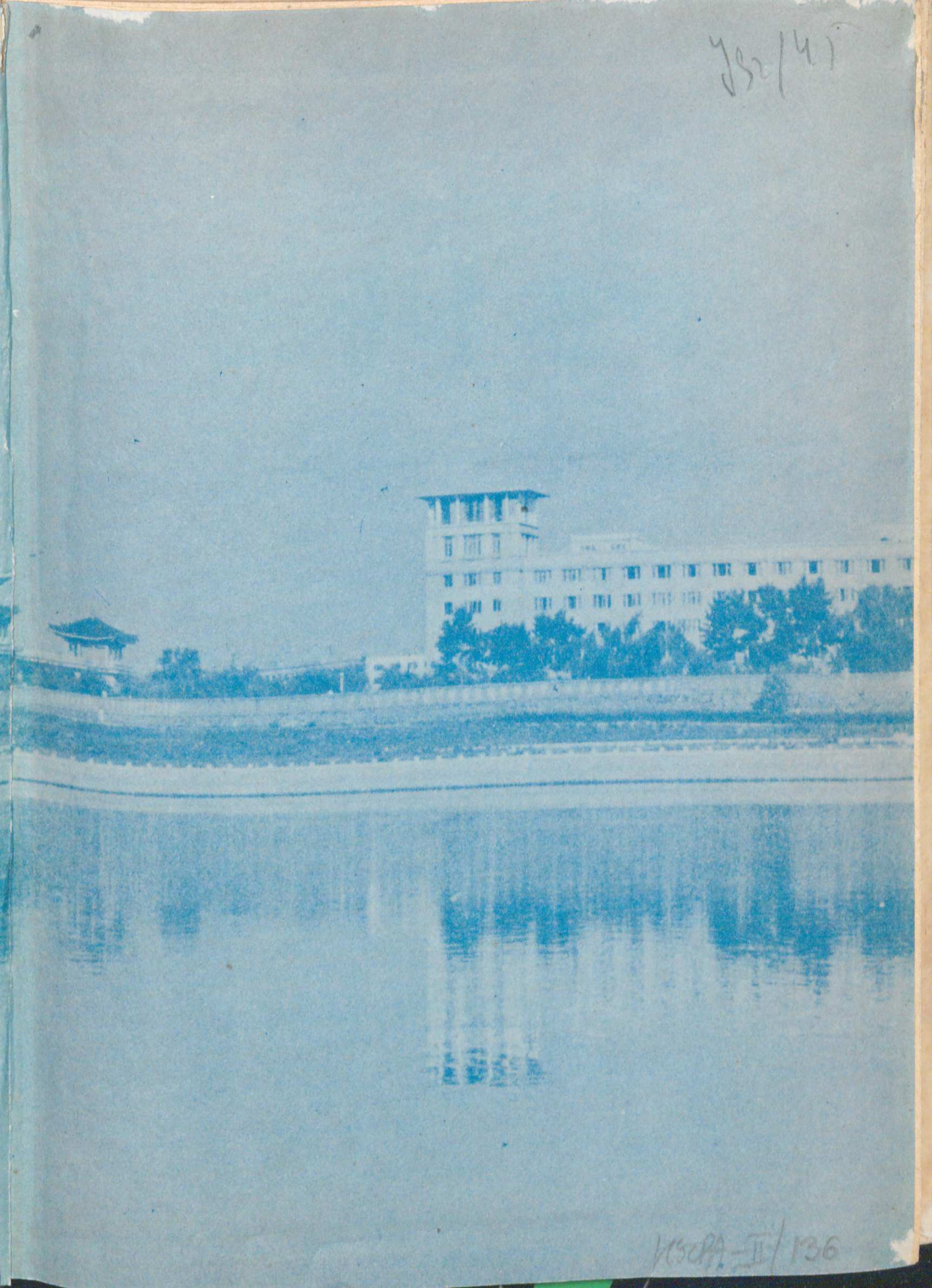
고등 교육 도서 출판사
19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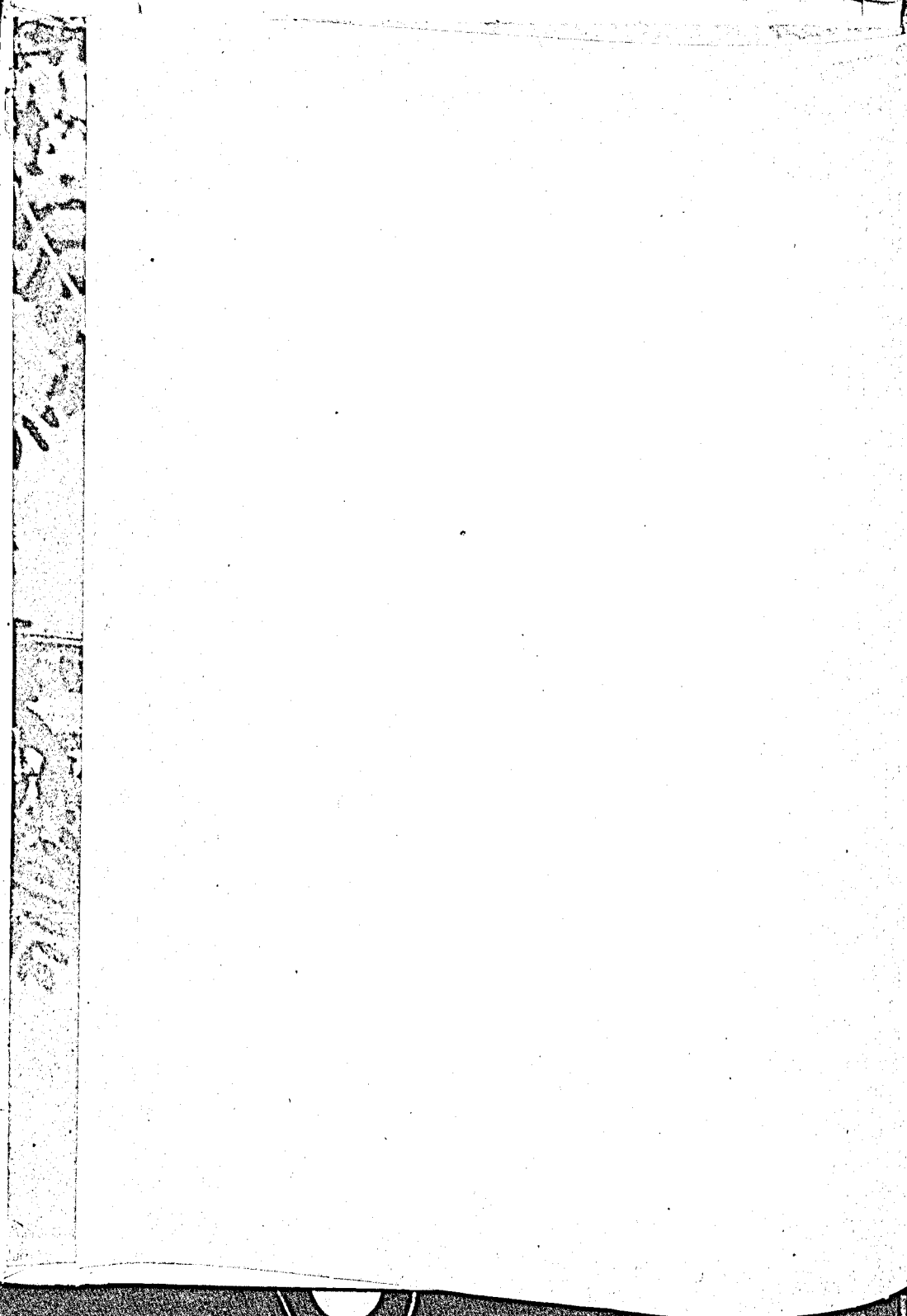
10514-2/125



752/41



MSOPA-II/136



김 일성 종합 대학 류학생 조선어 강좌

조선어 문법

초 판

고등 교육 도서 출판사

1965-평양

Zakład Dalekiego Wschodu
Instytut Orientalistyczny UW
1252 KOREAN



~~13526~~

차 례

제 1 편.

어 음 른.

제 1 장. 말소리의 분류와 그 발음	(7)
제 1 절. 조선어의 글'자와 그 표기	(7)
제 2 절. 모음의 종류	(9)
제 3 절. 자음의 종류	(10)
제 2 장. 말소리의 이어 넘과 끊어 넘	(14)
제 1 절. 음절이란 무엇인가?	(14)
제 2 절. 음절의 종류	(14)
제 3 절. 말'소리의 이어 넘과 끊어 넘	(15)
제 3 장. 말소리의 높기와 길이	(17)
제 1 절. 말소리의 높기와 길이	(17)
제 2 절. 문장에서의 높낮이	(18)
제 4 장. 말소리의 변화	(20)
제 1 절. 말소리의 맑음과 그의 쓰기	(20)
제 2 절. 모음의 어슬림과 그의 쓰기	(23)
제 3 절. 순환 소리의 된소리 되기와 그의 쓰기	(26)
제 4 절. 순환 소리의 거센 소리되기와 그의 쓰기	(27)
제 5 장. 말소리의 갈아들기와 그 발음	(29)
제 6 장. 표준 발음법	(33)
제 1 절. 표준 발음법에서 주의할 몇 가지 점	(33)

제 2 편.

형태 른.

I. 단어의 이루어짐과 단어 만들기.

제 1 장. 단어의 이루어짐	(38)
제 1 절. 어근과 접사	(38)
제 2 절. 어간과 토	(39)
제 2 장. 단어 만들기	(42)
제 1 절. 어근이 합쳐서 이루어진 것	(42)
제 2 절. 어근에 접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것	(43)
제 3 절. 소리나 품사가 바뀌어 이루어진 것	(44)

II. 조선어의 품사.		(46)
제 1 장. 명사		(46)
제 1 절. 명사의 종류		(49)
제 2 장. 수사		(49)
제 1 절. 수사의 종류		(51)
제 2 절. 수'자로 써 놓은 수량을 읽는 방법		(52)
제 3 절. 수사에서 어음이 약간 바뀌는 현상		(54)
제 3 장. 대명사		(54)
제 1 절. 대명사의 종류		(60)
제 4 장. 체언에 넣는 토		(61)
제 1 절. 격 토		(65)
제 2 절. 도움토		(71)
제 3 절. 복수토		(72)
제 4 절. 체언의 용언형		(74)
제 5 절. 체언에 붙는 토들의 어울림		(78)
제 5 장. 동사		(78)
제 1 절. 동사의 종류		(82)
제 6 장. 형용사		(83)
제 1 절. 형용사 사용에서 주의할 점		(85)
제 7 장. 용언에 넣는 토		(85)
제 1 절. 식		(92)
제 2 절. 제칭		(97)
제 3 절. 전속형이 가지는 의미들		(103)
제 4 절. 시칭		(108)
제 5 절. 존칭		(110)
제 6 절. 피동형과 사역형		(115)
제 7 절. 용언의 체언형		(117)
제 8 절. 용언에 붙는 토들의 결합		(121)
제 8 장. 관형사		(121)
제 1 절. 관형사의 종류		(122)
제 2 절. 관형사와 집두사의 차이		(123)
제 9 장. 부사		(124)
제 1 절. 부사의 종류		(126)
제 2 절. 외성-외태어		(129)
제 10 장. 감동사		(129)
제 1 절. 감동사의 종류		(131)
제 2 절. 감동사의 역할		

제 3 편.

문장론.

제 1 장. 문장과 문장 종류	(133)
제 1 절. 문장이란 무엇인가	(133)

제 2 절. 문장의 종류.....	(133)
제 2 장. 문장에서 단어들의 연결 방식.....	(137)
제 3 장. 문장 성분.....	(139)
제 1 절. 문장의 성분이란 무엇인가?.....	(139)
제 2 절. 문장의 주성분과 부성분.....	(140)
제 3 절. 주어와 그의 표현.....	(141)
제 4 절. 술어와 그의 표현.....	(143)
제 5 절. 보어와 그의 표현.....	(148)
제 6 절. 규정어와 그의 표현.....	(152)
제 7 절. 상황어와 그의 표현.....	(154)
제 4 장. 전개의 성분.....	(159)
제 1 절. 직개된 성분.....	(159)
제 2 절. 통종의 문장 성분과 총괄어.....	(160)
제 3 절. 제지어.....	(162)
제 5 장. 독립적 문장 성분과 그 표현.....	(163)
제 1 절. 호칭어와 그 표현.....	(164)
제 2 절. 감응어와 그 표현.....	(165)
제 3 절. 삽입어와 그 표현.....	(165)
제 4 절. 접속어와 그 표현.....	(167)
제 6 장. 문장 성분들의 자리.....	(168)
제 1 절. 문장 성분들의 정상적인 자리.....	(168)
제 2 절. 성분의 자리 바뀔.....	(169)
제 7 장. 문장에서 단어들의 맞붙임.....	(171)
제 8 장. 단일구성문.....	(174)
제 1 절. 명명문.....	(175)
제 2 절. 단어 문장.....	(175)
제 3 절. 주어 없는 문장.....	(176)
제 4 절. 불완전문.....	(177)
제 9 장. 구를 가진 문장.....	(180)
제 1 절. 주어구를 가진 문장.....	(182)
제 2 절. 술어구를 가진 문장.....	(182)
제 3 절. 규정어구를 가진 문장.....	(183)
제 4 절. 보어구를 가진 문장.....	(184)
제 5 절. 상황어구를 가진 문장.....	(185)
제 10 장. 복합문.....	(187)
제 1 절. 병렬 복합문.....	(188)
제 2 절. 종속 복합문.....	(191)
제 3 절. 합성 복합문.....	(194)
제 11 장. 담화법.....	(198)
제 1 절. 담화법이란 무엇인가.....	(198)
제 2 절. 직접 담화법.....	(199)
제 3 절. 간접 담화법.....	(200)

제 4 절. 직접 담화를 간접 담화로 고치기 법	(201)
제 12 장 . 띄어 쓰기와 문장 부호	(203)
제 1 절. 띄어 쓰기	(203)
제 2 절. 문장 부호	(206)

[부록]

제 1 장. 철자법 주요 규칙	(212)
제 2 장. 발음과 띄어 쓰기	(216)

제 1 편.

어음론.

제 1 장.

말소리의 분류와 그 발음.

제 1 절. 조선어의 글'자와 그 표기.

조선의 글'자는 소리 글'자(표음 문자)다. 그러나 소리 글'자라고 하여 반드시 발음 나는 대로만 적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먹다>와 <먹는다>의 <먹>은 똑 같이 ㄱ 받침으로 적으나 발음은 똑 같지 않는 데서 알 수가 있다. 즉 <먹는다>의 <먹>은 <멍>으로 발음되거나 쓰기는 <먹>으로 한다. 이와 같은 경우가 조선어에서는 많이 있다. 또 발음은 같으나 글'자로 쓸 때에는 다르게 하는 것도 있다. 예를 들어 <낮> <낮> <낮>은 다 <날>과 같이 발음되고 있으나 쓸 때에는 받침을 각각 <ㅅ> <ㅈ>, <ㅊ> 등으로 갈라서 적는다.

글'자로는 띄어 있으나 소리를 내지 않는 경우도 터러 있다.

예를 들어 <닭> <닭다> <닭다> 등에서는 <ㄹ>이 발음되지 않으며 <앉고> <앉다> 등에서는 ㅈ이 발음되지 않고 <값> <없다> <값> 등에서는 ㅅ이 발음되지 않는다. 또 〇은 글'자의 첫머리에 올 때에는 아무런 소리도 나타내지 않으나 받침으로 될 때에는 제대로 발음된다. 예를 들어 <아우> <이우> <요이> 등에서 <〇>은 아무런 소리도 나타내지 않지만 <땅> <공장> <공화국> <로동당> 등에서는 받침에 있는 <〇>이 제 소리 대로 발음된다.

많은 단어들은 발음될 말소리의 수와 이것을 적어 놓은 글'자의 수가 같다.

예를 들어 <값>은 말'소리나 글'자가 다 세 개이며 <나라>는

말'소리와 글'자가 네 개로서 꼭 같다. 그러나 말'소리의 수와 글'자의 수가 같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 많다 > 는 글'자가 여섯이다. 말'소리는 < M A L E T > 와 같이 다섯이다. 이와 같이 글'자의 수와 발음된 말'소리의 수는 반드시 같은 것이 아니라 다를 수가 있다.

조선어의 글'자는 모두 40 자가 있으며 그것은 일정한 순서로 놓인다. 이것을 글'자포라고 한다. 조선어 글'자의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다(괄호안은 만국 발음 기호를 대조한 것이다)

자음자(19 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기음	니음	디음	리음	미음	비음	시음	이음
[k]	[n]	[t]	[ɾ]	[m]	[p]	[s]	[ɰ]
ㅈ	ㅊ	ㅋ	ㄷ	ㅌ	ㅎ		
지음	치음	기음	티음	피음	히음		
[tʃ]	[tʃʰ]	[kʰ]	[tʰ]	[pʰ]	[h]		
ㄱ	ㅋ						
된기음	된디음						
[kʰ]	[tʰ]						
		ㅃ		ㅍ		ㅆ	
		된비음		된시음		된지음	
		[pʰ]		[sʰ]		[tʃʰ]	

모음자(21 개)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a]	[ja]	[ɔ]	[jo]	[o]	[jo]	[u]	[ju]	[ɯ]	[i]
ㅘ	ㅙ	ㅚ	ㅜ	ㅝ	ㅞ	ㅟ	ㅠ	ㅡ	ㅢ
애	얘	에	예	외	위	의	와	워	웨
[ɛ]	[je]	[e]	[je]	[ɥ]	[y]	[wi]	[wa]	[wo]	[we]

제 2 절. 모음의 종류.

조선어 모음에는 홀모음 10 개와 겹모음 11 개가 있다.

홀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겹모음: ㅘ, ㅙ, ㅚ, ㅜ, ㅝ, ㅞ, ㅟ, ㅠ, ㅡ, ㅢ, ㅣ.

1) 홀모음의 발음.

모음은 발음할 때에 입을 일마나 벌리는가, 혀가 올라 가는가, 내려 가는가 또는 혀의 앞에서 나는가 뒤에서 나는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누인다.

ㅏ는 입을 가장 크게 벌리고 혀는, 제일 아래로 내려 가서 발음되며 혀의 중간 부분에서 난다.

ㅑ, ㅓ, ㅕ는 입을 가장 적게 벌리며 혀를 입천장에 아주 가깝게 울리어 발음한다. 그 중에 ㅑ, ㅓ는 혀의 앞 부분이 올라 가고 ㅕ는 혀의 뒤가 올라 가며 ㅓ는 혀의 가운데서 난다.

우에서 말한 모음 이외의 ㅞ, ㅟ, ㅠ, ㅡ, ㅢ는 ㅏ처럼 입이 많이 벌어지지도 않으며 또 ㅏ, ㅓ처럼 아주 작게 벌어지지도 않는 것으로서 혀가 중간 높이를 오르내리면서 발음된다. 그 중 ㅞ, ㅟ, ㅠ는 ㅏ보다 혀의 앞 부분에서 나며 ㅡ, ㅢ는 ㅏ보다 혀의 뒤'부분에서 난다.

모음을 발음할 때에는 입술의 모양이 또 여러 가지로 달라진다. ㅓ, ㅕ, ㅗ, ㅛ를 발음할 때에는 입술이 둥그렇게 되면서 조금 앞으로 나온다. 그러나 ㅏ, ㅞ, ㅟ, ㅠ, ㅡ, ㅢ는 발음할 때에 입술이 둥그레지지 않는다.

[연습] 다음의 쌍을 이룬 단어들의 발음을 똑똑히 하여 보시오.

ㅏ—ㅓ: 범—붐, 멧—몫, 서리—소리, 병다—농다.

ㅓ—ㅕ: 굴—굴, 꿀—꿀, 구르다—그르다.

ㅞ—ㅟ: 개—개, 내 것—네 것, 모래—모래, 셈—셈, 배다—베다.

ㅠ—ㅡ: 괴—개, 되다—테다, 쇠다—세다, 피다—께다.

ㅡ—ㅢ: 귀—기, 쉬다—시다, 쥐다—지다, 뛰다—떠다.

2) 겹모음의 발음.

겹모음은 두 개의 모음이 겹쳐서 한 개의 모음처럼 발음되는 것이다.

ㄱ, ㅋ, ㄴ, ㄷ, ㅌ, ㅍ, ㅈ, ㅊ, ㅊ이 겹쳐서 이루어지는 겹모음이며 ㅅ, ㅆ, ㅌ, ㅍ는 ㅌ와 ㅌ, ㄱ, ㅋ, ㅌ, ㅍ가 겹쳐서 이루어지는 겹모음이고 ㄴ는 ㄴ와 ㄴ가 겹쳐서 이루어진 겹모음이다. 즉

$$ㄱ = ㄴ + ㄱ$$

$$ㅋ = ㄴ + ㅋ$$

$$ㄴ = ㄴ + ㄴ$$

$$ㅌ = ㄴ + ㅌ$$

$$ㅍ = ㄴ + ㅍ$$

$$ㅌ = ㄴ + ㅌ$$

$$ㅍ = ㅌ + ㅍ$$

$$ㅆ = ㅌ + ㅆ$$

$$ㅌ = ㅌ + ㅌ$$

$$ㅍ = ㅌ + ㅍ$$

$$ㄴ = ㄴ + ㄴ$$

겹모음들은 발음될 때에 두 모음 중 어느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뚜렷하게 들린다. ㄱ, ㅋ, ㄴ, ㄷ, ㅌ, ㅍ, ㅈ, ㅊ, ㅊ는 처음에 ㄴ를 아주 짧게 발음한 다음에 ㄱ, ㅋ, ㄴ, ㅌ, ㅍ, ㅈ, ㅊ로 넘어 가서 이것이 뚜렷하게 발음된다. ㅅ, ㅆ, ㅌ, ㅍ는 처음에 ㅌ를 아주 짧게 발음한 다음에 뚜렷하게 발음되는 ㄱ, ㅋ, ㅌ, ㅍ로 넘어 가게 되며 ㄴ는 처음에 ㄴ가 짧게 발음된 다음에 뚜렷하게 발음되는 ㄴ로 넘어 간다.

이와 같이 조선어의 겹모음은 다 처음에 나는 모음이 아주 짧게 발음되고 두 번째 모음이 더 분명하게 발음된다.

[연습] 다음 단어들을 발음하여 보십시오.

애초, 외래, 위대하다, 개, 개구리, 개미, 귀, 우뢰, 배, 배다, 배개, 세수, 쉬다, 제비, 체조, 퇴고, 패배, 패지, 체포, 해바라기, 헤치다, 사회, 기계화, 시계, 체계, 세계, 의사, 의자, 의미, 회의, 회다, 화가, 파자, 사과, 예비과, 왜, 돼지, 꿩, 꿩치다.

제 3 절. 자음의 종류.

1) 자음의 발음 (1).

자음은 그것이 어디에서 발음되는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입술에서 나는 것도 있고 혀에서 나는 것도 있으며 후두에서 나는 것도 있다.

입술에서 나오는 자음으로는 ㅂ, ㅃ, ㅍ, ㅍ 등이 있다. 이 자음들은 두 입술이 닫혀진 것을 입 안에 있던 공기가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이다. 이것을 입술 소리라고 한다.

혀에서 나는 소리에는 (1) 혀의 앞 부분에서 나는 것, (2) 혀의 뒤 부분에서 나는 것들이 있다.

혀의 앞 부분에서 나는 소리에는 <ㄷ, ㄸ, ㅌ, ㄴ, ㄹ, ㄱ, ㅋ, ㆁ>이 있다. 이 소리들은 혀'바닥의 앞 부분이 윗'이나 (ㄷ, ㄸ, ㄹ, ㄴ) 이'몸에(ㄹ, ㄱ, ㅋ, ㆁ) 닿거나 또는 가까와지면서 나는 소리로서 이를 혀 앞 소리라고 한다.

혀의 뒤'부분에서 나는 소리로는 <ㄱ, ㄲ, ㅋ, ㅇ>이 있는데 이 소리들은 혀의 뒤'부분인 혀뿌리가 뒤'입천장에 닿아서 난다. 이것을 혀뿌리 소리 또는 뒤'입천장 소리라고 한다.

후두에서 나오는 소리로는 <ㅎ>이 있다. 이 소리는 후두에 있는 성대가 서로 가까와진 사이를 공기가 스치서 나올 때에 난다. 이것을 후두 소리라고 한다.

2) 자음의 발음 (2).

자음은 그것이 발음될 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난다. 나오는 공기가 닫혀진 발음 기관을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도 있고 발음 기관이 완전히 닫혀지지 않은 좁은 사이를 스치면서 내는 것도 있다. 또 공기가 입 안으로 나오지 않고 코 안으로 나가면서 발음되는 것도 있고 혀 끝을 튀겨서 내는 것도 있다. 꼭 닫혀진 발음 기관을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에는 <ㅂ, ㅃ, ㅍ, ㄷ, ㄸ, ㅌ, ㄱ, ㅋ, ㅇ>이 있다. 이런 소리들 터칩 소리라고 한다.

발음 기관이 꼭 닫혀지지 않은 좁은 사이를 공기가 스치면서 내는 소리에는 <ㅅ, ㅆ, ㅎ>이 있다. 이런 소리들 스칩 소리라고 한다.

조선어에는 터칩 소리와 스칩 소리가 어울려서 나는 소리가 있다. 이러한 소리에는 <ㅈ, ㅉ, ㅊ>이 있으며 이를 터스칩 소리라고 한다. 이 소리들 낼 때에는 발음 기관이 처음에는 터칩 소리와 같이 꼭 닫혔다가 그것이 터지는 순간에 스칩 소리를 낼 때

처럼 발음 기관이 서로 가까워진 사이를 공기가 나온다.

후두로부터 나오던 공기가 코 안으로 나가면서 이루어지는 소리에는 <L, □, O>이 있다. 이 소리를 발음할 때에는 닫혀진 발음 기관을 터뜨리면서 공기를 입 안으로 내보내지 아니하고 코 안으로 내보내면 된다. 이런 소리를 코안 소리라고 한다.

<□>을 발음할 때에는 닫혔던 입술을 터뜨리면서 공기가 코 안으로 나가며 <L>을 발음할 때에도 혀 끝이 윗잇몸에 꼭 닿다 자 떨어지미 코 안으로 공기가 나가코 <O>을 발음할 때에는 혀의 뒤부분이 뒤 입천장에 닿다가 공기가 코 안으로 나간다.

혀 끝을 뒤거 내는 소리에는 ㄱ이 있다. 이 소리를 발음할 때에는 혀를 조금 뒤로 끌어 들이는 것처럼 하면서 혀 끝으로 입천장을 가볍게 튀기여 낸다. 이것을 튀김 소리라고 한다.

3) 순한 소리, 뒤소리, 거센 소리.

조선어의 자음은 발음되는 방법과 위치가 같으면서도 순하게 나는 소리도 있고 되게 나는 소리도 있으며 거세게 나는 소리도 있다. 순하게 나는 소리를 순한 소리, 되게 나는 소리를 뒤소리, 거세게 나는 소리를 거센 소리라고 한다. 예를 들어 혀의 뒤부분에서 나는 같은 터칩 소리라도 <ㄱ>은 순하게 나는 소리이며 <ㄲ>은 되게 나는 소리이고 <ㅋ>은 거세게 나는 소리이다. 입술에서 나는 터칩 소리로서 <ㅂ>은 순한 소리, <ㅃ>은 뒤소리, <ㅍ>은 거센 소리이다. 혀 앞에서 나는 터칩 소리에서 <ㄷ>은 순한 소리, <ㄸ>은 뒤소리, <ㅌ>은 거센 소리이다. 혀 앞에서 나는 스침 소리에는 순한 소리에 <ㄴ>, 뒤소리에 <ㄹ>이 있고, 거센 소리는 없다. 혀 앞에서 나는 러스침 소리에는 순한 소리에 <ㄷ>, 뒤소리에 <ㄹ>, 거센 소리에 <ㅌ>이 있다.

튀김 소리 <ㄱ>과 후두 소리 <ㅎ>은 순한 소리로서 뒤소리, 거센 소리의 짝이 없다.

뒤소리는 ㄱ, ㄷ, ㄱ, ㄴ, ㄷ 등 순한 소리를 내면서 닫혔던 후두의 터칩이 동시에 일어 나 이루어지며 거센 소리는 ㄱ, ㄷ, ㄱ, ㄷ 등의 순한 소리를 내면서 후두의 스침이 동시에 일어 나 이루어지는 소리이다. 즉

$$\pi = \text{ㄱ} + \text{후두의 터칩}$$

$$\pi = \text{ㄷ} + \text{후두의 스침}$$

ㅃ = ㅍ + 후두의 터침
 ㅆ = ㅈ + 후두의 터침
 ㄷ = ㅌ + 후두의 스킵
 ㅊ = ㅈ + 후두의 스킵

ㅅ = ㅅ + 후두의 터침
 ㅑ = ㅑ + 후두의 스킵
 ㅕ = ㅍ + 후두의 스킵

우에서 설명한 조선어 자음의 종류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어디에서 나누가에 따라서 어떻게 나누가에 따라서		입술 소리	혀 소리		목안소리
			혀 앞 소리	혀 뒤 소리	
터 침 소리	순환 소리	ㅍ	ㅌ	ㄱ	
	된소리	ㅃ	ㄸ	ㄲ	
	거센소리	ㅆ	ㄷ	ㅋ	
스 침 소리	순환소리		ㅅ		ㅎ
	된소리		ㅆ		
터-스침 소리	순환소리		ㅈ		
	된소리		ㅊ		
	거센소리		ㅉ		
코안 소리	순환소리	ㅁ	ㄴ	ㅇ	
뒤김 소리	순환소리		ㄹ		

[연습] 다음 단어를 발음하여 보시오

고리, 꼬리, 발, 팔, 덜다, 떨다, 털다, 달, 딸, 탈, 불,
 뿔, 풀, 살, 쌀, 개다, 깨다, 캐다, 지다, 쪼다, 치다, 꼬리, 코
 끼리, 도끼, 토끼, 가치, 까치, 떠다, 오빠, 뿌리, 나쁘다, 기쁘
 다, 싸우다, 쓰다, 쓰다, 자다, 짝다, 가자, 가짜, 쪼다.

제 2 장. 말소리의 이어 뱀과 끊어 뱀.

제 1 절. 음절이란 무엇인가?

단어를 발음할 때에 공기는 끊임 없이 편달아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토막 한 토막씩 마디를 지으면서 나온다. 예를 들면 <달>, <나:리> <사:립> <공:장> <어:머:니> <공:화:국> <해:바:라:기> 등과 같이 발음된다.

이와 같은 발음의 마디를 음절이라고 한다.

조선어의 음절에는 반드시 하나씩의 모음이 들어 있다. 그러므로 음절의 수는 그 안에 들어 있는 모음의 수와 꼭 같다.

한 음절로 된 단어를 한 음절어, 두 음절로 된 단어를 두 음절어, 세 음절로 된 단어를 세 음절어라고 한다. 음절은 모음 하나로만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한 개의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두 개의 자음과 한 개의 모음으로 될 수도 있다.

례: 모음 하나만으로 된 음절—<외>, <아:우>.

자음 하나와 모음 하나로 이루어진 음절—<바:다>, <아:비:지>.

두 개의 자음과 하나의 모음으로 이루어진 음절—<벽:돌>, <공:장>.

접모음 ㅈ, ㅋ, ㆁ, ㅊ, ㅃ, ㅅ, ㅆ, ㄷ, ㄹ, ㄴ은 두 개의 모음이 합하여 된 것이지만 두 개의 음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의 음절을 이룬다.

례: <포>, <뫓>—한 음절

<피오>, <무엇>—두 음절

제 2 절. 음절의 종류.

모음으로 끝난 음절을 개음절이라고 하며 자음으로 끝난 음

절을 폐음절이라고 한다.

례: 개음절—《개》《나》《모》《아버지》《어머니》……

폐음절—《달》《숨》《입》《경쟁》……

폐음절에서 끝 소리(자음)를 받침이라 한다. 조선어의 받침 소리는 그가 놓인 자리에 따라 제대로 발음될 수도 있고 제대로 발음되지 않을 수도 있다.

례: 집—집이(지비)

짚—짚이(지피)

제 3 절. 말'소리의 이어 넘과 끊어 넘.

단어를 발음할 때에 그 속에 있는 음절과 음절 사이에서 발음이 끊어지지 않고 련달아 나오는 경우와 일단 끊어 졌다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앞뒤에 있는 음절을 중간에서 끊지 않고 련달아 내는 현상을 말'소리의 이어 넘이라고 하며, 중간에서 끊었다가 발음하는 현상을 말'소리의 끊어 넘이라고 한다.

말'소리의 어울림이 같더라도 이어 빌 때와 끊어 빌 때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남비》와 《뿔'비》에서 두 단어에 다 <口—ㅂ>의 어울림이 있는데 <口>과 <ㅂ> 사이에 끊어침이 없이 이어 나오는 《남비》에서는 《ㅂ》로 발음되나 그 사이를 끊어 내는 《뿔'비》에서는 《뿔뿔》즉, 《뿔》로 발음된다. 또 《공일》과 《공'일》에서도 이어 내는 《공일》은 제대로 발음이 나지마는 끊어 내는 《공'일》에서는 [공닐]로 《L》가 더 보태여진다.

말'소리와 말'소리 사이를 이어 내고 끊어 넘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는 것은 특히 자음으로 끝나는 음절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음절이 오는 경우이다.

소리가 이어 날 때에는 예를 들어 《밥이》가 《바비》로 《먹으니》 《머그니》로 되는 것과 같이 앞에 있는 받침이 다음 음절의 첫 소리로 옮겨져 발음된다.

례: 불이[부리] 불을[부를] 불에[부레] 옷이[오시] 옷을[오술], 옷에[오세], 꽃이[꼬치], 꽃을[꼬출], 꽃에[꼬체], 흙이[홀기], 흙을[홀굴], 흙에[홀게], 엮어[언저], 엮으니[언즈니], 손잡이[손자비], 걸음[거름], 웃음[우슴], 뽕음[무뽕], 속웃[소곳], 물오리[무로리], 솜웃[소뽏], 밤알[바말], 만아

들 [마다들], 참외 [차외], 책임 [채검], 금일 [그밀],
 이와는 달리 앞에 있는 받침과 뒤에 오는 모음 사이에서
 리가 끊어졌다가 날 때에는 앞에 있는 받침 소리가 뒤 소리로
 옮겨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웃안>, <팔알>이 [으-안]→[오단],
 [팜-알]→[파달]로 발음되는 것은 바로 <웃> [으], <팔> [팜]
 다음에 일단 발음이 끊어졌다가 다음의 <안>, <알>을 발음하
 기 때문이다.

예: 부엌안→[부엌-안]→[부어간]; 녀었다→[녀-엿따]→[녀
 겁따]; 웃어른→[웃-어른]→[우더른]; 젓어미→[젓-어
 미]→[저터미]; 꽃아래→[꽃-아래]→[꼬다래] 무릎아래
 →[무릅-아래]→[무르바래].

그러나 받침 다음에 오는 모음이 ㅏ, ㅑ, ㅓ, ㅕ, ㅣ이고 그
 사이에서 끊어 별 때에는 ㄹ, ㄴ 소리가 더 보태여진다.

예: 물'약→[물-략]; 쌀'엿→[쌀-렵]; 콩'엿→[콩-널]; 담'오
 →[담-노]; 밤'웃→[밤-훈]; 낮'일→[남-닐]—[남닐]; 꽃'
 잎→[꽃-닙]—[꼇닙]; 앞'이마→[압-니마]→[안니마]; 짓'
 이기다→[질-니기다]→[진니기다].

소리를 도중에서 끊었다가 별 때에 다른 소리가 더 보태여
 지는 일은 다음과 같은 경우들에서도 볼 수 있다.

1) 앞의 소리가 모음이고 뒤의 소리가 ㄹ, ㄴ일 때, 이 때에는
 는 ㄹ, ㄴ이 더 보태여진다.

배'노리[뵤노리]; 새'노랑다[쌔노랏타]; 이'몸[임몸]; 쇠'물[쌔
 물].

2) 앞의 소리가 모음이고 뒤의 소리가 ㅏ, ㅑ일 때에는 두
 개의 ㄴ이 더 보태여진다.

뒤'일[뤼닐]; 나무'잎[나문닙]; 뒤'여울[뤼녀울].

앞뒤 소리를 이어 내지 않고 끊어 내기 때문에 뒤의 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일도 있다.

물'고기[물꼬기]; 기'대[기대] 해'빛[해뵤].

[런습] 다음 문장에서 밑줄을 그은 단어들 이 어떻게 발음되는가를 설
 명하시오.

1) 뒤'산에 올라 가 보니 아래'마을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것이 내려다 보였다.

2) 수 많은 고기'배들이 기'발을 바다'바람에 펼쳐이고 배'고 동을 울리면서 먼 바다로 나간다.

3) 천리마 작업반 청년들은 생산에서 집단적 혁신 운동의 불'길을 높이고 있다.

4) 여름에 대학생들은 물'결치는 바다'가에서 즐거운 날들을 보내었다.

5) 나는 낮'익은 고향 마을의 아름다운 경치를 오래'동안 바 마 보았다.

6) 웃어른을 만나면 언제든지 단정히 인사를 하여야 한다.

제 3 장.

말소리의 높기와 길이.

제 1 절. 말소리의 높기와 길이.

단어들의 모든 음절이 반드시 다 같은 높기로 발음되는 것은 아니다. 보통 높고 낮음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 <해바라기>

이 단어에서는 <라>가 높게 발음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현상은 두 단어에 있는 동일한 음절에서도 볼 수 있다.

예: 1) 책을 산다. 사람이 산다.

2) 맛이 달다. 쇠가 달다.

3) 눈이 밝다. 눈이 온다.

4) 밤이 짙다. 밥을 먹는다.

우의 문장들에서 <▶표를 찍은 것들은 높은 소리이며 <←표를 찍은 것들은 낮은 소리다.

이와 같이 음절 사이에 높고 낮은 구별이 있는 것을 말'소리의 높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발음을 할 때에 이 높이에 주의하여 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어들의 모든 음절은 또한 다 똑 같은 길이로만 발음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음절이 다른 음절보다 길게 혹은 짧게 발음되는 일이 있다.

례를 들어 《사람》, 《개미》, 《전기》 등의 첫 음절은 둘째 음절보다 더 길게 발음된다.

조선어에서는 소리가 같은 단어라도 발음에서 길고 짧은 구별이 있다.

- 례: 1) 말을 탄다. 말을 한다.
2) 밭을 췌는다. 밭을 친다.
3) 소가 간다. 밭을 간다.
4) 밤이 되다. 밤이 되다.

우의 문장들에서 ◀ 표를 찍은 것들은 짧은 소리이며 ▶ 표를 찍은 것들은 긴 소리다.

이와 같이 음절 사이에 길고 짧은 구별이 있는 것을 말'소리의 길이라고 한다.

말'소리에 길이의 구별이 있는 것은 그 음절에 있는 모음이 길고 짧은 데 있는 것이다. 이 모음의 길이를 잘 구별하지 아니하고 긴 것을 짧게 발음하거나 짧은 것을 길게 발음하면 의미를 알아 들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말'소리의 길이는 말'소리의 높이와 관계를 가진다. 대체로 짧은 소리는 높고 긴 소리는 낮다.

례를 들어 《눈이 밝다》, 《맛이 달다》의 《눈》과 《달》은 짧고 높은 소리이며 《눈이 온다》, 《쇠가 달다》의 《눈》 《달》은 길고 낮은 소리다.

제 2 절. 문장에서의 높낮이.

우리들은 이야기할 때 한 문장 가운데 모든 단어를 똑 같은 높이와 길이로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어느 한 단어는 높고 어느 한 단어는 낮게 발음한다. 그러면서 문장이 길 때에는 그 사이에 일정한 휴식을 넣게 되며 그 휴식과 휴식 사이의 토막마다에 높고 낮음이 구별이 있게 된다.

//산에/진달래 꽃이/참 곱게 피었다.//

우의 문장은 보통 세 개의 토막으로 나누어 발음되는데 그

중 매개 토막 내에서는 밑줄을 그은 부분이(진달래, 곱게) 토막 내 다른 단어들 보다 더 높고 세게 발음된다.

문장이 길 때 한 문장 가운데 어느 부분에 휴식을 두는가 하는 것은 실천적인 의의를 가진다.

례를 들면;

//나는 아버지와/어머니의 사진을/ 보았다//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진을/ 보았다//

우의 문장에서 첫 문장은 <나는 아버지와>함께 어머니의 사진을 보았다는 뜻이고 둘째 문장은 나는 혼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았다는 뜻으로 된다.

우리들은 또한 이야기할 때 자기가 특별히 강조할 부분을 높고 세게 발음하여 그 곳에 주의를 집중시킨다.

따라서 같은 문장도 그 중 어느 단어를 세게 발음하는가에 따라 이야기의 중심이 달라질 수 있다.

당신이 오늘 학교에 갑니까?(대상)

당신이 오늘 학교에 갑니까?(시간)

당신이 오늘 학교에 갑니까?(방향)

당신이 오늘 학교에 갑니까?(행동)

우의 문장에서 밑줄을 그은 부분을 세게 발음하면 그 중심은 각각 팔호 안의 설명과 같이 그 중심이 달라진다.

말할 때에는 이 밖에도 어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같은 내용도 어조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조선어에서 일반적으로 서술문의 마지막은 조용히 낮아지고 의문문의 마지막은 높아지며 또 명령문에서는 마지막이 높아졌다가 낮아지면서 급격히 끊어진다.

김 동무는 도서관에 가오.(서술문) \

김 동무는 도서관에 가오?(의문문) /

김 동무는 도서관에 가오.(명령문) \

[연습] 다음의 문장에서 밑줄을 그은 부분을 정확히 발음하고 그 차이를 말해 보시오.

1) 오리는 오리를 가도 오리, 십리를 가도 오리다.

2) 눈에 눈물이 들어 가니 눈물이나 눈물이나?

3) 밤은 밤이라도 못 먹는 밤이 무엇이나?

[연습 2] 다음의 문장을 유식음, 넣어 가면서 정확히 발음해 보시오, 그리고 유식의 차이에 따라 어떻게 뜻이 달라지는가 설명하시오.

- 1) 나는 늘 노래하는 사람이 좋아요.
- 2) 극장에는 인민 군대 영웅 배우들이 가득 모였다.
- 3) 꽃분이는 문턱에 앉아서 재롱하는 고양이들 옛본다.

[연습 3] 다음의 문장에서 밑줄을 그은 부분을 높여서 발음해 보시오.

동무들은 교실에서 조용히 공부를 하오.

동무들은 교실에서 조용히 공부를 하오.

동무들은 교실에서 조용히 공부를 하오.

동무들은 교실에서 조용히 공부를 하오.

동무들은 교실에서 조용히 공부를 하오.

[연습 4] 다음의 문장을 가지고 서술문, 의문문, 명령문이 되게 발음해 보시오.

박 동무는 신문을 보오. (서술문)

박 동무는 신문을 보오? (의문문)

박 동무는 신문을 보오. (명령문)

제 4 장.

말'소리의 변화.

사람들은 말을 할 때에 하나 하나의 말'소리를 따르따로 떼여서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말'소리를 련달아 발음한다. 이 때에 매개의 말'소리들은 서로 영향을 주어서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먹는다>는 <명는다>로 발음되어 <ㄱ>이 <ㅇ>으로 되며, 또 <먹고>는 <먹꼬>로 발음되어 <ㄱ>이 <ㅍ>으로 변하는 것들에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말'소리가 달라지는 현상을 말'소리의 변화라고 한다.

제 1 절. 말'소리의 닳음과 그의 쓰기.

어떤 말'소리가 실치 발음에서 다른 소리로 될 때에 그것이

앞뒤에 있는 말'소리와 꼭 같거나 또는 비슷하게 읽는 일이 있다. 이것을 말'소리의 **답음**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1) 똑 같이 답는 경우

십만→[**심**만] 천리마→[**첸**리마] 달는다→[**달**는다]

2) 비슷하게 답는 경우

승리→[**송**니] 국물→[**궁**물] 잡는다→[**잠**는다]

이제 말'소리가 답아지는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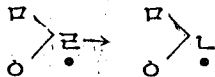
1) 뒤에 있는 소리가 앞의 소리를 답는 경우.

가) 뒤에 있는 <ㄴ>이 앞에 있는 <ㄹ>을 답아서 그와 똑 같은 ㄹ로 되는 것

ㄹ-ㄴ→ㄹ-ㄹ

일년→[일**ㄹ**년]; 달나라→[달**ㄹ**나라]; 줄넘기→[줄**ㄹ**기]

나) 뒤에 있는 <ㄹ>이 앞에 있는 <ㅇ>, <ㅇ>을 답아서 그와 비슷한 코안 소리 <ㄴ>으로 발음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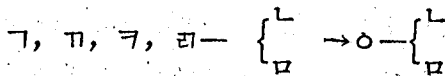


음료수→[음**ㄴ**수]; 삼림→[삼**ㄴ**림]; 명령→[명**ㄴ**령]; 용광로→[용**ㄴ**광로]

이와 같이 실제 발음에서는 <ㄹ> 다음에 오는 <ㄴ>은 <ㄹ>로 되고 <ㅇ>, <ㅇ> 뒤에 오는 <ㄹ>은 <ㄴ>으로 되나 철자법에서는 답은 소리로 적어서는 안 되며 본래 대로 <ㄴ>, <ㄹ>로 써야 한다.

2) 앞에 있는 소리가 뒤의 소리를 답는 경우.

가) 앞에 있는 <ㄱ, ㅍ, ㅋ, ㄹ>이 뒤에 오는 <ㄴ, ㅇ>을 답아서 그와 비슷한 코안 소리 <ㅇ>으로 되는 것



먹는다→[**ㅇ**는다]

답는다→[**ㅇ**는다]

부엌 나무→[**ㅇ**엌 나무]

작년→[**ㅇ**년]

값 물다→[값 물다]

그러나 철자법에서는 값은 소리 ㅍ으로 적어서는 안 되며 본래 대로 ㅈ, ㅊ, ㅅ, ㅆ으로 써야 한다.

ㄱ) 앞에 있는 <ㄴ>이 뒤에 오는 <ㄹ>을 값아서 <ㄹ>로 되는 것

ㄴ-ㄹ→ㄹ-ㄹ

근로자→[클로자]

진리→[질리]

산림→[살림]

그러나 철자법에서는 값은 소리 <ㄹ>로 적어서는 안 되며 본래 대로 ㄴ으로 써야 한다.

ㄴ) 앞에 있는 받침 <ㄷ, ㅌ>이 뒤에 오는 모음 <ㅛ> 때문에 <ㅈ, ㅊ>으로 되는 것

ㄷ } + 이 → { 지
ㅌ } { 치

굳이→[구지]

미만이→[미다지]

해동이→[해도치]

갈이→[가치]

출이다→[출치다]

달히다→[다치다]

그러나 철자법에서는 값은 소리 ㅈ, ㅊ으로 적어서는 안 되며 본래 대로 ㄷ, ㄸ으로 써야 한다.

3) 앞뒤의 소리가 서로 값는 경우.

이것은 앞에 있는 소리와 뒤에 있는 소리가 서로 값아서 꼭 같거나 비슷한 소리로 되는 것을 말한다.

폭로→[푹노], 속력→[쑥녁], 백리→[뵤니] (ㄱ-ㄹ→ㅇ-ㄴ)

십리→[쑤니], 협력→[헝녁], 압록강→[압눅강] (ㄷ-ㄹ→ㅍ-ㄴ)

이와 같이 ㄱ, ㄷ이 뒤에 오는 ㄹ과 만나게 되면 실치 발음에서 앞뒤의 것이 서로 값아 다른 소리로 되나 철자법에서는 발음된 대로 적어서는 안되며 본래 대로 써야 한다.

제 2 절. 모음의 어울림과 그의 쓰기.

조선어에서는 하나의 단어 속에서 꼭 같은 모음끼리 어울리

거나 또는 일정한 모음끼리 서로 어울리는 일이 있다. 이것을 모음의 어울림(조화)이라고 한다.

조선어에서 모음의 어울림은;

- 1) 동사, 형용사의 어간과 모음로 사이에서와
- 2) 어떤 사물의 소리를 모방하여 만든 단어나 또는 어떤 사물의 동작이나 상태를 형용하여 만든 단어에서 일어 나고 있다.

1) 동사, 형용사의 어간과 모음으로 시작되는 토 사이에서의 모음의 어울림.

동사, 형용사의 어간에 있는 모음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그 다음에 오는 모음으로 시작되는 토가 이에 어울리도록

(1) 아, 았 (2) 어, 었 (3) 여, 였
의 세 가지로 구별하여 쓰인다.

ㄱ) 토가 <-아>, <-았>으로 되는 경우.

동사, 형용사의 어간의 모음이 <ㅏ, ㅑ, ㅓ, ㅕ, ㅗ, ㅛ>일 때에는 그 다음에 오는 모음으로 시작되는 토는 <-아>, <-았>으로 된다.

ㅏ-ㅏ 받다: 받아, 받아서, 받았다.

ㅑ-ㅑ 앓다: 앓아, 앓아서, 앓았다.

ㅓ-ㅓ 보다: 보아, 보아서, 보았다.

ㅕ-ㅕ 빠르다: 빨라, 빨라서, 빨랐다.

ㅗ-ㅗ 고르다: 골라, 골라서, 골랐다.

따라서 <받아서>, <받았다>를 <받어서>, <받았다>로 적거나 <골라서>, <골랐다>를 <골러서>, <골렀다>로 적어서는 안 된다.

ㄴ) 토가 <-어>, <-었>으로 되는 경우.

동사, 형용사의 어간의 모음이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ㅝ, ㅞ>일 때에는 그 다음에 오는 모음로는 <-어>, <-었>으로 된다.

ㅓ-ㅓ 열다: 열어, 열어서, 열었다.

ㅕ-ㅕ 열다: 열어, 열어서, 열었다.

ㅗ-ㅗ 두다: 두어, 두어서, 두었다.

ㅛ-ㅛ 쓰다: 써서, 썼다.

ㅜ-ㅜ 흐르다: 흘러, 흘러서, 흘렀다.

ㅠ-ㅠ 거르다: 걸터, 걸터서, 걸렀다.

ㄷ—ㄷ 부르다: 불러, 불러서, 불렀다.

ㄱ—ㄱ 기르다: 길러, 길러서, 길렀다.

ㄷ) 로가 <—어>, <—였>으로 되는 경우

어간의 모음이 <ㅣ, ㅅ, ㅈ, ㅊ, ㅋ, ㆁ>이며, 어간에 받침이 없을 때 그 다음에 오는 모음토는 <—어>, <—였>으로 된다.

ㅣ—ㅣ 피다: 피어, 피어서, 피었다.

오시다, 오시어, 오시어서, 오시었다.

ㅅ—ㅅ 깨다: 깨어, 깨어서, 깨었다.

ㅈ—ㅈ 메다: 메어, 메어서, 메었다.

ㅊ—ㅊ 되다: 되어, 되어서, 되었다.

ㅋ—ㅋ 쉬다: 쉬어, 쉬어서, 쉬었다.

ㆁ—ㆁ 회다: 회어, 회어서, 회었다.

그러나 어간의 모음이 우에서 든 것과 같다 하더라도 그 어간에 받침이 있을 때에는 토는 <—어>, <—였>으로 된다.

ㅅㅅ다: ㅅㅅ어, ㅅㅅ어서, ㅅㅅ었다.

ㅅㅅ다: ㅅㅅ어, ㅅㅅ어서, ㅅㅅ었다.

ㅅㅅ다: ㅅㅅ어, ㅅㅅ어서, ㅅㅅ었다.

ㅅㅅ다: ㅅㅅ어, ㅅㅅ어서, ㅅㅅ었다.

우에서 본 바와 같은 동사, 형용사의 어간과 모음토 사이에서 모음들이 어울리는 규칙을 종합하여 표로서 보이던 다음과 같다.

동사, 형용사의 어간 모음	토
(1) ㅏ, ㅑ, ㅓ, ㅕ, ㅗ, ㅛ	아, 았
(2) ㅜ, ㅠ, ㅡ, ㅚ, ㅜ, ㅜ, ㅛ, ㅜ, ㅛ	어, 었
(3) ㅣ, ㅅ, ㅈ, ㅊ, ㅋ, ㆁ	어, 었

2) 소리를 모방하거나 동작 또는 상태를 형용하여 만든 단어에서의 어울림.

ㄱ) 같은 모음끼리 어울리는 것,

ㅏ—ㅏ: 살살, 찰찰, 팔팔, 짹짹, 달랑달랑, 살랑살랑,

찰랑찰랑

ㄱ-ㄱ: 설설, 걸걸, 철철, 펼펼, 덜렁덜렁, 설렁설렁, 어정어정.

ㄴ-ㄴ: 들들, 술술, 줄줄, 포동포동

ㄷ-ㄷ: 술술, 줄줄, 쿵쿵, 푸둥푸둥

ㄴ) 다른 모음끼리 어울리는 것,

ㄴ-ㄷ, ㄷ-ㄴ

출랑출랑, 싹닥싹닥, 알록알록, 알록달록.

ㅏ	ㅑ	}	—
ㅓ	ㅕ		

방글방글, 반들반들, 빙글빙글, 어름어름, 성큼성큼, 빙글빙글, 싱글싱글, 비틀비틀, 뱅글뱅글.

제 3 절. 순한 소리의 된소리 되기와 그의 쓰기.

조선어에서는 단어를 발음할 때에 그 가운데에 있는 어떤 순한 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들이 있다. 예를 들어 <떡>에서 순한 소리 <ㅈ>이 실지 발음에서는 <떡ㅈ>와 같이 된소리 <ㅈ>로 나는 데서 볼 수 있다.

이제 순한 소리가 된소리로 되는 경우들을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

ㄱ) 받침으로 되어 있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ㅌ, ㅍ, ㅍ, ㅍ> 다음에 오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은 된소리로 된다. 그러나 칠자법에서는 된소리로 적어서는 안 된다.

낮파[나ㅈ파], 낮도[나ㅈ도], 늦보리[느ㅈ보리], 꽃보리[꽃ㅈ보리], 멧살[멧ㅈ살], 쫓지[쫓ㅈ지].

잡고[잡ㅈ고], 잡다[잡ㅈ다], 밥그릇[밥ㅈ름], 없소[없ㅈ소], 없지[없ㅈ지], 높다[높ㅈ다].

먹고[먹ㅈ고], 먹다[먹ㅈ다], 학생[학ㅈ생], 닭소[닭ㅈ소], 부엌간[부ㅈ엌간], 닭파[닭ㅈ파].

발고[발ㅈ고], 발다[발ㅈ다], 말소[말ㅈ소], 말지[말ㅈ지].

웃고[웃ㅈ고], 웃다[웃ㅈ다], 잊소[잊ㅈ소], 잊지[잊ㅈ지].

ㄴ) 《L, O》으로 끝 난 동사, 형용사 어간 다음에 《G, C, H, J》으로 시작되는 로가 붙을 때에 이 《G, C, H, J》은 된소리로 된다.

그러나 철자법에서는 된소리로 적어서는 안 된다.

(선을) 선고[선^ㅁ코], 선다[선^ㅁ따]

(아이를) 안소[안^ㅁ쏘], 안지[안^ㅁ찌]

(나무를) 심고[심^ㅁ코], 심다[심^ㅁ따]

(빛이) 검고[검^ㅁ코], 검다[검^ㅁ따]

(그릇에) 담고[담^ㅁ코], 담다[담^ㅁ따]

ㄷ) 모음 또는 《L, R, M, O》으로 끝 나는 단어와 《G, C, H, J》으로 시작되는 단어가 어울려서 한 단어를 이룰 때에 두 부분 사이에서 발음이 끊어졌다가 나면 이 《G, C, H, J》이 된소리로 된다.

나무'가지[나무^ㅁ까지], 재'터미[재^ㅁ떠미], 기'발[기^ㅁ발], 배'속[배^ㅁ썩], 버'짚[버^ㅁ짚], 손'가락[손^ㅁ까락], 눈'동자[눈^ㅁ동자], 산'불[산^ㅁ불], 눈'썰[눈^ㅁ썰], 눈'젓[눈^ㅁ젓], 불'길[불^ㅁ길], 발'등[발^ㅁ등], 달'밤[달^ㅁ밤], 물'소[물^ㅁ쏘], 글'자[글^ㅁ짜], 봄'비[봄^ㅁ삐], 종'소리[종^ㅁ쓰리].

제 4 절. 순한 소리의 거센 소리되기와

그의 쓰기.

조선어에서는 단어를 발음할 때에 그 가운데에 있는 어떤 순한 소리가 거센 소리로 나는 경우들이 있다. 예를 들어 <좋다> <막히다>가 [조^ㅁ라] [마^ㅁ키다]와 같이 발음되는 데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거센 소리가 나게 되는 것은 《ㅎ》와 순한 소리 《G, C, H, J》가 결합하게 될 때인데 이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가 있다.

1) 받침이 《ㅎ》으로 되어 있는 것 다음에 《G, C, H, J》이 오는 경우 (부록 제 2 장 제 2 절 2) 《받침 《ㅎ》의 발음과 그의 쓰기》를 참고)

넣고[너^ㅁ코], 종교[조^ㅁ코], 넣다[너^ㅁ타], 좋다[조^ㅁ타], 넣지[너

치], 좋지[조치].

2) ㄱ, ㄷ, ㅂ, ㅅ, ㅈ이 앞에 오고 ㅎ이 뒤에 오는 경우

받침이 ㄱ, ㄷ, ㅂ, ㅅ, ㅈ으로 되어 있는 것 다음에 ㅎ이 올 때에 이것들이 어울려서 각각 ㅊ, ㅋ, ㆁ, ㆁ로 난다.

박^ㅊ히다[바^ㅊ키다], 생각^ㅊ하다[생^ㅊ가^ㅊ카다],

떠^ㅊ합지[떠^ㅊ잡지], 만^ㅊ형[만^ㅊ형],

달^ㅊ히다 [다^ㅊ치다],

뺏^ㅊ히다[매^ㅊ치다], 속^ㅊ히다[소^ㅊ치다],

웃^ㅊ함[오^ㅊ람], 잡^ㅊ히다[자^ㅊ피다],

입^ㅊ학[이^ㅊ괵], 입^ㅊ혀[이^ㅊ피타],

[연습 1] 다음의 문장에서 말소리가 같아서 다르게 발음되는 단어를 찾고 어떻게 발음되는가를 설명하시오.

1. 우리의 모든 행복은 조선 노동당과 김 일성 원수에 의하여 령도되는 인민 주권과 떼어 놓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다.

2. 명철 동무는 조용히 앉아서 열심히 책을 읽고 있었다.

3. 넓은 광장은 명절을 경축하는 시위자들로 들끓고 있었다.

4. 그는 넓은 들판으로 내려 가는 물굽을 따라 말'길을 옮겨 놓았다.

[연습 2] 다음 문장 가운데 <5> 받침이 있는 단어를 찾고 그 발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우리 인민은 오늘 영광에 찬 노동당 시대에 살고 있다.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고 오늘도 좋고 태일은 더욱 좋을 우리 인민의 시대,

[연습 3] 다음의 문장에서 모음들이 서로 어울린 단어를 골라 내시오.

1. 오리 떼들이 아침 해를 받아 반짝이는 잔 물'결을 가르며 등실등실 떠간다.

2. 맑은 하늘 아래 포기포기 핀 가을 꽃처럼 농장원들의 모습이 아름답다. 남녀 농장원들은 다 같이 벼'가울에 여념이 없다.

제 5 장.

말소리의 갈아듣기와 그 발음.

어떤 어간은 일부로 앞에서(또는 결합 모음 <으>나 접미사 <었> 앞에서) 그 끝 소리가 갈아 듣는다.

예: { 들다 들꼬 들느나 들지만.....
 들어 들어타 들으니 들었다.....
 짓다 짓네 짓더라도 짓고.....
 지어 지으며 지었소.....

여기서 <들다>의 어간의 끝소리는 <ㄷ-ㄹ>로 갈아 들었고 <짓다>의 어간의 끝소리는 <ㅅ-ㅇ(평)>으로 갈아 들었다.

이렇게 갈아 듣는 것은 갈아 듣 대로 쉼자하고 발음한다. 그러나 이 때도 될수록 어간과 토를 밝혀서 적는다.

예: 들어(×드러) 들었다(×드렀다)

1) <ㄷ-ㄹ>로 갈아 듣는 것.

모음으로 시작한 토 } 앞에서만 <ㄹ>로 된다.
 결합 모음 <으>
 접미사 <었(았)>

예: 들다.

들— { —어, 어서, 어타, 어도.....
 으니, 으며, 으면, 으면서.....
 —었소.....

걸다, 걸거든, 걸꼬, 걸네, 걸소

걸어서, 걸으니, 걸으면, 걸으랴, 걸을가

이에 속하는 단어들은 <걸다(걸을 걸다), 걸다(바구니를 걸다), 걷다(물을 걷다), 눅다(밤이 눅다), 달다(달아 나다), 다달다, 물다(물어 보다), 불다(강물이 불다), 질다(짐을 질다)> 등이 있다.

2) 《ㅂ-우(오)》로 갈아 드는것

모음으로 시작한 토

결합 모음《으》를 취할 수 있는 토 } 앞에서만 《우(오)》로 된다.
 접미사 《았(였)》

례 : 높다.

—어(누워), 어라(누워라)
 누우— —니, 며, 먼……
 —었다(누웠다)……

{ 곱다, 곱거든, 곱네, 곱소, 곱지
 { 고우니, 고우면, 고울가, 고웁니다, 고우시니

아름답다—아름답+아→아름다와

아름답+아서→아름다와서

덥다—덥+어→더워, 덥+어서→더워서

이런 부류에 속하는 단어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곱다(꽃이 곱다) 곱다(고구마를 곱다) 깎다, 높다, 돕다,
 펴다, 맵다, 칩다, 춥다, 꽃답다, 아름답다, 학생답다……

영예롭다, 리롭다, 해롭다……

3) 《ㅅ-오(렬)》으로 갈아 드는 것

모음으로 시작한 토

결합모음《으》 } 앞에서만 《ㅅ》이 없어진다.
 접미사《였(았)》

례 : 낮다.

—아, 아서, 아타……
 나— —으니, 으며, 으면서……
 —았다.

이런 부류에 속하는 단어들은 《긋다(금을), 낮다(병이) 붓
 다(물을) 있다(끈을), 짓다(배를), 짓다(글을)》 등이 있다.

4) 《ㅎ-오(렬)》으로 갈아 드는 것

《ㄴ, ㄹ, ㅁ, ㅂ》으로 시작한 토 앞에서만 《ㅎ》이 없어진다.

례 : 빨강다.

—니, 나……
 빨가— —랴, ㄹ……
 —며, 므로……
 —ㅂ니다, ㅂ니까……



이런 단어는 모음으로 시작한 토나 접미사 《있(았)》 앞에서는 아래와 같이 발음되며 철자도 발음 대로 한다.

예: 빨개(참고: 빨강+아) 빨개서(참고: 빨강+아서) 빨갰다(참고: 빨강+았다)

이런 부류에 속하는 단어에는 아래와 같은 것이 있다.

거렇다, 그렇다, 이렇다, 저렇다, 기다랗다, 깊다랗다, 높다랗다, 누렇다, 둥그렇다, 말짱다, 커다랗다, 하얗다, 까맣다……

5) 《ㄹ-ㅇ(렬)》으로 갈아 드는 것

《L, ㅂ, ㅅ》으로 시작한 토
 토<ㅇ>
 접미사 《시》 } →앞에서만

《ㄹ》이 없어진다.

예: 살다

사— {
 —니, ㄴ, 는……
 —입니다, ㅂ디까……
 —세……
 —오……
 —지다……

이 부류의 단어에는 어간의 끝 소리가 《ㄹ》로 끝난 모든 동사와 형용사가 들어간다.

예: 갈다, 걸다, 길다, 날다, 놀다, 탈다, 돌다, 멀다, 물다, 밀다, 벌다, 불다, 칠다, 잘다, 질다, 떨다, 빨다, 썰다, 쓸다.

6) 《ㄹ-ㄹㄹ》로 갈아 드는 것

토 《어, 어서, 어라(아, 아서, 아라)》 } 앞에서만《ㄹㄹ》로 된다.
 접미사 《였(았)》

예: 흐르다.

흐르— {
 —어(흘러), 어서(흘러서)…
 —었다(흘렀다)……

이 부류에 속하는 단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가르다, 고르다, 기르다, 나르다, 누르다(손으로 누르다), 마르다, 모르다, 바르다(장판을 바르다), 부르다, 빠르다, 짜르다, 흐르다……

7) <O(령)-ㄹ>로 갈아 드는 것

로 <어, 어서, 어리>
 접미사 <었> } 앞에서만 <ㄹ>로 된다.

례 : 푸르다.

푸르ㄹ — [어(푸르러), 어라(푸르러라)……
 었다(푸르렀다)……

이렇게 갈아 드는 단어는 <이르다>(도착하다), 푸르다, 누르다의 셋 뿐이다.

· 누르다[빛이 누르다]—누르렀다.

이르다 — 이르고, 이르러, 이르러서, 이르러라.

[연습 1] 다음 단어들을 넣어서 문장을 각각 두 개씩 지으시오

1) 걸다(길을 걸다), 듣다(말을 듣다), 묻다(물어 보다), 신다(짐을 신다), 깨닫다(알다).

2) 곱다(꽃이 곱다), 눅다, 돕다, 컵다, 춥다, 아름답다, 영예롭다.

3) 굶다, 낫다, 붓다, 잇다, 짓다……

4) 갈다, 걸다, 길다, 날다, 놀다, 멀다, 밀다, 불다, 빨다, 쓸다.

5) 고르다, 가르다, 기르다, 나르다, 모르다, 부르다, 빠르다, 오르다……

[연습 2] 다음 단어들 중에서 <H-우(으)>로 갈아 드는 것을 고르라.

굽다(곧지 않다), 굽다(밤을 굽다), 눅다, 눅다, 밍다, 맵다, 컵다, 춥다, 곱다, (추워서 손이 곱다), 곱다(꽃이 곱다), 잡다, 집다, 엮다, 아름답다, 꽃답다, 학생답다, 영예롭다, 리롭다, 해롭다.

[연습 3] 다음 단어들 중에서 <ㄷ-ㄹ>로 갈아 드는 것을 고르라.

걸다(길을 걸다), 길다(빨래를 걸다), 긴다(물을 길다), 묻다(질문 하다), 묻다(땅에 묻다), 믿다, 뻔다, 깨닫다, 다닫다.

[연습 4] 다음 단어들 중에서 <ㄹ-ㄱ(령)>으로 갈아 드는 것을 고르라
 벗다, 씻다, 짓다, 빛다, 낫다, 잇다, 굶다, 붓다, 짓다, 솟다, 빼앗다.

[연습 5] 다음 단어들 중에서 <ㄹ-ㄹㄹ>로 갈아 드는 것을 고르라.

고르다, 가르다, 누르다(손으로 누르다), 부르다, 빠르다, 이르다(시간이 이르다), 모르다, 이르다(도착하다), 모르다, 오

르다, 치르다, 게으르다.

제 6 장. 표준 발음법.

표준 발음법이란 말을 할 때에 정확하게 그리고 통일적으로 지켜야 할 발음 상의 규칙을 말한다.

조선 글'자는 쓴 대로 발음하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지의 발음이 글'자 우에 나타나지 않는 것도 있다.

례를 들어 말'소리의 높기와 길이는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주의하지 않으면 단어의 뜻이 잘못 이해될 수 있다.

또 <말'소리의 뉘음> 등에서 배운 바와 같이 발음이 찍어 있는 글'자 그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표준 발음법을 잘 배우고 익혀야 한다.

제 1 절. 표준 발음법에서 주의할 몇 가지 점.

1) 단어의 첫 머리에 오는 <ㄴ, ㄹ>의 발음.

1) <ㄴ>이 단어의 첫 머리에 올 때

단어의 첫머리에 오는 <ㄴ>이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ㅜ, ㅡ와 결합될 때에는 제대로 발음되나 모음 ㅓ, ㅕ, ㅛ, ㅠ, ㅜ, ㅡ와 어울릴 때에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다.

녀자→[여자] 녀대표→[열대표]

념려→[염려]→[염녀] 녀원→[염원] 뉴대→[유대]

2) <ㄹ>이 단어의 첫 머리에 올 때

단어의 첫머리에 온 <ㄹ>이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와 어울릴 때에는 <ㄴ>으로 발음된다.

라침판→[나침판] 르인→[노인] 롱가하다→[능가하다]

래일→[내일] 랭수→[냉수]

단어의 첫머리에 온 <ㄹ>이 모음 ㅓ, ㅕ, ㅛ, ㅠ, ㅜ, ㅡ와

어울릴 때에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다.

량·심→[양·심]

렬·차→[열·차]

로·리→[요·리]

레·절→[예·절]

려·행→[여·행]

류·지→[유·지]

리·유→[이·유]

리·발→[이·발]

2) 《ㄱ, ㄴ, ㅎ》이 어울린 ㄱ의 발음.

조선어에서는 모음자 《ㄱ》이 《ㄱ, ㄴ, ㅎ》 이외의 자음자와 어울리는 일이 없다. 《계》 《레》 《혜》는 《게》 《레》 《헤》로 잘못 발음되기 쉬우므로 정확히 발음하여야 한다.

계급, 계산, 계시다, 계획, 시계, (그러나 《계시판》 《계재》는 《계시판》, 《계재》가 아니다).

레외, 레의, 실레, 혼레, 혜성, 혜력, 지혜, 은혜.

3) 자음과 어울린 ㄴ의 발음.

조선어에서 겹모음 ㄴ의 앞에 와서 어울리는 자음은 《ㅎ, ㄴ, ㅁ》이다.

희다, 너희들, 희망, 유희, 무늬, 띄어 쓰기, 씌다.

이 경우에 ㄴ은 홀모음 ㄴ과 같이 발음되기 쉬우므로 정확히 발음하여야 한다.

4) 뒤에 오는 모음 ㅏ의 영향으로 앞 음절에 있는 모음 《ㅏ, ㅑ, ㅓ》의 발음이 《ㅏ, ㅑ, ㅓ》로 되기 쉬운 경우.

앞 음절에 있는 모음 《ㅏ, ㅑ, ㅓ》가 뒤에 오는 모음 《ㅣ》를 닮아서 각각 《ㅏ, ㅑ, ㅓ》로 잘못 발음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게 발음하여서는 안 되며 글자 그대로 발음하여야 한다.

례 :

옳은 발음		틀리는 발음
먹이다	[머기다]	[메기다]
눅이다	[노기다]	[뇌기다]
잡히다	[자피다]	[재피다]
아기	[아기]	[애기]
재'터미	[재'터미]	[재'메미]

5) 뒤에 모음 《ㅣ》가 올 때에 앞에 있는 받침 《ㄷ, ㅌ》의 발음이 《ㅌ, ㅌ》로 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ㄷ, ㅌ》가 받침으로 되고 뒤에 《ㅣ》가 오면 《ㄷ

티》로 발음하지 아니하고 <지, 치>와 같이 발음하여야 한다.

굳이→[구지] 같이→[가치]

해돋이→[해도지] 날날이→[날나치]

[연습] 다음 문장들에서 <ㄹ, ㄹ>를 첫소리로 한 단어가 어떤 모음과 어울렸는가를 말하고 이를 똑똑히 발음하여 보시오

1) 조선 인민은 역사적인 기술 혁명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2) 모든 근로자들은 년간 계획을 초과 완수하는 모력적 투쟁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3) 선생님께서는 어른에게 대한 례절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4) 우리 학교는 육상 경기에서 이 번에도 연속 우승하였다.

5) 영웅적인 우리 나라 로동 계급은 전후 짧은 기간에 세계 일등급의 대비날론 공장을 새로 건설하였다.

어음론 총 복습 문제.

[연습 1] 조선어 글'자는 모두 몇 자입니까? 그 중에서 자음은 몇 자이고 모음은 몇 자입니까?

[연습 2] 조선어 자음을 차례로 쓰고 암기하십시오

[연습 3] 조선어 모음은 몇 자입니까? 그 중에서 홀모음은 몇 자이고 겹모음은 몇 자입니까? 학습장에 쓰고 암기하십시오

[연습 4] 말'소리를 내는 기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말'소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말하십시오

[연습 5] 겹모음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것들이 어떻게 발음되는가를 말하십시오

[연습 6] <7, 7, 人, ㅈ, ㅊ, H, ㅍ>이 받침으로 될 때에 발음이 어떻게 되며 또 이들 받침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음절이 올 때에는 발음이 어떻게 되는가를 예를 들어 설명하십시오

[연습 7] 조선어 홀받침에는 어떤 자음들이 속하는가를 말하고 예를 드시오

[연습 8] 조선어 들받침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예를 드시오

[연습 9] 조선어 홀받침과 들받침의 차이를 예를 들어 설명하십시오

[연습 10] 다음 단어들을 똑똑히 발음하여 보고 소리가 어떻게 그리고 왜 달라지는가를 말하십시오

설날, 닭모이, 편락, 진작로, 앞문, 능라도, 불는다, 압력, 백 년, 쇠붙이, 학문, 기'발, 불'길.

[연습 11] 다음 단어들을 똑똑히 발음하고 차이점과 공통점을 말하십시오

민다, 팔, 낫, 있다, 젓, 꽃, 먹, 밖, 부엌.

[연습 12] 다음 단어들을 발음하여 보고 그 발음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설명하십시오.

강철이, 꽃이, 강철을, 꽃에, 꽃을, 옷이, 옷에, 옷을, 받아, 받으니, 쫓아, 쫓으니, 읽으니, 읽으면, 읽으십시오

[연습 13] 다음 단어들을 발음하여 보시오

부엌안, 꽃아래, 무릎아래, 방안, 콩'엿, 물'약, 팔알, 녀'없
이, 값, 몫, 밭다, 앉고, 읊다, 닭, 굶, 활고, 젊고, 읊다, 많다,
좋다, 남고, 거뭇지, 냉소, 막히다, 단히다, 잡히다, 맞히다,
좋아, 쌓으면, 망심, 력사, 락원, 곤난, 좋다, 좋으니, 좋
겠다.

[연습 14] 다음의 단어를 글'자표의 차례 대로 써 보시오

1) 소, 말, 염소, 토끼, 개, 닭, 오리, 돼지, 범, 곰, 새,
코끼리, 원숭이.

2) 조국, 통일, 인민, 노동자, 공장, 중공업, 농민,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자동화, 백두산, 압록강, 화학화, 두만강.

[연습 15] 다음의 쌍을 이룬 단어들의 발음을 똑똑히 하여 보고 그
뜻의 차이를 말하십시오.

1) ㄱ—ㄱ: 범—범, 벗—벗, 서리—소리, 넣다—놓다.

2) ㄷ—ㄷ: 굴—굴, 꿀—꿀, 구르다—그르다.

3) ㄴ—ㄴ: 개—개, 내 것—네 것, 모래—모래, 샘—샘.

4) ㄴ—ㄴ: 꺾—꺾, 되다—테다, 쇠다—세다, 퍼다—깨다.

5) ㄴ—ㄴ: 귀—귀, 쥐다—시다, 쥐다—지다, 뛰다—떠다.

[연습 16] 다음 노래에서는 음절이 어떻게 고려되었는가를 설명하십시오

장백산 즐기출기 피어린 자옥

압록강 굽이굽이 피어린 자옥

오늘도 자유 조선 꽃다발 우에

력력히 비쳐 주는 거룩한 자옥

아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아 그 이름도 그리운 김 일성 장군

만주벌 눈바람아 이야기하랴

딜림의 긴긴 밤아 이야기하랴

만고의 빨찌산이 누구인가를

절세의 애국자가 누구인가를

아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 일성 장군

[연습 16] 다음 단어들에서 똑같이 발음되면서도 다르게 쓰인 받침 글'자를 골라 내시오.

목, 간다, 듣고, 엮다, 낫, 깎다, 당, 있느냐, 있고, 깎느냐, 옳다, 낫, 듣느라고, 엮다, 쫓고, 짓느냐, 말고, 말느냐, 막느냐.

[연습 17] 다음 단어들을 발음하여 보시오.

삼, 흙, 삶다, 핥고, 넓다, 끼얹는다, 가없다, 풀다, 꽃'잎, 공, 쿵, 풍, 갖추다, 거명다, 꺼명다, 겪었다, 굶, 굶에, 굶다, 기슭, 길다랗다, 계획, 날말이, 넓고, 넓다, 넓다, 넓었다, 높고, 높아, 높다, 닭, 닭알, 닭다, 깎다, 들, 량국간, 류학, 많다, 많아, 많이, 맑다, 풀다, 묶음, 밟다, 밟다, 밤, 밝음, 붉다, 불어, 삶다, 싫다, 싫다, 젊다, 젊어, 좋아하다...흙이, 흙, 끌다, 끌다, 째다, 쫓다, 앓다, 앓아, 읊소, 읊다.

제 2 편.

형태론.

I. 단어의 이루어짐과 단어 만들기.

제 1 장.

단어의 이루어짐.

단어가 이루어진 것을 살펴 보면 어떤 것은 터는 나눌 수 없는 하나의 뜻덩이로 되어 있다.

예: 낫, 망치, 아직, 오히려...

그러나 어떤 단어는 두 개 이상의 뜻덩이로 나눌 수 있다.

예: 쇠'물→쇠+물

풀베기→풀+베(참고: 베고, 베며)+기(참고: 심기, 가꾸기, 거두기.....)

이런 뜻덩이는 터 작게는 가를 수 없다.

단어 안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작은 뜻덩이를 **형태부**라고 한다.

곧 《낫, 망치, 아직, 오히려, 쇠, 물, 풀, 베, 기》들이 형태부다.

제 1 절. 어근과 접사.

두 개 이상의 형태부로 이루어진 단어에서는 그 중의 어떤 형태부가 그 단어를 이루는 주요 부분이 되고 나머지는 덧붙이로 되는 일이 있다.

예: 1) 《울버, 울콩, 울사과》들에서 [주요한 형태부]—버,

콩, 사과

[덧붙이로 된 형태부]—을

2) 《사내답(다), 어른답(다), 꽃답(다)》들에서

[주요한 형태부]—사내, 어른, 꽃

[덧붙이로 된 형태부]—답

3) 《논밭, 나무'배, 피팔새》들에서

[주요한 형태부]—논, 밭: 나무, 배: 피팔, 새

[덧붙이로 된 형태부]—(없음)

단어를 이루는 주요한 형태부를 **어근**이라 하고 덧붙이로 되는 형태부를 **접사**라 한다.

단어에는 어근은 반드시 있지만 접사는 없을 수도 있다.

접사는 어근의 앞에 붙는 것도 있고 뒤에 붙는 것도 있다.

어근의 앞에 붙는 접사를 **접두사**라 하고 뒤에 붙는 접사를 **접미사**라 한다. 앞의 례에서 《**올**버》의 《**올**》은 접두사고 《아**름**답다》의 《**답**》은 접미사다.

제 2 절. 어간과 토.

하나의 같은 단어라도 그것이 말이나 글에서 사용될 때는 여러 가지로 그 모습이 달라진다.

례: 1) 쇠'물이 흐른다.

쇠'물의 빛이 아름답다.

쇠'물을 뽑는다.

2) 모판에 물을 대다

모판에 물을 대고 돌아 온다.

모판에 물을 낼 계획이다.

모판에 물을 대도록 말하시오.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을 **토**라고 한다. 곧 위의 례에서 《**이**, **의**, **을**, **라**, **고**, **르**, **도록**》들이 토다.

단어에서 토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어간**이라 한다. 위의 례문에서 《**쇠'물**》《**대**》가 어간이다.

어간과 토는 서로 어울려서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애

당초 ㄹ이 쓰이지 않는 단어에서는 어간도 생각할 수 없다.

예: 어느, 여러, 차타리

어간과 어근은 전혀 다른 것이다.

어간은 ㄹ이 사용되는 단어에서 ㄹ과 대비하면서만 생각할 수 있지만 어근은 단어를 이루는 주요 형태부이기 때문에 ㄹ이 없는 단어에도 있다.

어		간		ㄹ
접두사	어	근	접미사	
꽃		나물		ㄹ
		사랑	스럽	ㄹ
맨		주먹	질	ㄹ

받침 소리로 끝난 어간 밑에 어떤 ㄹ이 붙을 때는 그 사이에 <ㄹ>이 끼는 일이 있다. 이것을 결합 모음이라 한다.

예: 읽으^ㄹ니(《보니》와 비교하라)

읽으^ㄹ므로(《보므로》와 비교하라)

읽으^ㄹ가(《볼가》와 비교하라)

결합 모음 <ㄹ>이 쓰이는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먹으 ^ㄹ 니—먹으 ^ㄹ 면—먹으 ^ㄹ 라	담으 ^ㄹ 니—담으 ^ㄹ 면—담으 ^ㄹ 라
안으 ^ㄹ 니—안으 ^ㄹ 면—안으 ^ㄹ 라	있으 ^ㄹ 니—있으 ^ㄹ 면—있으 ^ㄹ 라
굳으 ^ㄹ 니—굳으 ^ㄹ 면—굳으 ^ㄹ 라	앉으 ^ㄹ 니—앉으 ^ㄹ 면—앉으 ^ㄹ 라
심으 ^ㄹ 니—심으 ^ㄹ 면—심으 ^ㄹ 라	않으 ^ㄹ 니—않으 ^ㄹ 면—않으 ^ㄹ 라
좁으 ^ㄹ 니—좁으 ^ㄹ 면—좁으 ^ㄹ 라	맑으 ^ㄹ 니—맑으 ^ㄹ 면—맑으 ^ㄹ 라
벗으 ^ㄹ 니—벗으 ^ㄹ 면—벗으 ^ㄹ 라	젊으 ^ㄹ 니—젊으 ^ㄹ 면—젊으 ^ㄹ 라
늦으 ^ㄹ 니—늦으 ^ㄹ 면—늦으 ^ㄹ 라	밟으 ^ㄹ 니—밟으 ^ㄹ 면—밟으 ^ㄹ 라
쫓으 ^ㄹ 니—쫓으 ^ㄹ 면—쫓으 ^ㄹ 라	활으 ^ㄹ 니—활으 ^ㄹ 면—활으 ^ㄹ 라
얕으 ^ㄹ 니—얕으 ^ㄹ 면—얕으 ^ㄹ 라	흙으 ^ㄹ 니—흙으 ^ㄹ 면—흙으 ^ㄹ 라
얕으 ^ㄹ 니—얕으 ^ㄹ 면—얕으 ^ㄹ 라	웁으 ^ㄹ 니—웁으 ^ㄹ 면—웁으 ^ㄹ 라
놓으 ^ㄹ 니—놓으 ^ㄹ 면—놓으 ^ㄹ 라	없으 ^ㄹ 니—없으 ^ㄹ 면—없으 ^ㄹ 라

결합 모음 <ㄹ>은 일정한 ㄹ 우에서만 쓰인다.

1) 결합 모음 《으》가 쓰이는 경우.

어간의 례	토		어간과 토가 어울릴 때의 례
	첫소리	례	
굽, 늪, 알	ㄴ	니, 니까, 나	으니, 으니까, 으랴
불, 씹, 짹	ㄹ	랴, ㄹ가	으랴, 으르가
낮, 좃, 째	ㅁ	면, 므로	으면, 으므로
잡, 돌, 말	ㅂ	버나다, 버니까	으버나다, 으버니까
있, 깎, 훑, 품	ㅅ	시너	으시너

2) 결합 모음 《으》가 쓰이지 아니하는 경우.

어간의 례	토	
	첫소리	례
굽, 늪, 알	ㄱ	고, 거든, 구나
낮, 좃, 째	ㄴ	니? 나?
불, 씹, 짹	ㄷ	다, 데
많, 갈, 웃, 맞	ㅅ	소, 습니다, 사오니
꽃, 막, 낱, 밭	ㅈ	지, 지요
웁, 읽, 신	모음	아야(어야)

[연습] 다음 단어에서 어간과 토를 가르시오

1) 나무가, 나무의, 나무를, 나무에, 나무로, 나무다, 나무나.

2) 아름답네, 아름답구나, 아름답지만,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게.

3) 읽겠소, 읽겠니, 읽겠구나, 읽겠느냐, 읽히느냐, 읽히지만, 읽히어라, 읽히는.

오시오, 오시고, 오시느냐

웁고, 웁다, 읽다, 읽히다, 읽다.

웨치다, 외국, 이사귀, 있다, 있고, 있어, 원쑤, 예쁘다, 웃고, 웃다, 웃마을, 웃사람, 우리, 열렬히, 역할, 여덟, 앓다, 앓다, 썩다, 빨다, 짙다, 짙이다, 펄펄리, 펄, 깨닫다, 깨끗하다, 쥐다, 쥐어, 쥐였다, 박물관, 혁명, 옛말, 읽느냐, 용광로, 앞날, 근로자, 진리, 속력, 압록강, 승리, 밝는다, 명령, 천리마.

제 2 장.

단어 만들기.

조선어에는 단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도 있으나 이것을 토대로 하여 두 개 이상의 어근이 합치거나 또는 어근에 접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것도 있으며 소리나 품사가 바뀌어서 이루어진 것도 있다.

이와 같은 단어들이 이루어진 특성을 알아 내는 것은 그 단어의 뜻을 이해하는 데 적지 않는 도움을 준다.

그러므로 단어를 대할 때 우선 단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기본적인 단어인가 또는 그것을 토대로 하여 다시 만들어진 단어인가를 구별해야 한다.

이제 먼저 단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들면 다음과 같다.

- 잎, 책, 손, 사람, 기계, 아버지(명사)
- 들, 셋, 천, 하나, 스물, 설혼(수사)
- 나, 너, 저, 우리, 저희, 무엇(대명사)
- 가다, 읽다, 보다, 싸우다, 가르치다(동사)
- 높다, 밝다, 많다, 푸르다, 게으르다(형용사)
- 온, 새, 모든, 여력(관형사)
- 줌, 썩, 왓각, 아마, 터구나(부사)
- 오, 자, 아차, 어이구, 일췌구(감동사)

제 1 절. 어근이 합쳐서 이루어진 것.

- 밤낮(밤+낮), 해' 빛(해+빛), 군밤(군+밤)[명사]
- 뉘놀다(뉘+놀다), 돌보다(돌+보다)[동사]
- 옹바르다(옹+바르다), 낮설다(낮+설다)[형용사]
- 어느새(어느+새), 더욱더(더욱+더)[부사]

※ 두 어근이 합쳐서 이루어진 가운데는 그 중 어느 한 부분을 줄인 것도 있다.

례: 녀맹(녀성 동맹), 직맹(직업 동맹), 공대(공업 대학), 사로칭(사회주의 노동 청년 동맹), 황칠(황해 제철소), 평방(평양 방직 공장), 8.15(8월 15일), 5.1절(5월 1일 명절), 3.8절(3월 8일 국제 부녀절), 2.8팀(2월 8일 명절 팀), 조-로(조선어-로씨야어), 조-중(조선-중국).

제 2 절. 어근에 접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것.

1) 접두사가 붙은 것

- 만-: 만형, 만아들, 만딸(명사)
- 해-: 해'곡식, 해'벼, 해'보리(명사)
- 중-: 중공업, 중무기, 중기관총(명사)
- 대-: 대규모, 대부분, 대가정(명사)
- 맞-: 맞서타, 맞대다, 맞달다(동사)
- 빛-: 빛대다, 빛나가다, 빛더디다(동사)
- 짓-: 짓밟다, 짓씹다, 짓구기다(동사)
- 헛-: 헛보다, 헛더디다, 헛밟다(동사)
- 드-: 드세다, 드높다, 드넓다(형용사)
- 시-: 시빨꺄다, 시'누렁다, 시허얼다(형용사)
- 새-: 새빨꺄다, 새'노랗다, 새까맣다(형용사)

2) 접미사가 붙은 것.

- 군; 농사'군, 씨름'군, 사냥'군(명사)
- 기; 즐넘기, 퓌뛰기, 달리기(명사)
- 음(음); 결음, 그림, 모임, 웃음(명사)
- 이; 길이, 깊이, 웃꺄이, 손잡이(명사)
- 개; 덮개, 지우개, 마개, 폐개(명사)
- 가; 예술가, 소설가, 미술가(명사)
- 공; 방꺄공, 벽돌공, 수리공(명사)
- 성; 당성, 계꺄성, 혁꺄성, 꺄꺄성(명사)

- 생; 실습생, 연구생, 강습생(명사)
- 자; 노동자, 애국자, 과학자, 기술자(명사)
- 원; 선동원, 사무원, 간호원(명사)
- 뜨리; 넘어뜨리다, 리뜨리다, 쏟아뜨리다(동사)
- 거리; 기웃거리다, 두근거리다, 중얼거리다(동사)
- 이; 들먹이다, 반씩이다, 움적이다(동사)
- 치; 넘치다, 부딪치다, 옆치다, 물리치다(동사)
- 대; 웃어대다, 우겨대다, 북아대다(동사)
- 답; 사람답다, 청년답다, 꽃답다(형용사)
- 롭; 새롭다, 슬기롭다, 외롭다(형용사)
- 스럽; 사랑스럽다, 행복스럽다, 구경스럽다(형용사)
- 다량; 길다량다, 넓다량다, 좁다량다(형용사)

※ 접사르 이루어진 것 가운데는 어근에 접두사와 접미사가 함께 합친 것도 있다.

례: 헛손질, 되풀이, 휘몰아치다

제 3 절. 소리나 품사가 바뀌어 이루어진 것.

1) 소리가 바뀌어 이루어진 것.

- 맛—멧, 가죽—거죽, 부스럽—보스럽(명사)
- 졸다—졸다, 눅다—눅다, 좇다—쫓다(동사)
- 빨강다—빨경다, 하얗다—허엿다, 고소하다—구수하다(형용사)
- 이리—요리, 그만—고만, 이다지—요다지
- 싱싱—쌩쌩, 깡충깡충—경충경충, 사뿐사뿐—사푼사푼(부사)
- 하하—허허, 아—어—오, 어이쿠—에이쿠(감동사)

2) 품사가 바뀌어 이루어지는 것.

- 진(명사)+다(토)→진다(동사)
- 떠(명사)+다(토)→떠다(동사)
- 빛(명사)+다(토)→빛다(동사)
- 가물(명사)+다(토)→가물다(형용사)

정말(명사)+로(토)→정말로(부사)

단숨(명사)+에(토)→단숨에(부사)

앞(명사)+서(토)→앞서(부사)

[연습 1] 다음의 문장 가운데서 하나의 어근으로 된 단어와 그렇지 않은 단어를 가리고 그렇지 않은 단어는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졌는가 말하십시오.

ㄱ. 모범 농민 강 동무는 풀베기와 밭갈이에서도 언제나 농장원들의 선두에서 일하였다.

ㄴ. 우리는 행복한 나날을 창조의 불'길 속에서 살아 간다.

ㄷ. 우리는 하루 속히 남조선 인민들을 구원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사회주의 건설에 힘차게 나서야 한다.

[연습 2] 접두사 <첫>, <첫>, <휘>, <덧>이 들어 가서 이루어진 단어를 각각 들춰 들어 보시오

[연습 3] 접미사 <편>, <스럽>, <치>가 들어가 이루어진 단어를 각각 들춰 들어 보시오

[연습 4] 소리가 바뀌어 이루어진 단어를 세 개 이상 들어 보시오

[연습 5] 다음의 빈 자리에 알맞는 접두사와 접미사를 써 넣으시오

손□, 어른□다, □피뿔다, 경사□다, 짜느□다, 시끄□다.

II. 조선어의 품사.

조선어의 단어들은 아래와 같은 여덟 가지 품사로 나누인다.

1) 명사

례: 망치, 낫, 기계, 책, 연필, 당.

2) 수사

례: 하나, 둘, 셋, 백, 만, 둘째, 세째.

3) 대명사

례: 나, 너, 우리, 누구, 무엇.

4) 동사

례: 움직이다, 웃다, 걷다, 읽다, 쓰다.

5) 형용사

례: 아름답다, 붉다, 가깝다, 뜨겁다, 미끄럽다.

6) 관형사

예: 모든(사람), 여러(나라), 새(기계), 온갖(생각)

7) 부사

예: 모두(움직이다), 몹시(웃다), 퉁퉁히(걸다), 대단히(아름답다), 훨씬(붙다), 조금(먹다)

8) 감동사

예: 아아, 어어, 오냐, 에그머니, 오홍에야.

우의 여덟 개 품사 중 명사, 수사, 대명사는 토 없이도 하나의 단어로 되나 동사나 형용사는 토가 붙어야만 하나의 단어로 된다. 따라서 명사, 수사, 대명사는 문장에서 토 없이 쓰이기도 하고 토를 가지고 쓰이기도 하나 동사나 형용사는 반드시 토를 가져야 문장에 쓰일 수 있다. 그리고 관형사, 부사, 감동사에는 기본적으로 토가 붙지 않는다.

조선어의 명사, 수사, 대명사는 문장에서 주로 주어나 보어로 되나 동사나 형용사는 주로 술어로 된다. 이와 같은 공통점에 근거하여 명사, 수사, 대명사를 체언이라 부르고 동사, 형용사를 용언이라 부른다.

제 1 장.

명 사.

명사란 선생, 하늘, 책상, 꽃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사물을 이름 짓는 단어들을 말한다.

예: 로동자, 아버지, 말, 벼, 산, 아침, 비행기, 봄, 나라, 계급, 자랑, 친선, 충직성.....

제 1 절. 명사의 종류.

1) 활동체 명사와 비활동체 명사.

명사는 그것이 나타내는 대상의 성격에 따라 활동체 명사와 비활동체 명사로 나눈다.

활동체 명사란 사람이나 동물들과 같이 활동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대상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례 : 류학생, 비둘기, 고양이, 소, 개.

비활동체 명사란 식물, 기계, 사건, 물건등과 같이 활동 능력을 가지지 못한 대상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례 : 풀, 돌, 가을, 도시, 싸움, 자동차.

활동체 명사와 비활동체 명사는 격로의 사용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례 :

- (동생에게 책을 주었다
- (꽃에 물을 주었다
- (형님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 (나무에서 열매를 따다.

2) 완전 명사와 불완전 명사.

명사는 그 기능에 따라 **완전 명사**와 **불완전 명사**로 나눈다.

완전 명사란 그것만으로도 자립성을 가지고 단독적으로 문장 성분을 이루는 명사이다.

례 : 조선은 칠리마의 나라이다.

불완전 명사란 그것만으로서 자립성을 가지지 못하며 반드시 그를 규정하는 단어와 결합되어야만 하나의 성분으로 쓰일 수 있는 명사이다.

례 : 모든 것, 떠난 테, 모를 리, 할 줄, 읽을 수, 가는 바,
불완전 명사 가운데서 널리 쓰이는 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

○ 것: 그는 아는 것이 많다.

테일은 날이 개일 것이다.

○ 테: 가는 테가 어디냐?

○ 리: 그럴 리가 없다.

○ 수: 제가 갈 수 있습니다.

○ 적: 공부할 적에는 조용합시다.

○ 줄: 동무를 사랑할 줄 알고 원썬을 미워할 줄 알아야 한다.

○ 바: 이미 작오한 바 있을진대 못할 일이 무엇이랴!

○ 이: 교실에서 신문을 보시는 이가 제셨다.

○ 분: 저 분이 저의 담임 선생입니다.

○ 무렵: 동틀 무렵에 집을 떠났다.

○ 날: 날이 쌀 날에 잠이 들었다.

○ 쪽: 해가 뜨는 쪽이 동쪽이다.

불완전 명사의 성질을 가진 단어 가운데는 수량의 단위를 나타내면서 항상 수사의 다음에만 쓰이는 단어의 부류가 있다. 이것을 단위 명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례: 개: 사과 세 개

권: 책 두 권

벌: 양복 한 벌

자루: 연필 너 자루

톤: 석탄 다섯 톤

마리: 소 열 마리

컬레: 신 스무 컬레

장: 종이 다섯 장

불완전 명사 가운데 어떤 것은 완전 명사와 다름 없이 모든 격토를 가지는 것도 있으나(따라서 문장의 각종 성분으로 될 수 있다) 어떤 것은 일부의 격토만 가지는 것도 있다(따라서 문장의 각종 성분으로 될 수 없다)

례:

책을 읽는	— <u>분</u> 이 누구냐?
	— <u>분</u> 의 이름을 아느냐?
	— <u>분</u> 을 보시오
	— <u>분</u> 에게 물어 보시오
	— <u>분</u> 으로 알고 있습니다.
	— <u>분</u> 과 만나 보시오.

책을 읽을	{ 수 있다.
	{ 수가 있다.

책을 읽는	{ 체 한다.
	{ 체를 한다.

책을 읽을 뿐이다.

[연습 1] 다음의 문장에서 명사를 찾아 내고 그의 종류를 나누어 보시오

<우리의 심장에는 외래 침략자들을 물리치고 조국의 독립과 영예를 고수한 선조들의 고매한 애국 정신이 맥박치고 있다>.

<살구나무 밑에 놓인 의자에서는 한 분이 신문물을 읽고 계셨습니다. 그 분은 아이들의 발' 걸음 소리를 들으셨는지 보시던 신문을 내리시며 이 쪽으로 몸을 돌리시었습니다>

[연습 2] 다음의 빈 자리에 적당한 불완전 명사를 넣어 보시오.

<가족들의 원썩을 직접 눈으로 보고 쓰아 죽이지 않고는 견디어 낼 없을 같았다.

비행기 다섯 , 분필 석 , 학생 세 , 집 두

[연습 3] 다음의 불완전 명사를 가지고 단문을 지어 보시오.

리, 테, 줄, 지, 수.

[연습 4] 다음의 문장의 빈 자리에 알맞는 토를 넣어 보시오.

최우등생 상장을 주었다.

꽃 물을 주었다.

들 실을 뽑는다.

젓소 젓을 짜낸다.

[연습 5] 자기가 알고 있는 불완전 명사를 열 개 이상 써 보시오.

제 2 장.

수 사.

수사란 하나, 둘, 세째, 네째와 같이 대상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를 말한다.

례: 책이 다섯 권 있다.

첫째 문제는 둘째 문제보다 쉽다.

제 1 절. 수사의 종류.

1) 수량 수사.

수량 수사란 대상의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다.

ㄱ) 명확한 수량을 나타내는 것,

○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스물, 서른, 마흔, 쉰, 예순, 일흔, 여든, 아흔……

○ 공(령), 일, 이, 삼, 사, 오, 륙, 칠, 팔, 구, 십, 이십, 삼십……구십, 백, 이백,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이처럼 백 이하의 수량 수사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는데 먼저 것을 **고유 조선 어휘 수량 수사**라 하고 뒤의 것을 **한자 어휘 수량 수사**라 한다.

ㄴ) 대략적인 수량을 나타내는 것.

○ 한둘, 두셋, 서넛, 두서넛, 너댓, 서너넛, 너더댓, 대여섯, 예닐곱, 일여덟, 여나문, 스무나문, 서르나문, 마흐나문, 쉰나문, 예수나문, 일흐나문, 여드나문, 아흐나문……

○ 일이, 이삼, 삼사, 사오, 오륙, 륙칠, 칠팔, 팔구, 이삼십, 삼사백, 십여, 이십여, 오십여, 팔십여, 구십여, 백여, 이백여, 천여……

수량은 위에서 본 것처럼 언제나 매개 수사 하나씩만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수량 수사를 두 개 이상 합쳐서 나타내는 수도 있다.

예: 열 다섯(15), 륙백 아흔 다섯(695), 오백 쉰 일곱(557), 칠억 삼천 구백 륙십 삼만 오천 팔백 서른 넷(739,635,834).

2) 순서 수사.

순서 수사란 대상의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이다.

ㄱ) 명확한 순서를 나타 내는 것.

○ 첫째, 둘째, 세째, 네째……열째, 스무째, ……아흔째…백째, 천째……

ㄴ) 대략적인 순서를 나타내는 것.

○ 한두째, 두세째, 서너째……여나무째, 마흐나무째, 삼사째, 칠팔째, 이삼십째, 삼사백째, 십여째, 칠십여째……

그러나 순서는 위에서 본 순서 수사 하나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때에 따라서 두 개 이상의 순서 수사가 합쳐서 나타나는 수도 있다.

○ 열 다섯째, 스물 세째, 삼백 일흔 네째, 천 팔백 서른

네째.....

○ 열 대여섯째, 이백 두세째, 삼백 일흔 서너째...

순서 수사에서는 백째 미만은 고유·조선어적 수량 수사가 어근으로 쓰인다.

그러므로 <둘째>, <아흔째>타고는 하나 <이째>, <구십째>타고는 잘 하지 않는다.

제 2 절. 수'자로 써 놓은 수량을 읽는 방법.

백 미만의 부분은 고유 조선 어휘 수사나 한'자 어휘 수사나 모두 쓰일 수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우는 그 어느 하나로만 읽는다.

1) 분수를 읽을 때에는 한'자 어휘 수사로 읽고 쓸 때에는 보통 아라비아 수'자를 리용한다.

례: 삼 분의 이 $\left(\frac{2}{3}\right)$

삼십 팔 분의 육 $\left(\frac{6}{38}\right)$

2) 소수를 읽을 때도 한'자 어휘 수사로 읽고 쓸 때에는 아라비아 수'자를 리용한다.

례: 삼 점 이 (3.2)

사십 오 점 칠 륙 (45.76)

삼 점 일 사 일 오 구 이 륙 오 (3.14159265)

3) 계산의 단위로 되는 명사 앞에서는 경우에 따라 다르게 쓰인다.

<마리> <자루> <컬레> <벌>.....과 같은 고유 조선 어휘 명사 앞에서는 고유 조선 어휘 수사만 쓴다.

례: 소 7 마리→소 일곱 마리(×칠 마리)

양복 2 벌→양복 두 벌(×이 벌)

낫 10 자루→낫 열 자루(×십 자루)

<척, 권, 톤, 킬로그램> 같은 한'자 어휘 명사나 외래 어휘 명사 앞에는 두 가지 수사를 다 쓸 수 있다.

례: 배 2 척 $\left[\begin{array}{l} \text{배 두 척} \\ \text{배 이 척} \end{array} \right.$

석탄 37톤 $\left[\begin{array}{l} \text{석탄 서른 일곱 톤} \\ \text{석탄 삼십 칠 톤} \end{array} \right.$

4) <원, 진>, <년, 월, 일>, <분, 초>, <도, 수>, <%> 등에서는 한'자 어휘 수사만 사용한다.

례: 56 원 74 전—오십 육 원 칠십 사 전

1945년 8월 15일—일천 구백 사십 오년 팔월 십 오일.

12시 35분 15초—열두시 삼십 오분 십 오초

37°8'→삼십 칠 도 팔 분

87 %→팔십 칠 퍼센트.

5) 아라비아 수'자 사이의 부호<~>은 수'자를 읽을 때 <내지>로 읽을 수도 있다.

례: 2~3 칸의 방→둘 내지 세 칸의 방.

70~80만 톤→칠십 내지 팔십만 톤

제 3 절. 수사에서 어음이 약간 바뀌는 현상.

고유 조선 어휘 수사 중에 <하나, 둘, 셋, 넷, 스물, 여나문, 스무나문>들은 뒤에 계산의 단위로 된 명사나 단위 명사가 올 때 그 어음이 약간 바뀐다.

례: 하나→한(한 치의 땅)

둘→두(쌀 두 되)

셋→ $\left\{ \begin{array}{l} \text{세(사과 세 개)} \\ \text{석(석탄 석 톤)} \\ \text{서(콩 서 말)} \end{array} \right.$

넷→ $\left\{ \begin{array}{l} \text{네(학생 네 사람)} \\ \text{넉(석탄 넉 톤)} \\ \text{너(콩 너 되)} \end{array} \right.$

다섯→ $\left\{ \begin{array}{l} \text{다섯(배 다섯 개)} \\ \text{닷(조 닷 말)} \end{array} \right.$

여섯 { 여섯(책 여섯 권)
 엿(벼 엿 말)

스물→수무(흙 스무 짐)

[연습 1] 다음의 아라비아 수'자를 정확히 읽으시오.

ㄱ) 첫소는 3 마리로부터 65 마리로, 돼지는 54 마리로부터 206 마리로, 염소는 45 마리로부터 107 마리로, 토끼는 3 마리로부터 601 마리로, 꿀벌은 21 통으로부터 126 통으로 각각 장성시켰습니다.

ㄴ) 창고가 3 개 있다. 거기에 든 벼는 모두 3734 가마나다. 첫째 창고와 둘째 창고의 벼를 합치면 13356 킬로그램이고 둘째 창고와 세째 창고의 벼를 합하면 126060 킬로그램이다. 매개 창고에는 벼가 각각 몇 가마니 들어 있느냐? (1 가마니를 60 킬로그램으로 계산하라)

ㄷ) 북위 39°2', 동경 125°54'의 지점.

ㄹ) 25~30일 후에는 랭상모를 낸다.

[연습 2] 다음의 아라비아 수'자로 표시된 수량이나 순서를 정확하게 읽으시오. 그리고 읽는 방법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는 각각 모든 방법으로 읽으시오.

0.75, 397, 987387, 73째 380여 째.

[연습 3] 다음의 분수와 소'수를 정확히 읽으시오.

$$\frac{3}{8} \quad \frac{78}{397} \quad \frac{3}{78} \quad 8.39367845$$

[연습 4] 신문 기타의 출판물에서는 만을 넘는 수량을 나타낼 때에는 <억>, <만>을 아라비아 수'자에 섞어 쓰고 있다.

예: 7억 3675만 9335원.

다음 수량을 이례와 같이 적으시오.

13395, 367895, 89320, 4538.

[연습 5] 다음 수사들은 어느 것이 옳습니까?

- | | | | |
|------|------|-------|--------|
| [둘째 | [셋째 | [넷째 | [다섯째 |
| [두째 | [세째 | [네째 | [다섯째 |
| [여덟째 | [스무째 | [서른나문 | [아흔나문 |
| [여덟째 | [스물째 | [서른나문 | [아흐나문, |

제 3 장.

대 명 사.

대명사란 이, 그, 저와 같이 명사나 수사 대신으로 대상이나 수량 및 순서를 지시하는 단어들을 말한다.

례 :

○ 박 동무는 어디에 갔습니까? 그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 어제 배운 과를 세 번 읽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적습니다.

제 1 절. 대명사의 종류.

대명사는 그 뜻에 따라서 인칭 대명사, 지시 대명사, 의문 대명사, 재귀 대명사로 나눈다.

1) 인칭 대명사

인칭 대명사란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이다.

례: 나, 너, 우리, 너희.

인칭 대명사는 인칭, 제칭, 수에 따라 다르다.

가) 인칭.

○ 1인칭(이야기하는 사람 측을 가리키는 것): 저(저희), 나(우리).

○ 2인칭(이야기 듣는 사람 측을 가리키는 것): 당신, 자네, 그대, 너(너희)

※ 인칭 대명사 <저, 나, 너>는 주어나 규정어로 쓰일 때 <제, 내, 네>로 변한다.

례: 제가 가겠습니다.

내 여기서 기다리겠네.

이게 네 것이다.

L) 제칭.

인칭 대명사는 이야기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듣는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 웃 사람에게 말할 때: 저(저희), 당신.
- 대등한 사람에게 말할 때: 나(우리) 그대.
- 아래' 사람에게 말할 때: 너(너희)

※ 여기서 <그대>는 편지 또는 문예 작품과 같은 글에서만 쓰이고 대화에서는 <그대>를 쓰지 않고 흔히 <동무>라는 명사를 쓰게 된다.

예: 그대의 건강과 행복을 축원하오(편지)

그대들은 조국의 해방자(시)

그대가 가겠소→동무가 가겠소(대화)

또한 <당신>은 공식적인 경우에만 존대를 나타내는바 대화에서는 조진어의 특성에 따라 웃사람에게는 <당신>을 쓰지 않고 <아버지>, <선생님>, <○○동지> 등 명사를 쓰는 것이 보통이다.

ㄷ) 복수.

일부 인칭 대명사는 복수를 나타내는 단어를 따로 가짐으로써 단수와 복수가 구별된다.

예: 저, 나, 너, 당신, 그대(단수), 저희, 우리, 너희(복수)
그러나 기라의 인칭 대명사는 <들>을 덧붙여서 나타낸다.

예: 당신들, 그대들.

※ 단어 자체로써 복수를 나타내는 단어들도 다시 <들>을 더 붙일 수 있다.

예: 저희들(저희), 우리들(우리), 너희들(너희).

이상을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인 칭	제칭		웃사람에게	대등한 사람에게	아래' 사람 에게
	수				
1 인칭	단수		저	나	나
	복수		저희 저희들	우리 우리들	우리 우리들
2 인칭	단수		[당신]	자네 그대	너
	복수		[당신들]	자네들 그대들	너희 너희들

※ 조선어의 인칭 대명사에는 3 인칭을 나타내는 특별한 어가 없고 일반 사물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를 같이 쓴다.

2) 지시 대명사

지시 대명사란 사람, 사물, 장소, 방향 등을 가리키는 대명사이다.

례: 이, 그, 저, 여기, 거기, 이리, 그리.

지시 대명사는 가리키는 대상과 거리 관계에 따라 다르게 쓰인다.

ㄱ) 가리키는 대상.

○ 사람(3 인칭)을 가리킬 때: 그

○ 일반적인 사물을 가리킬 때: 이, 그, 저.

○ 장소를 가리킬 때: 여기, 거기, 저기.

○ 방향을 가리킬 때: 이리, 그리, 저리.

ㄴ) 가리키는 거리.

○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거리상 가까운 경우: 이, 여기, 이리.

○ 이야기 듣는 사람에게 거리상 가까운 경우: 그, 거기, 그리.

○ 이야기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에게 거리상 먼 경우: 저, 저기, 저리.

※ 지시 대명사 <그>가 사람을 가리킬 때(3 인칭)는 거리상 관계 없이 <그>를 쓴다.

※ 지시 대명사 <이>, <그>는 글에서 방금 화제에 오른 것을 지시할 때 자주 쓰인다.

례: 조국의 통일—이는 더 지체할 수 없는 절박한 문제다.

8.15 해방—그 날은 드디어 오고야 말았다.

지시 대명사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거리 대상	이야기 하 는 사람에 게 가까이	이야기 듣는 사람 에게 가까이	이야기하는 사람 이나 듣는 사람에 게 멀리
사물	이	그	저
장소	여기	저기	저기
방향	이리	그리	저리

지시 대명사 <이, 그, 저>는 흔히 불완전 명사 <ㅁ, 쪽, 곳, 편, 문, 것...> 등과 결합되어 사람, 장소, 방향, 시간, 물건 등을 나타낸다.

거리 대상	이야기하는 사람 에게 가까이	이야기 듣는 사 람에게 가까이	이야기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에게 멀리
사람	이 사람, 이분, 이이	그 사람, 그분, 그이	저 사람, 저분, 저이
장소	이곳, 여기(예)	그곳, 거기(계)	저곳, 저기(저)
방향	이쪽, 이리, 이편	그쪽, 그리, 그편	저쪽, 저리, 저편
시간	이 때	그때	저때
물건	이것	그것	저것

※ 사물을 가리키는 <이것, 그것, 저것>은 본래 <이, 그, 저>와 불완전 명사 <것>이 합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완전히 굳어졌으므로 하나의 대명사로 본다.

3) 의문 대명사

의문 대명사란 어떤 인물이나 사물에 대하여 의문을 나타내는 대명사이다.

예: 누가, 무엇, 얼마, 몇, 어디, 아무.

의문 대명사는 가리키는 대상에 따라 다르게 쓰인다.

인물: 누구 사물: 무엇 수량: 몇, 얼마 장소: 어디

시간: 언제 일반적인 것: 어느, 웬, 무슨, 아무.

의문 대명사는 경우에 따라 미정의 뜻으로도 쓰인다.

예: 무엇을 찾고 있니?

이 경우에 <무엇을> 강조하면서 발음하면 의문의 뜻이 되지

만 <찾고 있니?>를 강조하여 발음하면 미정의 뜻으로 된다. 따라서 이 때 억양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만 <아무>만은 억양에 관계 없이 언제나 의문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 례: (저기 누가 옵니까?(의문)
 (저기 누가 옵니다.(미정)
 (여기 무엇이 있습니까?(의문)
 (여기 무엇이 있습니다.(미정)
 (어디 가오?(의문)
 (어디 가오.(미정)

의문 대명사를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대상	의문대명사	대명사가 사용되는 데	
		미정의 뜻으로	의문의 뜻으로
인물	누구(누) 아무	• 누구(누)든지 보아라 아무나 보아라	누구(누)냐? ×
사물	무엇 어느(것) 아무(것) 무슨 웬	무엇이나 좋다 어느 것이나 좋다 아무 것이나 좋다 무슨 일이나 좋다 ×	무엇이냐? 어느 것이냐? ×
수량	얼마 몇	얼마든지 있다 몇이든지 좋다	얼마(이)냐? 몇이냐?
장소	어디	어디든지 간다	어디냐?
시간	언제	언제든지 있다	언제냐?

※ 의문 대명사 중 <어느, 웬, 무슨>에는 격토가 붙지 않으며 <누구>는 주격과 축격에서 <누> <누>로 바뀐다.

4) 재귀 대명사.

재귀 대명사란 방금 화제에 오른 대상을 다시 돌이켜 가리키는 대명사다.

례 : 저(저희), 자기, 자신, 자체,

○ 우리는 자체의 힘으로 이 과업을 완성하여야 한다.

지구는 자체가 돌면서 또 태양의 주위를 돈다.

재귀 대명사에는 단수와 복수의 구분에 따라, 또는 계칭의 구분에 따라 달리 쓰이는 것도 있다(〈아버지께서는 제 일을 끝내고 돌아 오셨다〉가 불가능함).

이 밖에 인칭이나(대상이 인물인 경우) 거리(대상이 사물인 경우) 관계에 따르는 구별은 없다.

재귀 대명사를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웃사람	대등한 사람	아래'사람	계칭 관계의 고려 없는 경우
인물	(단수)	[당신]		저	
	(복수)	[당신들]		(저희) (저희들)	
	(단수)	자기, 자신, (자체)			
	(복수)	(자기들), (자신들), (자체들)			
사물	(단수)	자체(저)			
	(복수)	(자체들)			

[연습 1] 다음의 문장에서 대명사를 가려내고 그의 종류를 말해 보시오.

ㄱ) 나의 대답을 듣고 있던 그 분은 이제는 새 세상을 만났으니 일을 열성껏 해서 농사를 잘 지으면 잘 살게 된다고 하며 자기 집 살림 걱정하듯이 앞으로 살아 갈 방도에 대해서까지 차근차근 알려 주는 것이었다.

ㄴ) 우리가 어떤 군대란 것을 알게 된 그는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어쩔 바를 몰라 당황해 하면서 지금까지 품고 있던 차기의 심정을 솔직하게 털어 놓았다.

ㄷ) 이렇듯 간고한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도 동지의 부름에 진정으로 응하던 그들의 그 눈'동자들—거기에 바로 혁명적 탁관주의와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확신하는 혁명하는 사람의 높은 품격과 뜨거운 진념이 있었습니다.

[연습 2] 다음의 빈 자리에 적당한 1인칭 대명사를 넣으시오

ㄱ) 선생님, 이 문제를 □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ㄴ) □는 □에게 솔직히 충고한다.

ㄷ) 여보세요? □□냐고요? □는 칠수애요—전화가 좀 번
데요.

[연습 3] 다음의 문장에 나오는 대명사가 미정의 뜻인 경우와 의문의
뜻인 경우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억양을 붙여서 읽으시오

ㄱ) 복도에 누가 왔니?

ㄴ) 어디 가십니까?

ㄷ) 언제 또 오시겠어요?

ㄹ) 얼마나 큼니까?

[연습 4] 다음의 재귀 대명사는 무엇을 다시 돌이켜 가리키고 있는가
를 말하십시오.

ㄱ) 학생들이 선생님께 자기의 학습장을 모두 보여 드렸다.

ㄴ) 조선 인민은 자신의 힘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다.

ㄷ) 우리는 우선 기계 자체를 잘 로해하는 데서 출발하여야
하겠습니다.

[연습 5] 다음 글에서 밑줄을 그은 재귀 대명사를 다른 대명사로 바
꾸어 보시오.

천리마 작업반장인 아저씨는 제 경험담을 여러 사람들 앞에
서 들려 주고 있습니다.

제 4 장.

체언에 붙는 토.

명사, 수사, 대명사를 합쳐서 체언이라 한다.

조선어의 명사, 수사, 대명사에는 공통적으로 같은 토가 붙
는다.

이와 같이 체언에 공통적으로 붙는 토에는 격토, 도움토, 복수
토의 세 가지가 있다.

제 1 절. 격 토.

체언에 속하는 품사(명사, 수사, 대명사)들은 문장 속에서 여러 가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그에 적합한 토를 가진다.

예: 우리 나라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제도는 청산되었다.

다섯의 다섯 배는 다섯에 다섯을 넣은 것보다 얼마나 더 큼니까?

나와 함께 공부하는 동무가 나에게 나의 형님께에서 오는 편지를 진하였다.

위의 글에서 <사람>, <다섯>, <나>와 같은 단어들은 문장에서 차지하는 자기의 자리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다섯의>, <다섯>, <다섯에>, <다섯을>, <나와>, <나에게>, <나의>들로 토를 바꾸었다.

이렇게 체언에 속하는 품사들이 문장 속에서 다른 단어에 대하여 가지는 관계를 나타내는 형태를 **격**이라고 한다.

조선어의 격은 다음과 같은 토들로 이루어지고 있다.

1) 주격: 가, 이.

ㄱ) 가(어간 끝에 받침이 없을 경우)

- 비가 온다.(명사)
- 셋에서 하나가 남는다.(수사)
- 우리가 모범이 되어야 한다.(대명사)

ㄴ) 이(어간 끝에 받침이 있을 경우)

- 눈이 내린다.(명사)
- 셋에서 둘이 남는다.(수사)
- 당위원장 동지에게는 당진이 엿주어 보세요.(대명사)

2) 속격: 의.

- 세계 인민들의 단결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명사)
- 둘의 두 배는 넷이다.(수사)

○ 우리의 교실은 깨끗하다.(대명사)

3) 대격: 를, 을.

ㄱ) 을(어간 끝에 받침이 있을 경우)

○ 우리는 조국을 사랑한다.(명사)

○ 하나에다 셋을 더한다.(수사)

○ 당 위원장 동지께서 방금 당진을 부르시었지요.(대명사)

ㄴ) 를(어간 끝에 받침이 없는 경우)

○ 조선 인민은 천리마를 타고 내달린다.(명사)

○ 여섯에다 하나를 더하여 보시오.(수사)

○ 선생님이 우리를 만나시잡니다.(대명사)

4) 여격: 에, 에게

ㄱ) 에(비활동체 명사나 지시 대명사, 수사에 붙음).

○ 꽃분이는 꽃에 물을 주었다.(명사)

○ 하나에 물을 더 넣어 보시오.(수사)

○ 물을 여기에 넣으시오.(대명사)

ㄴ) 에게(활동체 명사나 인칭 대명사에 붙음)

○ 나라에서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내준다.(명사)

○ 형님께게서 너에게 편지를 보냈다.(대명사)

5) 위격: 에서, 에게서.

ㄱ) 에서(비활동체 명사나 지시 대명사, 수사에 붙음)

○ 나는 도서관에서 신문을 보았다.(명사)

○ 정거장은 여기에서 얼마나 먼니까?(대명사)

○ 스물에서 다섯을 빼면 얼마입니까?(수사)

ㄴ) 에게서(활동체 명사나 인칭 대명사에 붙음)

○ 오늘 형님께게서 너에게 편지가 왔더라.(명사)

○ 그 사건은 나에게서 빌려 간 것입니다.(대명사)

6) 조격: 로, 으로.

ㄱ) 로(모음 또는 <ㄹ>로 끝난 어간에 붙음)

○ 이것은 기준기로 들어 올릴 수 있다.(명사)

○ 세계 인민이 하나로 뭉친 힘을 그 누가 당하랴!(수사)

○ 래일 모이는 장소는 여기로 합시다.(대명사)

- ㄴ) 으로(ㄹ 이외의 자음으로 끝난 어간에 붙음)
 ○ 가슴으로 적의 화구를 막았다.(명사)
 ○ 열을 다섯으로 재하랴.(수사)
 ○ 당이 베풀어 준 오늘의 행복을 무엇으로 보답하겠

냐!(대명사)

7) 구격: 외, 파.

- ㄱ) 외(어간에 받침이 없는 경우)
 ○ 선생님께서는 옥희외 담화하셨다.(명사)
 ○ 손님은 우리외 함께 떠났다.(대명사)
 ○ 사와 넷은 같은 말입니다.(수사)
 ㄴ) 파(어간에 받침이 있는 경우)
 ○ 암록강파 두만강은 조선의 북방을 흐르고 있다.(명사)
 ○ 이것파 이것을 합치면 모두 얼마입니까?(대명사)
 ○ 열에서 넷파 셋을 탈면 얼마 남습니까?(수사)

8) 호격: 아, 아, 여, 이여.

- ㄱ) 아, 여(어간 끝에 받침이 없을 경우)
 ○ 동수아 부디 잘 가거랴.(명사)
 ○ 조국의 바다를 지키는 그대여!(대명사)
 ㄴ) 아, 이여(어간 끝에 받침이 있을 경우)
 ○ 용남아! 잘 있었니?

※ 수사에는 호격토가 붙지 않는다.

※ 우에서 말한 격토들은 때에 따라 빠질 수 있다.

- 산 좋고 물 맑은 조선(명사)
 ○ 내 가는데 너도 가겠니?(대명사)
 ○ 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는다.(수사)

이제 우에서 말한 격 체계를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격	어간의 끝에 받침이 없는 경우	어간의 끝에 받침이 있는 경우	비	고
주격	-가	-이		
속격	-의	-의		
대격	-를	-을		

격	어간의 끝에 받침이 없는 경우	어간의 끝에 받침이 있는 경우	비 고
여격	-에 -에게	-에 -에게	비활동체 명사 지시 대명사 및 수사 활동체 명사 인칭 대명사
위격	-에서 -에게서	-에서 -에게서	비활동체 명사 지시 대명사 및 수사 활동체 명사 인칭 대명사
조격	-로	-으로	어간의 끝이 <ㄹ>인 경우는 <로>가 옳
구격	-와	-과	
호격	-야 -여	-아 -이여	

[연습 1] 다음의 문장에서 격로를 찾아 내고 무슨 격로인가 말하시오.

ㄱ) 찌그러져 가는 초가집들 대신에 현대적인 로동자 거리가 형성되고 여기에 공업 대학과 두 개의 고등 기술 학교가 생겼다.

ㄴ) 지금은 점점해 고성기 소리 왕왕하고 소가 울타 가다가 가파로운 비탈'길에 코'잔등을 부딪혔다는 사력산 고원에도 트라포르가 밭을 갈아 번지고 있어 농장원들은 흥겨이 살고 있지만 18년 전까지만 해도 이 곳 사람들은 눈물 없이는 그대르 들을 수 없는 처참한 생활을 하여 왔다.

ㄷ) 열아홉에서 열다섯을 덜고 여덟을 더한 것과 스물에서 열여덟을 덜고 열다섯을 넣은 것과 어느 것이 많습니까?

[연습 2] 다음 문장의 빈 자리에 적당한 격로를 넣으시오

ㄱ) 바람□ 몹시 불더니 이제까지의 가랑비는 폭풍우□ 변하였다.

ㄴ) 아버지께서는 나□ 나□ 동생에게 몹소 고통스럽던 지난 생활□ 말씀하셨다.

ㄷ) 열□ 몇□ 덜면 다섯□ 됩니까?

[연습 3] 다음의 문장에서 격로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시오

ㄱ) 우리 운동장에서 우등'불 모임이 있다.

ㄴ) 우리 집에서 손님이 찾아 왔습니다.

ㄷ) 셋에게서 둘을 덜면 몇입니까?

[연습 4] 다음 문장의 뜻을 크게 바꾸지 않으면서 밑줄을 그은 것을 다른 격으로 바꾸어 말하시오.

ㄱ) 모래로 밑바닥을 깔다.

ㄴ) 우리 학교에서 우승하였다.

ㄷ) 모란봉을 산보한다.

[연습 5] 다음의 격표를 가지고 단문을 지어 보시오.

에게서, 으로부터, 와, 의, 에.

제 2 절. 도움토.

채언에는 격표 이외에 **도움토**도 붙는다.

례 :

○ 벽에다가 그림을 그려 붙였다.

○ 동생은 나보다 키가 큼니다.

○ 하늘에는 별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이 **도움토**란 단어들의 문장론적 기능을 여러 가지로 도와 주는 토다.

조언어에는 도움토가 아주 발달되어 있다. 그리하여 그 수효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의미도 풍부하므로 이것을 잘 가리어 쓰는 것은 매우 큰 실천적 의의를 가진다.

도움토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종류로 나눈다.

1) 격표의 의미를 돕는 것.

○ 그는 19 세의 청년으로서 가슴으로써 화구를 막았다.

여기서 <서>나 <써>는 **조격표 <으로>**와 함께 찍여 <자격>과 <수단>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가를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있다. 이런 도움토는 다만 격표가 가지는 의미를 더 선명하게 돕는 역할 밖에 하지 않으므로 이것이 없더라도 기본적인 의미는 통한다.

이와 같은 의미의 도움토들은 항상 격표와 함께 쓰인다.

△ **다, 다가.**

○ 집에**다** 만년필을 두고 왔습니다.

○ 다섯에**다** 넷을 더하면 아홉입니다.

○ 거기에다가 초상화를 걸겠습니다.

△ 서, 씨.

○ 학생으로서 자기의 말은 바를 다한다.(자격)

○ 마흔 둘을 여섯으로씨 제하면 일곱입니다.(수단)

○ 그 번역은 저로서 할 수 없습니다.(자격)

2) 문장에서 체언이 차지하는 자리를 밝혀 주는 것.

○ 김 동무더러 물어 보시오.

비교: 김 동무에게 물어 보시오

여기서 도움토 <더러>는 문장에서 여격토 <에게>와 같은 기능으로 <물어 보>는 대상의 자리(간접 보어)를 밝혀 주고 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에게>와 같은 기능을 놓지 못하므로 사용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예를 들면 <그 동무에게 가 보시오>와 같은 데서는 이것을 <더러>로 바꾸어 <그 동무더러 가 보시오>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부류에 속하는 도움토들은 그 자리에 올 수 있는 격토를 생각하여 대비해 보면 그 의미를 쉽게 알 수 있다.

△ 더러, 한테, 께.

○ 학생더러 물어 보시오.

○ 그한테 물어 보시오.

○ 선생님께 여쭙워 보시오.

※ <더러>, <한테>, <께>는 여격토 <에게> 대신으로 쓰이면서 주로 활동체 명사나 인칭 대명사에 사용된다. 특히 <께>는 주로 인물에 대하여 쓰이면서 존경하는 의미가 있다.

△ <께서>

○ 김 일성 수상님께서 친히 우리 학교에 찾아 오셨다.

<께서>는 주어를 나타낼 때의 주격토 <가>, <이> 대신에 쓸 수 있다. 그러나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 명사로 표현된 인물에게 존경을 표시하는 뜻이 있다.

△ <랑(이랑)>, <하고>

○ 형님이랑 같이 왔구나.

○ 형님하고 같이 왔구나.

○ 내랑, 네랑 모두 함께 가 보자.

○ 열하고 둘하고 합친 데다 다섯을 몇면 얼마입니까?

<랑(이랑)>, <하고>는 구격토<와> <과> 대신에 쓰일 수 있다.

△ 처럼

- 그 애는 형님처럼 그림을 잘 그린다.
- 이 세상에서 우리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다.

<처럼>은 한 대상을 다른 대상과 대 보아 비슷한 경우에 잘 쓰인다.

△ 보다

- 금년에는 작년보다 따뜻한 것 같다.
- 저보다 김 동무가 더 잘 압니다.
- 첫 번째보다 두 번째 아이가 더 잘 달린다.

<보다>는 한 대상을 다른 대상과 대 보아 그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에 잘 쓰인다.

3) 말하는 사람이 넘두에 두고 있는 다른 사물에 대한 비교 관계를 나타내는 것.

나도 간다.(포함)

나만 간다.(제한)

나는 간다.(특별한 지정)

나마저 간다.(깡그리 포함)

나부터 간다.(갈라낸 시작)

나까지 간다.(갈라낸 종결)

나조차 간다.(못마땅하게 생각하는 포함)

위의 문장들에서 <도>, <만>, <는>, <마저>, <부터>, <까지>, <조차>와 같은 토들은 <내가 간다>는 뜻을 가지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가>는 행동을 하는 <나> 이외의 다른 대상들을 넘두에 두면서 이들과 <나>와의 관계를 비교한 것이다. 이 때 말하는 사람이 넘두에 두고 비교하는 대상은 흔히 장면과 앞 뒤 문장에(문맥) 의존하게 된다. 레하면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누가 가겠소?>라고 물을 때 <나부터 가겠소>라고는 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나까지 가겠소>나 <나도 가겠소>라고 대답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 부류에 속하는 도움토들은 문장에서 일정한 위치를 결정짓지 못한다.

형은 교원이고 동생은 학생이다.(주어)

말은 하나 글은 못 쓴다.(보어)

책도 읽고 신문도 읽는다.(보어)
학교에도 가고 공장에도 간다.(상황어)
나도 가고 그도 간다.(주어)

△ <나>, <이나>

- 오늘 저녁이나 매일 아침이나 한 번 오십시오.(선택함)
- 칠필이 없으면 연필이나 주시오.(양보함)
- 12시나 됐는데 어딜 가(강조함)

△ <나마>, (이나마)

- 연필이나마 주시오.(양보함)
- 그대나마 아시겠는지 모르겠소.(양보함)

△ 는(은)

- 물은 인간 생활에서 아주 필요하다.(특별한 지정)
- 너는 가나 나는 갈 수 없다.(대조함)
- 여기서 다섯은 털 수 있으나 열은 털 수 없다.(대조함)

△ <도>

- 회화책도 가져 오시오.(포함시킴)
- 달도 참 밝구나!(강조함)
- 그는 배운 단어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

(강조함)

△ 라도(이라도)

- 연필이라도 가지고 오지.(양보함)
- 그라도 함께 갔으면 좋겠다.(양보함)

△ 마다

- 점점마다 탐, 꿩지들을 거른다.(망라시킴)
- 날마다 <강독> 시간이 있습니다.(망라시킴)

△ 마저

- 날씨가 추운데 눈마저 옵니다.(포함시킴)
- 형님이 가는데 너마저 가겠니?(포함시킴)
- 여기서 하나마저 털면 남는 것이 없다.(포함시킴)

△ <만>

- 사람은 없고 자동차만 있었다(제한하여 뱀)
- 그 책만 가져 갔다 봐라.(강조하여 뱀)
- 나만 남겠으니 모두 떠나시오.(제한하여 뱀)

○ 열에서 여섯을 뺀 넷만 남는다. (강조하여 냄)

△ <부터>

○ 책부터 사읍시다. (출발점을 갈라냄)

○ 오늘 오락회에서는 우리부터 노래를 시작합시다. (출발점을 갈라냄)

○ 다섯부터 열까지 세어 보시오. (출발점)

△ 까지

○ 집까지 몇 리나 됩니까? (종결점을 갈라냄)

○ 비까지 오는 모양이오. (포함시킴)

○ 노래'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 옵니다. (포함시킴)

△ 조차

○ 바람조차 싸늘하다. (포함시킴)

○ 그가 가는데 너조차 가겠니? (포함시킴)

△ 커널

○ 달커널 별도 보이지 않는다. (우선 짓혀 놓고)

○ 여기서 들커널 하나도 덜 수 없습니다. (우선 짓혀 놓고)

△ 서겐.

○ 어머니서겐 눈김을 매고 있었다. (포함시킴)

△ 야(이야)

○ 오늘에야 처음으로 읽어 봅니다. (강조함)

○ 너야 무슨 걱정 있겠니 (강조함).

△ 야말로(이야말로)

○ 학습이야말로 혁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첫째 가는 혁명 과업입니다. (강조함)

이제 이 부류에 속하는 토들의 의미를 일람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토	외미	포 합	제 한	구 획	대 조	특 정	강 조	양 보	망 라	조 건	고 사	선 택	추 산
나(이나)							○	○		○		○	○
나마(이나마)	○							○					
는(은)					○	○							
도	○						○						
라도(이라도)								○					

로	의미	포함	제한	구획	대조	특정	강조	양보	망라	선주 택안
마다									○	○
마저		○								
만			○							
부턴				○출발						
서깁		○								
조차		○								○
커녕				○종결						
까지		○					○			
야(이야)					○		○		○	
야말로(이야 말로)										

※ 어떤 도움토들은 (주르 제 3 부류) 체언 이외에 용언(주로 접속로 뒤에)이나 부사에도 붙는다.

례 : 읽어는 보았지만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동사)

떨어도 보이고 가까워도 보인다. (형용사)

빨리만 가면 되오. (부사)

[련습 1] 다음 글에서 도움토를 가려 내시오. 그리고 그 종류를 말해 보시오.

ㄱ) 김 홍도는 밥만 먹고 나면 아버지가 쓰다 버린 종이나 땅 바닥에다 그림을 그렸고 잡자리에 누워서도 허공에다 그림을 그려 보곤 하였다.

ㄴ) 그는 온 나라를 세 번이나 돌아 다녔고 백두산에만도 여덟 번이나 오르내리었다.

[련습 2] <서>가 도와 주는 조격의 의미와 <써>가 도와 주는 조격의 의미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폐문을 들어 설명하시오.)

[련습 3] <더러>와 <한테>는 그 의미가 어떤 경우에 같으며 어떤 경우에 다른지? 폐문을 들어 설명해 보시오.

[련습 4] 다음의 □ 안에 알맞는 도움토를 넣으시오.

때로 □ 눈보라 치는 벌판을 헤매기 □ 하였도 또 어떤 때 □ 비 내리는 산'골짜기에 병들어 누워서 신음한 일 □ 있었다……그러나 그는 좀체로 처음 먹은 마음을 굶피지 않은 데서 끝끝내

<대동여지도>를 만들어 내었다.

[연습 5] 다음의 도움토를 가지고 단문을 지으시오.

마저, 커녕, 조차, 썬, 한테, 처럼.

제 3 절. 복수 토.

체언에는 복수를 나타내는 토도 붙는다.

예: 학생들이 모였다.

그들은 일찌기 모였다.

우에서 <—들>은 <학생>이나 <그>가 둘 이상임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어떤 대상이 둘 이상임을 나타내는 토를 복수토라 한다.

조선어의 복수토로서는 <—들>이 있다.

복수토는 명사나 대명사에는 붙지만 수사에는 붙지 않는다.

예: 여섯—× 여섯들, 네째—× 네째들.

조선어에서는 단수를 나타내는 특별한 토가 없다. 그리고 복수토 된 대명사에도 다시 <—들>을 붙여 복수임을 강조할 수 있다.

예: 저희—저희들, 우리—우리들.

조선어에서는 그 대상이 비록 복수라 하더라도 문법적으로는 <—들>을 붙이지 않을 수 있다.

예: 서점에서 책을 판다.

특히 사람이나 동물인 경우에는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와 함께 쓰일 때는 <—들>을 붙이지 않는다.

예: 다섯 학생, 패지 네 마리.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선어에서 토 <—들>이 붙은 단어는 복수임이 틀림 없으나 토 <—들>이 붙지 않는 단어는 반드시 단수라고 말할 수 없다.

복수토 <—들>은 사람이나 동물을 나타내는 명사나 대명사에 붙었을 때는 항상 그 단어가 복수임을 규정하여 주고 있으나 다른 대상을 나타내는 단어에 붙었을 때는 그 단어가 복수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문장에 나타나지 않는 대상이 복수임을 나타내는 일이다.

례: [동무] 수고를 하십니다.

↑ _____ |

여기서 <수고들>은 <수고>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수고하는 대상인 <동무>가 복수임을 말한다.

[연습 1] 다음의 문장에서 체언의 복수 형태를 가리여 내시오

ㄱ) 원수님께서서는 부모 없는 너희들 일이 근심되어 오쩨도 못 하셨단다.

그리고 아저씨는 방안과 부엌에 있는 물건들을 전부 적었습니다.

ㄴ) 달구지 한 대만 보아도 어린이들이 구경거리나 생김듯이 때를 지어 떨쳐 나섰다면 이 마을 사람들이 이제는 원목들이며 협동 농장 생산물들을 실어 나르느라고 빈잡해진 교통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것이다.

ㄷ) 아직 채 가지지 않은 회멸건 별빛 아래 거밋거밋 멀고 가까운 섬들을 뒤에 두르고 인천 바다는 새벽 대기 속에 마치 '바다들을 다시는 피에 주린 양키들의 소굴처럼' 생각되었다.

[연습 2] 다음 문장에서 복수로써 나타내어야 할 단어가 있으면 적당히 고쳐 보시오

ㄱ) 금년에 밭과 논을 더 질적으로 갈자고 우리 농기계 작업소에서도 종업원 총회를 가졌습니다. 매년에는 이 품질을 더 쌓자고 말합니다.

ㄴ) 가뜰하게 비웃을 차려 입은 소년들이 행진해 간다. 거울 같이 비치는 아스팔트……움직일 때마다 어울리지는 색과 색의 조화……꽃 같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다.

[연습 3] 다음의 문장에서 복수로써 찾아 내고 그것이 무엇에 대한 복수인가 말하십시오.

ㄱ) 아니, 경사스런 날에 눈물은 왜들 흘러시우?

ㄴ) 여러분, 지금 선전실 마당에서 농악이 벌어졌습니다. 모두들 오셔서 춤들을 추시래요.

ㄷ) 대훈이도 정희도 눈물은 다 기쁨에 서려 번쩍이었다.

제 4 절. 체언의 용언형.

체언에 속하는 품사들은 용언과 같은 형태로도 쓰일 수 있다.

례: 그는 류학생입니다.

그것은 다섯입니다.

모이는 곳은 여기입니다.

여기서 <류학생입니다>, <다섯입니다>, <여기입니다>는 체언이 용언과 같은 형태로 바뀌어 술어로 된 것이다.

조선어에서 체언이 용언과 같은 기능을 놀자면 보통 체언 어간에 <이>를 붙인다. 이처럼 체언이 다시 용언의 성격을 가지기 위하여 체언 어간에 <이>를 붙이는 형태를 **체언의 용언형**이라 한다. 체언의 용언형의 <이>는 체언 어간에 받침이 없을 때에는 주는 수도 있다.

례: 군대	+이+	—다
하나		—습니까?
우리		—고
		—며
		—던

체언에 <이>가 붙으면 체언이 용언의 자격을 가지게 되므로 동사나 형용사와 마찬가지로 용언이 가지는 일체 토를 붙일 수 있다.

례:

○ 그는 류학생+이+

—다
—므로 조선 말을 잘 못합니다.
—니 까닭에 말부러 배웁니다.

○ 이것은 다섯+이+

—다
—므로 하나가 모자랍니다.
—니 까닭에 하나 더 주시오.

○ 나의 희망이 이것+이+

—다
—므로 들어 주십시오.
—니 까닭에 마치 잘 띄웠소.

[연습 1] 다음의 문장에서 체언의 용언형을 가리켜 내시오.

ㄱ) 공산주의 교양—이것은 근로자들 속에 남아 있는 낡은 사상을 청산하고 그들을 공산주의 사상과 도덕으로 무장시켜 새 형의 인간으로 개조하는 역사적 과업입니다.

ㄴ) 공산주의 교양에서 기본은 계급 교양이다.

ㄷ) 옥류교의 길이는 68 메터이고 너비는 28.5 메터이다.

[연습 2] 다음의 문장에서 체언의 용언형에 알맞는 토를 넣어 보시오.

ㄱ) 당선들의 원수는 바로 미 제국주의자들□며 남조선에 대한 재침을 노리는 일본 군국주의자들□며 그들의 주구인 박 정희도당□다.

ㄴ) 우리가 아직 어린 소년□였던 시기에는 생각도 하지 못했던 일□다.

[연습 3] 다음의 문장에서 체언의 용언형을 찾아 내고 그것을 정확히 받음해 보시오.

ㄱ) 버루에 놓인 것은 먹이오.

어머니는 아이에게 젖을 먹이오.

ㄴ) 그 날 밤 찾아 간 것은

내다. 가람에서 책들을 죄다 내다.

ㄷ) 이것은 우리 나라 지방 공업에서 생산해 낸 띠다.

나는 그 띠를 사 띠다.

그 곳 인민들의 생활은 날로 활기를 띠다.

제 5 절. 체언에 붙는 토들의 어울림.

체언에 붙는 토들은 위에서 본 것처럼 한 단어에 하나씩 어울릴 수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개 이상의 토들이 함께 어울릴 수도 있다(복수로나 제 1 부류의 도움토는 제외).

이 때 이것들의 어울리는 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ㄱ) 격토+격토: 예서의, 예서가,

ㄴ) 격토+도움토: 예서부터, 만으로,

ㄷ) 도움토+도움토: 조차도, 한레나마.

1) 격토의 어울림.

격토들은 서로 어울릴 수 있다.

예: 내가 그 노래를 들은 것은 교실예서가 아니라 극장에서였다.

여기서 <예서가>는 <예서>와 <가>가 어울린 형태이다.

이처럼 격토들이 어울릴 때 모든 격토가 다 어울리는 것이 아니며 어울리는 순서도 자유로운 것이 아니다.

이제 그 어울리는 형식을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뒤에 오는 앞에 오는	가(이)	의	를(을)	에	에게	에서	로(으로)	와(과)	야(아)	여(이여)
가(이)										
의										
를(을)										
에	에가	에의	에를				에로	에와		
에게	에게가	에게의	에게를				에게로	에게와		
에서	에서가	에서의	에서를				에서로	에서와		
로(으로)	로가	로의	로를					로와		
와(과)	와가	와의	와를							
야(아)										

※ 특수하게 <에게로의>, <에로의>와 같이 격토가 셋이 어울린 것도 있다.

2) 격토와 도움토의 어울림.

격토는 격토끼리만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도움토와도 어울린다. 이 때 어울리는 순서는 일정하지 않다.

예: 학습은 강의만으론 해결될 수 없다.

학습은 강의로만 해결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모든 격토와 모든 도움토 사이에서 다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이들이 어울릴 수 있는 가능성과 순서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이 정형을 일람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제 1 부류의 도움토는 특수하므로 제외한다).

격 도움로	주격	속격	대격	여격		위격	조격	구격	호격
	가(이)	외	를(을)	에	에게	에서	로 (으로)	와(과)	야 (아)
더러	더러가	더러외						더러와	
깨	깨가	깨외	깨를				깨로		
한테	한테가	한테외	한테를				한테로	한테와	
께서	께서가	께서외						께서와	
랑(이랑)	랑이	랑외	랑을	에랑	에게랑	에서랑	로랑		
하고	하고가	하고외	하고를		에게하 고	에서하 고			
처럼				에처럼	에게처 럼	에서처 럼			
보다		보다외		에보다	에게보 다	에서보 다	로보다		
나(이나)				에나	에게나	에서나	로나	와나	
나마		나마외	나마를	에나마	에게나 마	에서나 마	로나마		
는(은)				에는	에게는	에서는	로는	와는	
도				에도	에게도	에서도	로도	와도	
라도 (이라도)				에라도	에게라 도	에서라 도	로라도	와라도	
마다	마다가	마다외	마다를	마다에	마다에 게	마다에 서			
마저		마저외			에게마 저	에서마 저	로마저	와마저	
만	만이	만외	만을	에만	에게만	에서만	로만	와만	
부터	부터가	부터외	부터를	에부터	에게부 터	에서부 터	로부터		
서편		서편외							
조차	조차가	조차외	조차를	에조차	에게조 차	에서조 차	로조차	와조차	
커녕				에커녕	에게커 녕	에서커 녕	로커녕	와커녕	

도움 로	격	주격	속격	대격	여격		위격	조격	구격	호격
		가(이)	의	를(을)	에	에게	에서	로 (으로)	와(과)	야 (아)
까지		까지가	까지의	까지를	에까지	에게까지	에서까지	로까지	까지와	
야					에야	에게야	에서야	로야		
야말로					에야 말로	에게야 말로	에서야 말로	로야 말로		

3) 도움로 끼리의 어울림.

도움로는 한 체언 안에서 두개 이상 어울릴 수도 있다.

예: 비는 커녕 구름 한점 없는 날이었다.

말보다도 실제 행동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 때 도움로끼리 서로 어울리는 것도 모든 경우에 모두 되는 것이 아니며 이들의 합치는 순서에도 일정한 제한이 있다.

이제 <만>, <으로>, <는>의 세 개 토를 합쳐 보기로 하자.

예: ○ 학습만으로는 부족하다.

○ 학습으로만은 부족하다.

× 학습는으로만 부족하다.

× 학습으로는만 부족하다.

우에서 본 바와 같이 처음의 둘은 가능하지만 다음의 둘은 말이 되지 않는다.

[연습 1] 다음의 문장에서 체언토들이 합쳐서 이루어진 품사를 찾고 무엇이 합쳤는가 말하시오.

가) 예로부터 개성은 유명한 배추 산지이기도 하지만 또 개성 화강석 하면 그 석재의 질이 우수한 것으로써도 전국에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도 개성의 특산물에서 첫 손'가락으로 꼽힐 것은 인삼이다.

나)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온갖 경시와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로부터의 온갖 리탈은 동시에 부르쥬아 이데올로기의 강화를 의미한다.

[연습 2] 다음의 문장의 빈 자리에 적당한 토를 넣어 보시오.

가) 학교에서 집□□ 얼마나 됩니까?

나) 학선이가 제 동생□□ 음악을 할 줄 알면 그 배역에는 아주 적합하겠는데……

[연습 3] 다음의 토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시오.

가 지나, 부터라도, 에 게로, 부터의, 께서처럼, 한테나마, 는 커녕.

[연습 4] 다음의 문장에서 밑줄을 그은 토들의 매개 기능을 설명하여 보시오.

그가 제 형님처럼만이라도 조선말을 안다면 이 문장을 능히 번역할 수 있겠다.

[연습 5] 다음의 토를 함께 합쳐서 문장을 만들어 보시오.

ㄱ) 만, ㄴ) 처럼, ㄷ) 이나마.

제 5 장.

동 사.

동사란. 가다, 읽다, 자다 등과 같이 어떤 행동이 진행되거나 상태가 지속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단어를 말한다.

예: 보다, 웃다, 살다, 자다, 사랑하다, 건설하다. 맞이하다...

제 1 절. 동사의 종류.

1) 타동사와 자동사.

동사는 그가 나타내는 행동의 성격에 따라 **타동사**와 **자동사**로 나누어진다.

ㄱ. 타동사.

타동사란 그가 나타내는 행동이 다른 무엇에 직접 옮겨 가는 동사다. 따라서 반드시 직접 보어를 요구하는 동사다.

예: 나는 편지를 읽는다.

여기서 읽는 행동을 하는 것은 <나>이다. 그러나 <읽는> 행동은 <나>만 가지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 여기서는 <편지를> 읽음으로써 <읽는> 행동이 이루어졌다. 바꾸어 말하면 <읽는> 행동은 직접 <편지>에 옮겨 가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

예: 짓다—집을 짓다.

 심다—나무를 심다.

 건설하다—사회주의를 건설하다.

ㄴ. 자동사.

않는 자동사란 그가 나타내는 행동이 다른 무엇에 직접 움아 가지 동사다. 따라서 문장에서 직접 보어 없이도 쓰이는 동사이다.

례: 꽃이 핀다.

여기서 피는 행동을 일으킨 것은 <꽃>이다. 그런데 이 <피> 행동은 꽃만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다. 곧 다른 무엇에 이 행동이 직접 움아 가지 않고서 능히 이루어질 수 있다.

례: 웃다, 흐르다, 걷다(걸어 가다), 뛰다, 산보하다, 생활하다.....

자동사 앞에도 때로는 대격토를 가진 형태가 올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이 동사가 타동사인 것은 아니다.

례: 북도를 걷다.(방향)

백리를 가다.(거리)

두 번을 웃었다.(회수)

집을 떠난다.(출발점)

정찰을 나가다.(목적)

2) 자립적 동사와 보조적 동사.

동사는 그것이 문장에서 단독적으로 문장 성분을 이룰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자립적 동사와 보조적 동사로 나누인다.

ㄱ) 자립적 동사.

자립적 동사란 문장에서 그것만으로 한 개 문장 성분을 이룰 수 있는 동사다.

례; 우리는 언제나 함께 일하고 함께 배운다.

ㄴ) 보조적 동사.

보조적 동사란 문장에서 그것만으로는 문장 성분을 이루지 못하고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 한 개 문장 성분으로 되는 동사다.

례: 서도 가고 싶습니다.

국제 정세에 관하여 토론하였다.

보조적 동사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자립적 동사의 일정한 형태와 어울려서야만 쓰이는 것.

례; 나는 조선 역사를 배우고 싶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

이 유형의 보조적 동사는 그 수효가 극히 적다. 한편 자립적 동사가 그 본래의 의미를 바꾸어서 다른 자립적 동사와 어울려 보조적 기능으로 쓰이는 것이 많다.

예: 그는 벌써 그 소설을 다 읽어 버렸다.

여기서 <버리다>는 <편지를 버리다>에서의 <버리다>의 의미로서가 아니라 <읽는> 행동이 완전히 끝났다는 의미로 바뀌어 쓰인 것이다.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보조적 동사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가다(행동의 진행).

그는 조국의 품에 안겨 행복하게 살아 간다.

○ 가지다(행동의 완료와 완료된 상태의 지속).

그 책을 다 읽어 가지고 오시오.

○ 나다(행동의 완료).

우리 나라 농촌은 지난날의 락후하던 처지를 완전히 벗어나서 사회주의의 길로 나아 가고 있다.

○ 내다(행동의 완료).

일본 제국주의의 동화 정책에 불구하고 조선어는 견디어 내었으며 이겨 내었다.

○ 놓다(행동의 완료와 완료된 행동의 지속).

우리는 그 때에 벌써 국가 공업화의 기술적 토대를 담아 놓
았습니다.

○ 보다(행동의 시험적인 수행).

이번에는 새 방법으로 시험해 봅시다.

○ 주다(상대편의 리익이 되도록 행동하는 뜻)

그에게 재미 있는 이야기를 해 주었다.

○ 오다(행동의 진행).

우리는 여태껏 행복하게 살아 왔습니다.

○ 있다(행동의 진행).

우리는 천리마로 달리고 있다.

○ 드리다(제공하는 뜻).

그에게 단추를 달아 드렸다.

둘째, 격 형태의 단어와만 결합하여 함께 하나의 문장 성분을 이루는 것.

예: 우리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한다.

[비교] 그는 어머니를 정성껏 위한다.

여기서 <위하여>는 동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놓인 로(을)와 함께 <인민>이라는 단어에 붙어 하나의 성분을 이루면서 로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유형의 보조적 동사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말미암아:

미제가 도발한 전쟁으로 말미암아 파괴되었다.

○ 관하여:

남반부 정세에 관하여 보고하였다.

○ 인하여:

미제의 강점으로 인하여 조국은 분열되었다.

○ 제하여:

민족적 명절에 제하여 축전을 보낸다.

○ 대하여:

두 나라의 국제적 친선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 의하여:

이 모든 성과는 당의 령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 하여 (금):

어찌 이만한 곤난으로 하여 주저하라!

원썩들로 하여금 우리 땅에 밭 불일 곳이 없게 한다.

[연습 1] 다음 문장에서 동사를 찾고 그 종류를 나누어 보시오.

1) 농장원들은 노래 소리도 흥겹게 일한다. 물을 끌어 올려서 논밭에 낸다. 물은 땅 속 깊이까지 속속들이 스며 들어 간다. 비는 생기를 떠머 싱싱 자라면서 산들 바람에 설레인다. 금년에도 반드시 풍작이 올 것이다.

2) 방금 섰던 삼층 벽돌 집은

아스팔트 길에 거꾸러지고

반나마 타 버린 가로수들은

허리 부러져 길마닥에 덩구느니,

ㄷ) 앞서 온 사람이 저마다 께지르고 앞으로 나가려 하는 데다가 뒤미처 당도하는 사람들이 또한 제가끔 제가 맨 앞장에 서려고 밀치는 판에 금시 수술실 안은 혼잡을 이루고 말았다.

[연습 2] 다음의 동사가 타동사인가 자동사인가를 말하십시오.

오다, 나다, 밀다, 마시다, 사업하다, 보고하다, 통지하다.

[연습 3] 다음의 문장에서 □□ 안에 적당한 보조 동사를 써 넣으시오.

ㄱ) 그대로 거저 두어 □□□

ㄴ) 오늘부터는 김 칠수 동무가 반장 일을 맡아 □□□

ㄷ) 현미정입니다. 자, 이 구멍으로 한 번 보아 □□□ 세포들이 훤히 보여요.

ㄹ) 그 책을 다 읽어 □□□ 오시오.

ㅁ) 어려운 일을 끝까지 견디어 □□ 의지가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합니다.

[연습 4] 다음의 보조 동사를 가지고 단문을 지어 보시오.

싶다, 말다, 놓다, 버리다, 주게.

[연습 5] 다음의 문장에서 틀린 곳을 고치시오.

ㄱ) 그들은 조국에 위하여 싸웠다.

ㄴ) 국제 정세에 관하여 보고를 들었다.

제 6 장.

형용사.

형용사란, 붉다, 좋다, 넓다, 용감하다 등과 같이 어떤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를 말한다.

예: 밝다, 달다, 고요하다, 아름답다, 춥다, 많다, 슬프다, 나쁘다, 일찍하다……

형용사에는 이 밖에 대상의 성질에 대한 지시나 의문을 나타내는어들도 있다.

예: 이렇하다(이렇다), 그러하다(그렇다), 저러하다(저렇다), 이만하다, 그만하다, 저만하다, 이만저만하다, 어떠하다(어떻다),

그려루하다……

※ 그러나 <이리하다, 그리하다, 저리하다>는 동사에 들어가므로 주의해야 한다.

조선어에서는 동사와 형용사의 일부 토들이 다른 것이 있다. 따라서 동사와 형용사를 잘 구별해야 토를 정확히 쓸 수 있다.

예: 동사: 읽다—읽는다, 읽는 책, 읽자.

형용사: 넓다—×넓는다, ×넓는 땅, ×넓자

제 1 절. 형용사 사용에서 주의할 점.

조선어의 형용사에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의 미세한 차이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풍부히 발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붉다> 하나만 가지고도 <빨갳다, 벌겁다, 빨갳다, 빨겁다, 새빨갳다, 시빨겁다, 불그스럼하다, 불그스럼하다, 빨그스럼하다, 불그레하다, 불그레하다, 발그레하다……>등 수많은 단어들이 있다. 따라서 이런 단어들의 차이들을 잘 가리어 쓸 줄 알아야 한다.

이제 이런 단어들이 이루어진 특성에 따라 그들의 차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접사가 붙으면서 강도를 더 심하게 나타내는 것

예: 높다—드높다. 퍼렇다—시퍼렇다.

깊다—깊쑥하다. 달다—달콤하다.

2) 어음이 바뀌면서 강도를 더 심하게 나타내는 것

가) 모음이 바뀌는 것

불그스럼하다—불그스럼하다.

하얗다—허엿다.

※ <ㅏ, ㅑ>보다 <ㅓ, ㅕ> 소리가 더 진하게 느껴진다.

나) 자음이 바뀌는 것.

거므스럼하다—꺼므스럼하다.

달랑거리다—딸랑거리다.

※ 순한 소리보다 된소리가 더 강하게 느껴진다.

도를 더욱 강하게 나타내는 것.

불다—불더불다, 밝다—밝더밝다.

쓰다—쓰디쓰다, 차다—차디차다.

희다—희고희다, 달다—달고달다.

큰—크나큰(희망), 긴—기나긴(밤).

이 밤에도 더욱 다양한 수법들이 있다.

[연습 1] 다음의 문장에서 형용사를 가리어 내시오.

1) 어느덧 바다는 눈 앞에 환하게 펼쳐졌다. 크고 작은 가지가지 배들은 가로 세로 움직이며 가까워 오고 있고 함포들은 발악하듯 포란을 퍼부었다.

진호 안이 뒤집힐듯 울리고 출입구 밖이 초연에 뽀얗게 되었다.

2) 가없이 넓고 맑은 동해의 바다' 물이 출렁이며 이르는 곳마다에 기암 괴석들과 수많은 호수들이 있는 우리 나라의 동해안은 예로부터 인민들의 사랑을 받아 왔다.

3) 락락 장송 우지진 그 사이로 과일 나무들이 과랴게 잎을 펼 나즈막한 언덕들이 누웠고 그 가운데 김 일성 원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내신 본가의 초가집이 아름다운 련못'가에 자리 잡고 있다.

[연습 2] 다음의 형용사와 뜻이 반대되는 형용사를 각각 들어 보시오.

짜다, 날카롭다, 무겁다, 따뜻하다, 빠르다, 크다, 기쁘다, 사랑스럽다, 귀하다, 옳다, 강하다, 비싸다, 착하다.

[연습 3] 다음의 형용사를 가지고 단문을 지어 보시오.

반기다, 썩썩하다, 향기롭다, 옳바르다, 슬기롭다, 견고하다.

[연습 4] 다음의 문장에서 빈 자리에 적당한 형용사를 넣어 보시오.

1) 조선은 □□□ 나라입니다. 산이 □□, 물이 □□□, 기후는 □□□ 땅은 □□.

2)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우리 조국의 통일과 우리 인민의 무한히 □□□ 장래를 바라 보면서 □□□ 희망과 □□□ 장래에 의하여 고무되고 있습니다.

[연습 5] 다음의 형용사를 여러 가지로 바꿔서 의미상 미세한 차이를 가지게 하시오.

맑다, 굵다, 누렇다.

제 7 장. 용언에 붙는 토.

조선어에서 동사와 형용사를 용언이라 한다. 조선어의 동사와 형용사는 언제나 토와 함께 쓰이면서 기본적으로 같은 토가 붙는다.

용언은 그가 문장에서 다른 것과 어떻게 련결되는가에 따라 종결형, 접속형, 규정형의 세 가지로 나눈다.

례: 따뜻한 봄이 가면 무더운 여름이 온다.

여기서 <온다>는 문장이 끝나는 것을 나타내므로 종결형이라 하며 <가면>은 한 문장에서 다른 것에 접속하여 더 이어 나가게 하므로 접속형이라 하며 <따뜻한>과 <무더운>은 문장에서 무엇의 특징을 규정하므로 규정형이라 한다.

이 때 종결형, 접속형, 규정형에 나타나는 토들은 그 형태가 다를 뿐만 아니라(ㄴ다, ㄴ, 면) 그들이 나타내는 의미도 서로 다르다. 즉

○ 종결형 토는;

모두 계칭, 식의 의미를 나타내며

○ 접속형 토는;

접속하는 성격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내며(원인, 조건, 기타)

○ 규정형 토는;

모두 시칭의 의미를 나타낸다.

용언에는 이 밖에도 존칭, 시칭 등의 의미를 가진 토들이 따로 덧붙을 수도 있다.

이제 용언에 붙는 토들을 그들이 나타내는 의미에 따라 차례로 하나씩 보기로 하자.

제 1 절. 식.

용언의 종결형은 식의 의미를 나타낸다.

식이란,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야기 목적을 나타내는 말의 양식을 말한다.

례: 문법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술식)

어제 숙제를 하여 왔습니까? (의문식)

그러면 먼저 박 동무 말해 보시오. (명령식)

다음은 다 같이 풀어 봅시다. (권유식)

이와 같이 식에는 서술식, 의문식, 명령식, 권유식, 감탄식의 다섯 가지가 있다. 그러나 형용사에는 기본적으로 명령식과 권유식이 없다.

례:	주	-	입니다 (서술식)	,	높	-	습니다. (서술식)	}	(없음)	
			느냐? (의문식)							느냐? (의문식)
			자 (권유식)							× 자. (권유식)
			어라 (명령식)							× 이라. (명령식)

형용사에 권유식과 명령식이 없다는 사실은 형용사의 토사에서 특히 주의할 점이다.

례: (권유식) (명령식)

잘나다—× 잘나자 × 잘나라 (형용사)

빛나다—빛나자 빛나라 (동사)

즐겁다—× 즐겁자 × 즐거워라 (형용사)

즐기다—즐기자 즐기여라 (동사)

1) 서술식.

대화자에게 어떤 사실을 설명하여 주는 식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토들이 쓰인다.

—다 (나다, 는다)

례: 준다, 받는다, 높다, 회다.

—네

례: 주네, 받네, 높네, 회네.

—오 (소)

례; 주오, 받소, 높소, 회오.

—입니다 (습니다)

례; 줍니다, 받습니다, 높습니다, 씹니다.

—아 (어, 여)

례; 주어, 받아, 높다, 회여.

-지

례; 주지, 받지, 높지, 회지.

-느니라(동사), 니라(형용사)

례; 주느니라, 받느니라, 높니라, 회니라.

-마

례; 주마, 받으마.

※ 이 토에는 약속의 의미가 있으며 형용사에서는 안 쓰인다.

-리다

례; 주리다, 받으리다, 높으리다, 회리다.

※ 이 토에는 추측, 가능의 뜻이 있다.

-넉디다(습디다)

례; 줍디다, 받습디다, 높습디다, 회디다.

-터라

례; 주터라, 받터라, 높터라, 회터라.

※ <넉터다>, <터라>의 토는 말하는 사람이 직접 본 사실을 대화자에게 전달할 때 쓰인다.

례; 성적이 좋습터다.

일이 재미가 나터라.

2) 의문식.

대화자에게 어떤 사실을 물어 그 대답을 요구하는 식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토들이 있다.

-니

례; 주니? 받니? 높니? 회니?

-나

례; 주나? 받나? 높나? 회나?

-는가(동사), L(은)가(형용사)

례; 주는가? 받는가? 높은가? 회는가?

-르가

례; 출가? 받을가? 높을가? 회를가?

-넉니까(습니까)

례; 줍니까? 받습니까? 높습니까? 칩니까?

-느냐(동사), 냐(형용사)

례; 주느냐? 받느냐? 높느냐? 칩느냐?

-지요

례; 주지요? 받지요? 높지요? 칩지요?

-디까(습디까)

례; 줍디까? 받습디까? 높습디까? 칩디까?

-나요

례; 주나요? 받나요? 높나요? 칩나요?

-던가요

례; 주던가요? 받던가요? 높던가요? 칩던가요?

-던가

례; 주던가? 받던가? 높던가? 칩던가?

-는지(동사), L(은) 지(형용사)

례; 주는지? 받는지? 높은지? 흰지?

-더냐

례; 주더냐? 받더냐? 높더냐? 칩더냐?

3) 명령식.

대화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식이다. 형용사에는 기본적으로 명령식이 없다. 다만 <하다>가 붙어서 된 형용사의 일부에서 명령식이 쓰일 뿐이다.

례:

대답하	{	-다(서술식)
		-니?(의문식)
		-자(권유식)
		-여라(명령식)

명령식에서 많이 쓰이는 종결형의 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아라(여라, 여라)

례; 주어라, 받아라

-렴

례; 주렴, 받으렴.

-려므나

례; 주려므나, 받으려므나.

-게

례; 주게, 받게.

시오(으시오)

례; 주시오, 받으시오.

-게나

례; 주게나, 받게나.

-라구

례; 주라구, 받으라구.

-라구요

례; 주라구요, 받으라구요.

-구려

례; 주구려, 받구려.

-십시오(으십시오)

례; 주십시오, 받으십시오.

-소서

례; 주소서, 받으소서

※ 동사 <가다> 계열과 <자다>, <있다> 등은 이런 경우 <가라>, <자라>, <있어라> 이외에 또한 <가거라>, <자거라>, <있거라> 등으로도 쓰일 수 있다.

※ 동사 <주다>는 말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경우에 <줘라> 대신 <다오>, <다고>, <다구>, <달라> 등으로 바뀌어 쓰인다.

례; 어서 승리의 소식을 전해 다오.

내 손을 잡아 다고.

※ 동사 <오다> 계열은 <오라> 대신 <오너라>로 된다.

례; 영남아, 빨리 오너라!

아가, 어서 이리 오너라!

4) 권유식

대화자에게 어떤 행동을 자기와 함께 하도록 요구하는 식이다. 형용사에는 기본적으로 권유식이 없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토들이 있다.

—자

례; 주자, 받자.

—세

례; 주세, 받으세.

—버시다

례; 줍시다. 받으시다.

—자구

례; 주자구, 받자구.

—버세

례; 줍세, 받으세.

—자꾸나

례; 주자꾸나, 받자꾸나.

—세나

례; 주세나, 받으세나.

5) 감탄식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실에 대하여 감정적 색채를 가지고 나타내는 식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토들이 있다.

—는구려(동사), —구려(형용사)

례; 읽는구려! 높구려!

—는구나(동사), —구나(형용사)

례; 읽는구나! 높구나!

—구만

례; 읽는구만! 높구만!

—는군(동사), —군(형용사)

례; 읽는군! 높으군!

—더군

례; 읽더군! 높더군!

—더군요!

례; 읽더군요! 높더군요!

—더구나

례; 읽더구나! 높더구나!

—리로다

례; 읽으리로다! 높으리로다!

-그러

례; 읽는그러! 높으그러!

※ 감탄식 토에는 형용사에만 있고 동사에는 안 쓰이는 것도 있다.

-아라 : 아이 좋아타! 태일 만경대에 가요.

-리시고 : 열 지구나 좋을지구! 협동 마을 좋을지고

우에서 말한 식 토들 가운데서 <—어요, —오, —소, —어> 등은 모든 식에 공통적으로 쓰이므로 이들을 쓸 때에는 특히 어조에 주의하여야 한다.

례: 저는 편지를 읽어요?(서술식)

동무는 편지를 읽어요?(의문식)

어서 편지를 읽어요!(명령식)

나도 가오.(서술식)

동무도 가오?(의문식)

빨리 가오!(명령식)

나도 신문을 읽어. (서술식)

그 동무도 신문을 읽어?(의문식)

자. 빨리 읽어!(명령식)

[연습 1] 다음의 글에서 용언의 종결형을 찾고 그것이 무슨 식으로 나타나는가 말하시오.

7)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하여 과문은 입원실애까지 미치지였다.

방금까지 멀쩡하던 간호원 전 봉희 동무가 다리를 절며 외과 2호 병실로 나라났다. 왜 이렇게 입원실애 아무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째서 동무는 다리를 접니까?

환자는 궁급해서 질문을 퍼붓는다.

아니요, 그저 아무 것도 아니야요.

수술장 장면이 계속 머리에 떠 올라 간호원은 아래 입술을 꼭 깨물며 대답을 일버무렸다. 환자들은 이 간호원에게서 흐르는 눈물을 본다.

어서 말하십시오. 병원에 무슨 일이 필경 생겼지요?
간호원은 성화를 견디어 내지 못하고 _끝내 사연을 터뜨렸다.

ㄴ) 일어 나라 저주로 인 맞은

주리고 종 된 자 세계
우리의 피가 끊어 넘쳐
결사전을 하게 하네
억제의 세상 뿌리 빼고
새 세계를 세우자
짓밟혀 천대 받던 자
모든 것의 주인이 되리

[연습 2] 형용사 <많다>에 다음과 같은 식 토를 붙여 단문을 지으시오.
소, ㄴ가, 락, 리다, 니라.

[연습 3] 다음의 단언에는 어떤 식 토들이 붙을 수 있는가 변화시켜 보
시오. 그리고 동사와 형용사의 어느 쪽인가 말하십시오.

창조하다, 풍부하다, 기르다, 우렁차다, 굳세다, 완수하다,
즐거다.

제 2 절. 계 칭.

용언의 종결토들은 식의 의미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이야기
하는 사람이 이야기 듣는 사람에게 대하여 가지는 사회적 례의 관
계도 나타낸다.

례: 우리는 천리마를 봏습니다. (높인 말).

우리는 천리마를 봏소. (보통 말)

우리는 천리마를 봏다. (낮춘 말)

여기서 <봏습니다>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야기 듣는 사람을
사회적으로 존대하여 높일 때 쓰이며 <봏소>는 자기와 대등한 관
계에 놓일 때 쓰이며 <봏다>는 손 아래 사람으로 낮출 때 쓰인다.

계칭을 나타내는 데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로가 따
르 있는 것이 아니라 종결형의 토 자체가 식의 의미와 함께 계칭
의 의미를 가지고 나타난다.

조선어의 계칭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갈라 볼 수 있다.

1. 높인 말.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야기 듣는 사람을 높여서 말하는 경우에 쓰인다.

여기에 쓰이는 계칭토로는 다음과 같은 토들이 있다.

-**니다**(습니다)

례; 줍니다, 높습니다.

-**니까**(습니까)

례; 줍니까, 높습니까.

-**시오**

례; 주십시오, 받으십시오.

-**시다**

례; 주십시오, 받으십시오.

-**아요**(어요, 여요)

례; 주어요, 높아요.

-**지요**

례; 주지요, 높지요.

-**나요**

례; 주나요, 높나요.

-**는가요**(은가요)

례; 주는가요, 높은가요.

-**리가요**

례; 줄가요, 높을가요.

-**세요**(으세요)

례; 주세요, 받으세요.

-**시오**

례; 주십시오, 받으십시오.

그러나 <니다, 습니다, 니까, 습니까……>들보다 <아요, 지요, 나요, 세요>들은 좀더 친숙한 사이에 쓰인다.

례: 이것 보십시오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것 보아요, 얼마나 훌륭하나요?

2) 보통말.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야기 듣는 사람을 자기와 대등한 관계에 놓고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 쓰이는 계칭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오(소)

레; 주오, 높소.

-시오

레; 주시오, 받으시오.

-게오

레; 주게오, 받게오.

-네

레; 주네, 높네.

-나?

레; 주나? 높나?

-는가(은가)

레; 주는가? 높은가?

-게

레; 주게, 받게.

-구려

레; 주구려. 높구려.

그러나 <오(소), 시오, 받시오>보다 <네, 나, 는가, 게, 구려>들은 좀더 친숙한 사이에 쓰인다.

레: 자, 이 책을 받으시오.

자, 이 책을 받게.

3. 낮춤말.

이야기하는 사람보다 이야기 듣는 사람이 아주 손 아래 사람 일 때나 또는 아주 가까운 동무일 때 쓰인다.

여기에 쓰이는 계칭토르는 다음과 같은 토들이 있다.

-는다(는다), 다

레; 준다, 받는다, 높다.

-마

레; 주마, 받으며.

-니

레; 주니, 높니.

-느냐

레; 주느냐? 높느냐?

-르가(을가)

레; 줄가? 높을가?

-아라(여라, 여라)

례; 주어타, 받아타.

—러므나

례; 주러므나, 받으러므나.

—럼

례; 주럼, 받으럼.

—자

례; 주자, 받자.

이상과 같은 계칭은 서로 마주 대고 말하는 회화에서 가장 뚜렷이 나타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계칭의 차이는 대화자에 대한례의적 관계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 자신의 성별, 연령 그리고 담화가 공식적인가, 아닌가 하는 데도 의존한다.

례를 들면 <읽소>와 같은 토는 남성만이 쓰고 여성은 쓰지 않으며 <읽네>와 같은 토는 청소년은 안 쓰고 나이 많은 층에서 쓰는 것이며 (<읽어요>)는 공식적인 장소에서는 쓰지 않는 토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문설과 같은 글에서는 낮추어 말하는 계칭 (<읽는다>)이 쓰이고 강연이나 보고, 탁지오, 방총과 같은 데서는 높이어 말하는 계칭이 쓰인다.

비교:

오늘 조선 인민은 사회주의 더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쾰리마를 타고 힘차게 달리고 있습니다(보고, 토론, 강연).

오늘 조선 인민은 사회주의의 더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쾰리마를 타고 힘차게 달리고 있다(출판물)

이제 계칭과 식의 호상 관계를 도표로 보이던 다음과 같다.

계칭 \ 식	서술식	의문식	명령식	권유식
높인말	바니다(습니다) 아요(어요)지요 오(소), 구려	아요(어요, 여요) 지요, 바니까 는가요 르가요	시오(으시오) 소서, 아요 (어요, 여요)	바시다 (읍시다)
보통말	네, 미세	오(소) 는가 르가(을가)	오(소) 구려 계(소) 으오	바시다 (읍시다) 세
낮춤말	다, 느니라, 마 구나, 군, 지 아(어, 여)	느냐, 나, 니 랴, 지, 아 (어, 여)	아라, (어라, 여라) 거라, 너라, 려므나 럼, 지, 아(어)	자, 지 아(어, 여)

[연습 1] 다음의 글에서 용언의 제칭 형태를 찾아내고 무슨 제칭인가 말하십시오.

ㄱ) 한참 어쩔 바를 모르던 그들은 그제서야 일제히 소년단 경례를 하였습니다.

<새 옷을 타 입으니 어떠냐?>

<좋습니다. 몸에 꼭 맞습니다. 원수님!>하고 대답들을 하였습니다.

ㄴ) <……자체의 힘으로 해결해야지, 무슨 돈으로 자꾸 사먹일 데요? 이젠 풀이 나올 테니까 자연 사료에 두 배 달릴 수가 있소…….> <아니 이것 축산 부위원장 동무가 요구해서 그런 겁니다.>

<누가 요구해도 그렇소, 내가 승인이 없는 일은 함부로 지출은 하지 마우.>

<알겠습니다.>

창혁이는 문서에 도장을 찍어 주었다.

[연습 2] 다음의 글을 읽고 물음에 대답하십시오.

<좀 가 볼 일이 있습니다>성호는 일어 섰다. <그럼 차비라도 가지고 가세요, 인숙아, 너 가 돈 좀 내 오너라……>

아주머니의 이 말에 <예>하고 인숙이는 재빠르게 안으로 들어 가는데 <아니 그만 두어라, 여기 있습니다.> 성호는 아주머니에게 인사하고 길을 나섰다.

ㄱ) 이 글에서 <아니 그만 두어라>는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ㄴ) 그것은 주로 무엇에 의하여 알 수 있습니까?

ㄷ) 어째서 한 번에 한 말 가운데서 <두어라>와 <있습니다>와 같은 제칭이 섞여서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연습 3] 형용사 <붉다>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 제칭 관계 상 어떤 토를 취할 수 있으며 어떤 토를 취할 수 없는가를 말하십시오.

ㄱ) 꽃봉오리를 보고 그 학생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이 꽃이 붉겠□□?>

ㄴ) 꽃봉오리를 보고 그 학생이 자기 동생더러 말하였다.

<애, 영숙아, 이 꽃이 붉겠□□?>

ㄷ) 꽃봉오리를 보고 그 학생이 자기 동무더러 말하였다.

<이애, 순호 이 꽃이 붉겠□□?>

근) 꽃봉오리를 보고 그 학생이 자기 선생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꽃이 붉겠□□?

[참고] 습니까? 어요? 니? 지?

[연습 4] 다음의 종결형 토들은 제칭 식 기라의 의미에서 어느 점이 같으며 어느 점이 서로 다른가?

[넌니다	라	[네	[군
	넌니까	어라		누나		구나
	넌시다					

제 3 절. 접속형이 가지는 의미들.

조선어에는 상당히 많은 접속토들이 있어 문장을 자유롭게 접속시킨다.

외국어에서 접속사, 접속어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조선어에서는 대부분 접속토로써 번역된다. 따라서 접속토들이 가지는 다양한 의미를 정확히 구별할 줄 아는 것은 매우 실천적 의의를 가진다.

조선어의 접속토는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만 설명하기로 한다.

조선어의 접속토는 그 기본적인 의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연결의 접속형

주로 두 개 사실을 단순히 연결하는 접속형이다.

—고, —며, —거니와, —려니와.

예:

우리는 조선어로 말도 하

}	—고—	} 글도 쓴다.
	—며—	
	—거니와—	
	—려니와—	

여기서 <고>와 <며>는 동등한 자격으로 접속된 것이며 <거니와>는 앞의 사실을 확인하면서 계속 뒤의 사실을 확인한 것이며 <려니와>는 앞의 사실을 추측, 의지의 뜻을 포함시켜 인정하면서 계속 뒤의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런결의 뜻을 나타내는 데는 이 밖에도 <—는데(ㄴ테), —는바(ㄴ바), —되, —니, —다가> 등의 토들이 쓰일 수 있다. 이 가운데서 <는바>, <는데>는 동사에 쓰이고 <ㄴ바>, <ㄴ테>는 형용사에 쓰인다.

예: 동사 형용사
 읽는바 높은바
 읽는데 높은데

2) 선택의 접속형

주로 런결되는 두 개 사실 중 어느 하나가 선택됨을 나타내는 접속형이다.

—거나, —든지, —든, —든가.

예:

분조장 동무가 오 { —거나—
 —든지—
 —든—
 —든가— } 반장 동무가 올 것이다.

선택의 접속형에는 이 밖에도 <나(으나)>, <건> 등이 쓰일 수 있다.

3) 대립의 접속형

주로 런결되는 두 개 사실이 서로 대립적 관계에 있음을 나타내는 접속형이다.

—나(으니), —지만(지마는), —건만(건마는), —아도(어도, 여도), —는데.

예:

비가 오 { —나—
 —지만—
 —건만—
 —아도—
 —는데— } 작업을 계속 하였다.

대립의 접속형에는 이 밖에도 <나마>, <련만>, <연만> 등이 쓰일 수 있다.

4) 원인의 접속형.

주로 연결되는 두 개 사실 중 첫째 사실이 둘째 사실의 원인이나 리유 근거가 됨을 나타내는 접속형이다.

—므로(으므로), —니(으니), —니까(으니까), —ㄴ즉(은즉),
—기에, —기로, —길래.

례:

회의가 있	—으므로—	강당에 모이시오
	—으니—	
	—으니까—	
	—은즉—	
	—기에—	
	—기로—	
	—길래—	

원인의 접속형에는 이 밖에도 <거늘>, <르새>, <때(으때)>, <건대(댄)>, <나니> 등이 쓰일 수 있다.

5) 조건의 접속형

주로 연결되는 두 개 사실 중 첫째 사실이 둘째 사실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됨을 나타내는 접속형이다.

—면(면는), —거든, —(아)야,

례:

강의가 끝나	—면—	도서관에 가겠습니다.
	—거든—	
	—(아)야—	

여기서 <면>은 일반적인 조건을 나타내며 <거든>은 가정적 조건을 나타내며 <아야>는 필수적인 조건임을 나타낼 때 쓰인다.

조건의 접속형에는 이 밖에 <르진대>, <터면>, <터들>, <ㄴ들> 등이 쓰일 수 있다.

6) 양보의 접속형

주로 연결되는 두 개 사실 중 첫째 사실을 양보하여 더 불리하게 만들어 놓고 둘째 사실을 기어이 실현할 것을 나타내는 접속형이다.

—르지언점, —르망점, —르지라도, —터라도, —아도(어도, —여도), —든들.

예:

비록 죽	—을지언정—	}	한 걸음도 물러설 수는 없다.
	—을망정—		
	—을지라도—		
	—어도—		
	—든들—		
	—		

양보의 접속형에는 이 밖에도 <았다(었자)>, <ㄴ들(은들)> 등이 쓰일 수 있다.

7) 시간의 접속형.

주로 련결되는 두 개 사실이 시간적으로 같거나 련'이어서 일어난을 나타내는 접속형이다.

—터니, —다가, —자, —고서, —면서.

예:

그는 책을 보	—터니—	}	글을 쓴다.
	—다가—		
	—자—		
	—고서—		
	—면서—		
	—		

여기서 <터니>는 과거에 진행된 행동이 끝나자 얼마 안되어 뒤의 행동이 진행되었을 때 쓰이며 <다가>는 앞의 행동을 중단하고 뒤의 행동을 진행할 때 쓰인다. 그리고 <자>는 앞뒤 행동이 거의 동시에 진행될 때 쓰이며 <고서>는 앞의 행동이 끝나고 나서 뒤의 행동이 진행됨을 나타낼 때 쓰인다. 그러나 <면서>는 두 행동이 완전히 동시에 진행될 때 쓰인다.

계기의 접속형에는 이 밖에도 <ㄴ즉>, <고>, <아>, <아서> 등이 있다.

이 부류의 접속로 가운데 <고서>와 같은 로들은 형용사에는 없다. 그리고 <아>, <아서>와 같은 로도 <앞의 사실이 끝나고서 뒤의 사실이 일어나>는 뜻으로 동사에는 쓰일 수 있으나 형용사에는 쓰이지 않는다.

8) 목적과 의도의 접속형.

주로 편결되는 두 개 사실 중 첫째 사실이 둘째 사실의 목적
 이나 의도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접속형이다.
 —러, —려, —려고, —고서.

예:

조선말을 배우 $\left. \begin{array}{l} \text{—러} \\ \text{—려} \\ \text{—려고} \\ \text{—고서} \end{array} \right\}$ 조선에 왔습니다.

여기서 <러>는 목적을 나타낼 때 쓰이며 <려, 려고, 고서>는
 의도나 희망을 나타낼 때 쓰인다.

이 부류에 속하는 토들은 형용사에는 없다.

9) 방식과 정도의 접속형.

주로 편결되는 두 개 사실 중 첫째 사실이 둘째 사실의 방식
 이나 정도를 나타내는 접속형이다.

—아(어, 여), —아서(어서, 여서), —아다(어다), —게,
 —도록, —근수록

예:

도서관에서 책을 빌 $\left. \begin{array}{l} \text{—어} \\ \text{—어서} \\ \text{—어다} \end{array} \right\}$ 공부하시오

목이 쉬 $\left. \begin{array}{l} \text{—도록} \\ \text{—게} \\ \text{—근수록} \end{array} \right\}$ 만세를 댔다.
 ↑
 ……더

여기서 <아(어, 여)>, <아서(어서, 여서)>, <아다(어다)>는
 행동이 진행되는 방식을 나타낼 때 쓰이며 <게>, <도록>, <근수
 록>은 행동이 진행되는 정도를 나타낼 때 쓰인다.

그런데 <근수록>은 앞의 사실이 더하여 감에 따라 뒤의 사실이
 이 더하여 감을 나타낼 때 쓰인다.

방식의 접속형에는 이 밖에도 <근뿐더러>가 쓰일 수 있다.
 이것은 앞의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고 뒤의 사실까지도 진행됨을
 나타낼 때 쓰인다.

예:

그는 공부를 잘 할뿐더러 운동도 잘 한다.

※ 이 부류의 토 중에서 <아다가>만은 형용사에 없다.

이와 같이 접속형은 문장을 접속시키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상황어 또는 합성 술어 등에 쓰여 다양한 역할을 한다.

[련습 1] 다음의 문장에서 접속토를 찾아 내고 그것이 어떤 의미의 접속토인가 밝히시오

ㄱ) 무릇 모든 위대한 발견의 력사가 그러하듯 그들도 겪어야 할 진통을 겪으면서 가시덤불을 헤치고 험산준령을 넘어야만 하였다.

ㄴ) 비가 오자마자 제각기 새 비옷을 떨쳐 입고 나온 수도 사람들……

비도 하늘에서 춤추며 노래 부르며 이 땅에 내린다. 그러나 한 하늘 아래 한 강토이지만 이 시각에도 남녘 땅에는 다른 비가 오고 있다. 그 곳에서는 인민들의 원성인양 비'소리, 구슬프리……

ㄷ) 수령의 자애로운 손'길은 내가 의용군으로 입대할 때 멀리까지 따라 나와 좋은 세상 만났으니 내 걱정은 말고 부디 잘 싸우라고 당부하시면서 나의 행장을 어루만져 주시던 어머니의 손'길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련습 2] 다음의 문장에서 밑줄을 그은 동사의 토를 다른 것으로 바꾸어 보시오

ㄱ) 나는 자라서 기사가 되거나 과학자가 되렵니다.

ㄴ) 밤이 깊었으나 노동자 아저씨들은 공장 건설 사업에 여념이 없었다.

ㄷ) 봄에 가물었지만 관개 공사가 잘 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았다.

[련습 3] 다음의 빈 자리에 적당한 접속토를 넣으시오

ㄱ) 문을 두드리□□ 글씨 나가 봤□□ 이 편지가 오질 않았겠어요.

ㄴ) 뿡 따□ 가세, 뿡 따□ 가세.

ㄷ)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 인민을 예속화□□ 들□□ 결코 그렇게는 될 수 없다.

[련습 4] 다음의 뜻은 어떻게 됩니까?

〔 비가 오면 갑니다.

〔 비가 오더라도 갑니다.

[연습 5] <바람이 분다>라는 사실과 <비가 온다>라는 두 사실을 아래와 같은 의미로 접속시켜 보시오

- ㄱ) 한꺼번에 일어 나고 있음
- ㄴ) 바람이 분 다음에 비가 올
- ㄷ) 바람이 부는 것에 잇대어 비가 올
- ㄹ) 바람이 부는 것이 중단되고 비가 올

[연습 6] 다음의 접속토를 가지고 문장을 지으시오

—근망정, —거든, —근수록, —는데, —니까

제 4 절. 시 칭.

용언에는 식, 계칭의 의미를 나타내는 토들이 붙을 뿐만 아니라 시칭의 의미를 나타내는 토들도 붙는다.

례 :

책을	[읽는다(현재)	물이	[맑다(현재)
		읽었다(과거)			맑았다(과거)
		읽겠다(미래)			맑겠다(미래)

여기서 <읽는다>나 <맑다>는 행동이나 상태가 이야기하는 순간과 일치함을 말하며 <읽었다>나 <맑았다>는 이야기하는 순간보다 앞섰음을 말하며 <읽겠다>나 <맑겠다>는 이야기하는 순간보다 뒤에 일어남을 말한다. 이처럼 말하는 순간과 행동이나 상태가 일어나는 순간과의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시칭이라고 한다. 용언의 시칭에는 기본적으로 현재, 과거, 미래의 세 가지가 있다. 이 세 가지 시칭은 종결형, 접속형, 규정형에 따라 그 표현 형식이 약간씩 다르다.

1) 종결형에서 나타나는 시칭.

○ 동사의 례;

현재; 읽는다, 본다, 읽네, 보네.

과거; 읽었다, 보았다, 읽었네, 보았네.

미래; 읽겠다, 보겠다, 읽겠네, 보겠네.

○ 형용사의 례;

현재; 맑다, 희다, 맑네, 희네.

과거; 맑았다, 희었다, 맑았네, 희었네
 미래; 맑겠다, 희겠다, 맑겠네, 희겠네
 종결형에서의 시칭을 나타내는 토들을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시칭 종류	동 사	형 용 사
현 재	ㄴ, 는, 〇	〇
과 거	았(였, 었)	았(였, 었)
미 래	겠	겠

여기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동사와 형용사의 현재 시칭토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것은 동사에서는 <다, 구나, 군, 구려, 구먼, 도다>인 경우에 <ㄴ(는)>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예:

본다	읽는다
보는구나	읽는구나
보는군	읽는군
보는구려	읽는구려
보는구먼	읽는구먼
보는도다	읽는도다
봅시다	읽읍니다(읽습니다)
봅니까	읽읍니까(읽습니까)
보느냐	읽느냐
보아요	읽어요

그러나 시칭은 모든 종결형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다음과 같은 종결형 토가 붙을 때는 시칭은 나타나지 않는다.

예:

보아라	읽어라
보게	읽게
보십시오	읽으십시오
보자	읽자
보마	읽으마
보리다	읽으리다

2) 접속형에서 나타나는 시칭

용언의 접속형에서도 현재, 과거, 미래의 시칭 관계가 나타날 수 있다.

○ 동사의 예;

현재;	읽으므로	보므로
과거;	읽었으므로	보았으므로
미래;	읽겠으므로	보겠으므로

○ 형용사의 예;

현재;	맑으므로	희므로
과거;	맑았으므로	희었으므로
미래;	맑겠으므로	희겠으므로

이제 용언의 접속형에서 나타나는 시칭토를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시칭의 종류	동 사	형 용 사
현 재	○	○
과 거	았(었, 었)	았(었, 었)
미 래	겠	겠

접속형에서의 시칭은 동사나 형용사나 꼭 같으며 이들은 또한 종결형의 시칭과 기본적으로 같다. 즉 동사의 현재 시칭에는 아무런 토도 붙지 않는다.

그러나 시칭은 모든 접속형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동사에서 목적, 의도, 추측, 시간 등의 의미를 가지는 접속형 토가 붙을 때는 시칭이 나타나지 않는다.

예:	목적	보려	읽으려
	의도	보려	읽으려
	추측	보리니	읽으리니
	시간	보자	읽자
		보고	읽고

이 밖에도 (근지나, 근수록, 근망정……) 같은 토가 붙을 때에도 미래 시칭만은 나타나지 않는다.

1) 규정형에서 나타나는 시칭

용언의 규정형에서 현재, 과거, 과거지속, 미래의 시칭 관계가 나타날 수 있다. 여기서 과거 지속이란 이야기하는 순간보다 과거에 있던 어떤 순간을 기준으로 할 때 그 당시에 행동이 지속되었음을 나타내는 시칭이다.

○ 동사의 례;

읽	{	—는 책(현재)	보	{	—는 책(현재)
		—은 책(과거)			—ㄴ 책(과거)
		—던 책(과거 지속)			—던 책(과거 지속)
		—을 책(미래)			—ㄹ 책(미래)

○ 형용사의 례;

맑	{	—은 물(현재)	희	{	—ㄴ 꽃(현재)
		—던 물(과거 지속)			—던 꽃(과거지속)
		—을 물(미래)			—ㄹ 꽃(미래)

이 처럼 규정형에서 시칭을 나타내는 토는 따로 새로운 토가 붙지 않고 규정형 토 자체가 사용된다.

이제 용언의 규정형에서 나타나는 시칭을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시칭의 종류	동 사	형용사
현 재	는	ㄴ(은)
과 거	ㄴ(은)	
과 거 지 속	던	던
미 래	ㄹ(을)	ㄹ(을)

여기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동사와 형용사의 규정형 시칭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ㄱ) 과거 시칭이 형용사에는 없다.

ㄴ) 형용사에서는 현재 시칭에 동사의 과거 시칭과 같은 토를 사용한다.

ㄷ) 동사의 현재 시칭을 나타내던 토<는>은 형용사에는 없다.

형용사 규정형에는 토(는)이 없다는 사실과 <ㄴ(은)>이 과

거가 아니라 현재를 의미한다는 사실들은 동사와 형용사를 사용할 때에 주의를 돌려야 할 문제다.

례: 빛나다—빛나는 성과—빛난 성과(과거)…동사
 잘나다—×잘나는 사람—잘난 사람(현재)…형용사

※ 조선어의 시칭토는 겹쳐서 두 개 이상의 토가 함께 나타날 때도 있다.

이 때에 그 중 첫째 토 만은 시간의 의미를 나타내고 둘째 토는 태적 또는 양태적 의미를 나타낸다.

례: 책 읽었었다. } (과거 완료의 뜻)
 책을 읽었던 사람 }
 책을 읽었겠다 } (과거 추측의 뜻)
 책을 읽었을 사람 }

[연습 1] 다음의 문장에서 용언의 각종 유형(종결형, 접속형, 규정형)을 찾아내고 그가 어떤 시칭토로 쓰였는가 말하십시오.

성대한 출어식이 거행되었다. 지배인이 열렬한 연설을 하였다. 그의 뒤에는 수산물 가공 공장이 보였고, 출어 직장을 둘러싼 선박에는 노동자들이 가득히 올라 섰다. <동무들! 우리는 오늘부터 고등어 잡이에 들어 섭니다. 조선소 노동자들이 준 새벽, 그리고 이 훌륭한 그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조선 노동당의 지도와 전체 인민들이 우리에게 주는 성원에 보답하기 위하여 총결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연습 2] 다음의 빈 자리에 과거, 미래, 현재의 시칭토를 넣으시오.

가□다, 오□다, 쓰□다, 만드□다, 집□다, 춤□다, 덤□군,
 프르□군, 붓□군, 용감하□군, 좋□군,

[연습 3] 다음의 빈 자리에 과거, 현재, 미래 시칭토를 넣으시오.

잡□고, 접□고, 비□고, 만드시□고, 기쁘□고, 조용하□고,
 깊□고, 붓□고,

[연습 4] 다음의 빈 자리에 현재, 과거, 과거 지속, 미래 시칭토를 넣으시오(과거 시칭토가 오지 않는 것은 제외).

가□ 시라. 먹□ 밥. 살□ 집. 뛰□ 노루. 낮□ 언덕. 아프□ 손. 용감하□ 전사.

[**연습 5**] 다음의 단어가 형용사인가 동사인가

종결형과 규정형에 의하여 알아내시오.

좋다, 가늘다, 멀다, 싫다, 만나다, 자다, 부엌다, 흐
다, 곧다, 짹짹하다, 건설하다. 르

제 5 절. 존칭.

용언에는 존경을 나타내는 토도 붙는다.

예 : 선생님께서 숙제를 보시고 칭찬해 주시였다.

여기서 <보시고>나 <주시였다>에서의 <시>는 존경을 나타내
는 존칭토다.

즉 존칭이란 말하는 사람이 화제에 오른 사람에 대하여 존경
함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계층에서의 높인 말과는 다
르다.

예 :

↓
너 의 아버지를 오시라고 해라
↑

여기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말하는 상대방은 <너>기에 <해
라>라고 낮추는 계칭을 썼지만 <오>는 해동을 하는 사람은 <아버
지>이기에 <오시라>고 존칭토를 썼다.

이처럼 높인 말의 계칭은 이야기하는 상대방에 대한 존경이
지만 존칭은 행동의 주제, 즉 화제에 오른 대상에 대한 존경이
라는 점이 서로 다르다. 조선어의 일부 동사들은 존경을 나타낼 경
우에 어간에 존칭토를 붙이지 않고 전혀 다른 동사로 바꿔 쓰는
것도 있다.

예 : 자다——주무시다.

있다——계시다.

먹다——잡수시다.

고프다——시장하시다.

일반적으로 글에서는 존칭토를 쓰지않는 경우가 많다.

비교: 위원장 동지께서 이렇게 지적하였다(글).

위원장 동지께서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말).

[연습 1] 다음의 문장에서 존칭토를 찾아 내고, 그것이 누구에 대한 존경인가 말하시오.

가, 영욱이네 세 형제를 보시자 원수님께서는 그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살아 가는 형편을 또 다시 자세히 물으셨습니다. 그 다음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나, <저와 한 번 실지 같이 가 보시면 잘 아실 터인데요>

꼭 바위는 강 굽에게 이와 같이 열심히 주장하였다.

다, 누나가 아주머니께서 오신다지?

누나께서 아주머니가 온다시지?

[연습 2] 다음의 단어에 존칭을 표시하는 토<시>를 넣으시오.

웃기며, 가르치였다, 읽겠지만, 곱지만, 증명하련마는, 힘들다더라, 즐거웠다네,

[연습 3] 다음의 밑줄을 그은 단어의 존칭은 누가 누구를 존경한 것입니까?

<그 어른이 참 키가 크시다지요?>

<웬걸요, 성욱이 키쪼미. 뭘 크다십니까?>

<천둥이는 정직이의 말에 대꾸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연습 4], 다음의 합성어들에 존칭을 넣어보시오.

풀어 보다, 잡수어 보다, 넘어 가다

[연습 5] 다음의 문장에서 어느 것이 맞습니까?

아저씨는 성욱이를 만나자, <그래 요새 건강하시오? 당니까? 나? 저?>라고 물었다.

제 6 절. 피동형과 사역형.

용언은 피동형과 사역형을 가지는 일이 많다.

례: 아이가 젖을 먹는다.

쥐가 고양이에게 먹히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다.

여기서 동사 <먹는다>는 <먹히다>, <먹이다>로 바뀌어 쓰였다.

이때 <이>, <히>로 바뀌는 것은 <먹는> 행동을 하는 주체와 관련되어 있다.

즉 <먹히다>에서는 <먹는> 행동을 <취>가 스스로 하지 않으며 오히려 <고양이>한테 당하고 있다. 이것을 (<먹히다>)<먹다>의 피동형이라 한다.

그러므로 피동형이란 주어가 어떤 행동을 남한테 당하는 피동의 위치에 있음을 나타내는 형태다.

다음으로 <먹이다>는 <먹는> 행동을 <어머니>가 직접 하지 않으며 <아이>에게 시키고 있다. 이것을 (<먹이다>)<먹다>의 사역형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사역형이란 주어가 어떤 행동을 남에게 시키는 위치에 있음을 나타내는 형태다.

1) 동사에서 피동형과 사역형

피동형과 사역형은 동사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조선어에서 모든 동사가 다 피동형과 사역형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종류	원형	피동형	사역형
자 동 사	자다		재우다
타 동 사	잡다 먹다	잡히다 먹히다	먹이다
형 태		히	우, 이

우의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동사들 중에는 사역형과 피동형이 다 있는 것도 있다(먹다), 그러나 어떤 것은 어느 한 쪽이 없는 것도 있다(자다, 잡다).

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나타내는 형태도 꼭 같지 않으며 심지어는 피동형과 사역형의 형태가 꼭 같은 것도 있다.

이제 조선어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단어의 예를 들어 보기로 한다.

가, 모양이 다른 것

	피 동 형	사 역 형
먹다	먹히다	먹이다

쓰다	쓰이다	씩우다
뜨다	뜨이다	띄우다
끼다	끼이다	끼우다
운동하다	운동되다	운동시키다
수송하다	수송되다	수송시키다

ㄴ) 모양이 같은 것

	피동형	사역형
안다	안기다	안기다
날다	날리다	날리다
보다	보이다	보이다
엮다	엮히다	엮히다
씻다	씻기다	씻기다
알다	알리다	알리다

[참고] 아이가 어머니에게 안기다(피동형)

아이를 어머니에게 안기다(사역형).

동사들 중에서 피동형이나 사역형의 어느 하나만 있는 것도 있다.

ㄱ) 피동형만 있는 것.

바꾸다—바뀌다	짚다—짚이다.
뒀다—뒀이다	막다—막히다.
물다—물히다	팔다—팔리다.
누르다—눌리다.	찢다—찢기다
어우르다—어울린다	조르다—줄리다

ㄴ) 사역형만 있는 것

맞다—맞추다	벗다—벗기다
말다—말기다	넘다—넘기다
속다—속이다	불다—불이다
나라나다—나라내다	나다—내다
	놀다—놀리다

동사의 피동형은 자동사와 타동사에 많으며 동사의 사역형은 자동사와 타동사에 다 있을 수 있지만 특히 자동사에 많다.

이제 그의 대표적인 것을 보기로 하자.

ㄱ) 타동사의 피동형

짚다—짚이다	바꾸다—바뀌다
--------	---------

묻다—묻히다
잇다—잇히다
깔다—깔리다
뜯다—뜯기다

막다—막히다
밟다—밟히다
털다—털리다
빼앗다—빼앗기다

ㄴ) 자동사의 피동형

열다(열매가)—열리다 날다—날리다.

※ 라동사의 경우라도 그 피동형은 자동사와 같이 그가 나타내는 행동이 직접 다른 것에 옮겨 가지 않는다.

예: 눈이 쌓이다 물건이 바뀌다

길이 막히다 모래가 깔리다

ㄷ) 자동사의 사역형

눅다—눅이다
붙다—붙이다
오르다—올리다
숨다—숨기다

숙다—숙이다
눅다—눅히다
살다—살리다
자다—재우다

ㄹ) 라동사 사역형

보다—보이다
입다—입히다

먹다—먹이다
알다—알리다

※ 자동사의 경우라도 그 사역형은 라동사와 같이 그가 나타내는 행동이 직접 다른 것에 옮겨 간다.

예: 쇠를 눅이다 벽돌을 붙이다

벽돌을 올리다 아이를 재우다

동사들 중에는 피동형도 사역형도 없는 것이 있다.

예: 라동사 : 값다, 길다, 받다, 경탄하다, 사랑하다, 하다.

자동사 : 가다, 오다, 닿다, 쉬다, 엿키다, 고심하다.

그러나 이런 동사도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용언은 <~게 하다>와 같은 단어의 결합 방법에 의하여 사역형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예: 값게 하다, 길게 하다, 받게 하다, 경탄하게 하다, 사랑하게 하다.

하게 하다, 가게 하다, 오게 하다, 쉬게 하다, 웃게 하다, 건설하게 하다, 연구하게 하다, ……

<하다>가 붙어서 된 동사의 경우에는 <~당하다, ~받다>와 같은 단어의 결합 방법에 의하여 피동형의 의미를 표현할 수도 있다.

예: 주목하다……주목되다, 주목 당하다, 주목 받다.

존경하다……존경 받다,

체포하다……체포되다……체포 당하다.

2) 형용사에서의 피동형과 사역형

형용사에도 피동형과 사역형이 있다.

예: 얼굴이 붉어진다 (피동형)

농민들이 죽을 높인다(사역형)

형용사에는 <되다> <받다>, <당하다> <시키다> 등으로 이루어지는 형태는 없으며 보통 <~지다> <게 되다>, <게 하다>로써 나타난다.

ㄱ) 피동형

○지다:

걸어진다, 멀어지다, 사나워지다, 빨라지다, 강해지다, 풍족해지다, 대답해지다, 침착해지다.

○게 되다:

아름답게 되다, 굳세게 되다.

ㄴ) 사역형

○이, 히, 리, 우, 추,

예: 높이다, 붉히다, 불리다, (←패가 부르다). 절우다(←땅이 걸다). 낮추다.

○게 하다

예: 쉽게 하다, 풍족하게 하다, 아름답게 하다.

3) 피동형 사용에서 주의할 점.

어떤 글을 번역할 때에 피동형을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

[온 별관이 흰 눈으로 덮이었다.(피동형으로 썼음)

[흰 눈이 온 별관을 덮었다.(피동형으로 쓰지 않았음)

이것은 이야기하는 중심을 어디다 두고 말하느냐에 달렸으므로 약간의 차이를 가지나 실제 내용은 기본적으로 같다.

조선어에서는 피동형으로 된 문장이 덜 쓰인다. 그러므로 되도록 피동형으로 되는 문장을 피해야 한다.

예: 언어란 어느 계급에게 있어서나 무관심되지 않았다. (피동형)

어느 계급이나 언어에 대하여 무관심하지 않았다. (피동형으로 안 씀)

더우기 조선어에서는 비활동체의 명사가 이야기의 중심(주어)에 놓이는 피동문이 덜 쓰인다. 그러므로 이런 때는 되도록 그 표현을 바꾸는 것이 좋다.

예: 당의 호소를 받은 공장 노동자들에 의해서 내부 원천은 최대한으로 동원되고 있다. (피동형)

당의 호소를 받들고 공장 노동자들은 내부 원천을 최대한으로 동원하고 있다. (피동형으로 안 씀)

[연습 1] 다음의 형태의 단어들은 어떤 품사의 무슨 형인가 말하십시오.
벗기다, 말기다, 쌓이다, 꺾이다, 덮이다, 깨끗하다, 입히다, 열리다, 밀리다, 휩쓸리다, 신기다, 쫓기다, 늑이다, 끓이다, 식히다, 눅히다, 밝히다, 풀리다, 붉히다 숨기다, 재우다, 든구다, 썩히다, 증가시키다, 증가되다, 감동되다, 감동시키다. 증대되다, 증대시키다, 풍부해지다, 건강해지다.

[연습 2] 다음 형태의 동사에서 사역형으로 쓰인 문장의 테와 피동형으로 쓰인 문장의 테를 각각 하나씩 들어 보시오.

잡히다, 물리다, 입히다, 실리다, 들리다,

[연습 3] 다음 동사의 사역형을 말하십시오.

놀다, 삭다, 앉다, 살다, 숨다, 하다, 깨다(잠을) 들다, 솟다, 지연하다, 단축하다, 마르다, 울다.

[연습 4] 다음 동사의 피동형을 말하십시오.

나누다, 놓다, 달다, 접다, 깔다, 훑다, 담다, 열다(열매가), 꺾다, 밟다.

[연습 5] 다음 타동사의 피동형이 쓰인 문장의 테를 들어 보시오.

끼다, 묶다, 꺾다, 안다, 감다(눈을), 찢다, 알다, 엮다, 읽다.

[연습 6] 다음 글에 나오는 동사의 사역형 대신에 <~게 하다>를 사용하여 보시오.

<재미 있는 이야기를 하여서 온 방안 사람들을 웃기였다.>

[연습 7] 다음 글에 나오는 동사의 피동형 대신에 <~당하다>, <~받다>를 사용하여 보시오.

<홍익한 미제국주의 지배 밑에서는 인민들의 기본적 권리조차 말살되고 있다.>

제 7 절. 용언의 체언형.

체언에 용언형이 있는 것처럼 용언에도 체언형이 있다.

예: 박 동무가 왔음이 틀림이 없다.

금강산은 경치가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여기서 <왔음>이나 <아름답기>는 모두 동사나 형용사에 음이나 <기>가 붙어 다시 체언의 성격을 얻은 것이다.

이처럼 용언이 다시 체언의 성격을 가지게 된 형태를 **용언의 체언형**이라 한다.

용언의 체언형은 동사나 형용사 어간에 <ㅁ(음)>, <기>, <지>가 붙어서 이루어진다.

예: 꾸미다→꾸밈, 꾸미기, 꾸미지 } 동사
 읽다→읽음, 읽기, 읽지 }
 높다→높음, 높기, 높지 } 형용사
 밝다→밝음, 밝기, 밝지 }

이와 같은 <체언형>은 용언이면서도 한편 체언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용언에는 격토가 직접 붙지 않지만 <ㅁ(음)> <기>로 된 용언의 체언형에는 체언에서와 같이 격토가 붙는다.

ㄱ. 동사 } +ㅁ(음)
 형용사 }

예: 이 틀림 없다.
 의 합성 소리다.
 전우들의 웨침을 몰랐다.
 으로 새 힘을 얻었다.
 파 꼭 갈았다.

ㄴ. 동사 } +기
 형용사 }

- ㄴ, 모르면서도 남에게 물어 보□ 싶어 하는 것은 좋□ 않다.
 ㄴ, 8 일간 계속된 고문에도 굴하□ 않은 명직이는 끝끝내 조
 직의 비밀을 지켜 내었다.

[연습 3] 다음의 글에서 빈 자리에 적당한 격조를 넣으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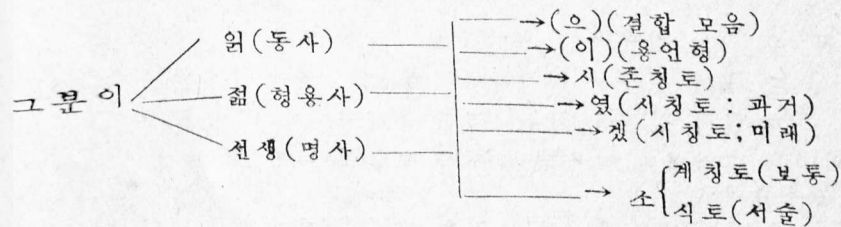
- ㄱ, 조속히 대책을 강구함□ 좋겠소.
 ㄴ, 편집부에서는 이 일을 곧 벽보에 실기□ 결정하였다.
 ㄷ, 나는 그 상어를 들어 보고 무거움□ 놀랐다.
 ㄹ, 조선은 경치가 아름답기□ 유명하다.

제 8 절. 용언에 붙는 토들의 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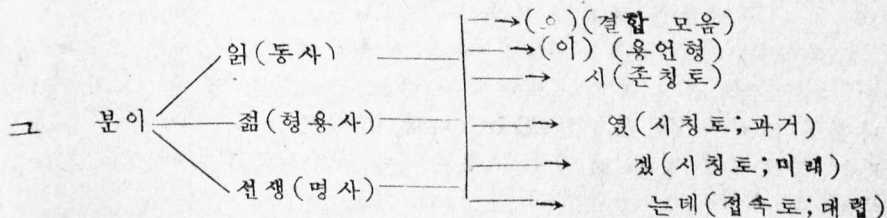
우에서 말한 모든 용언의 토들은 하나의 단어에 함께 나타날 수 있다. 이때 매개 토들은 제각기 일정한 자기의 자리를 가지
 ㄴ 있다.

이제 이 토들이 서로 맺는 관계를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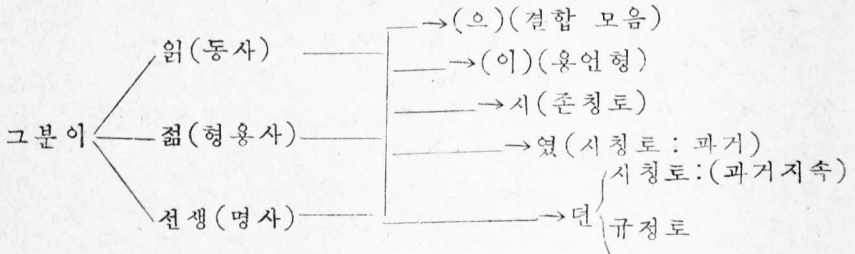
ㄱ. 종결형.



ㄴ. 접속형



C. 규정형



여기서 처음의 결합 모음(으)은 용언의 어간에 받침이 있는 경우에만 붙고 용언형(이)은 체언이 용언으로 될 때에만 붙는다.

우의 도표들에서 보면 종결형, 접속형, 규정형의 세 가지 경우에 매개 토들이 서로 맺는 관계는 일치하며 다만 마지막 토가 무엇인가에 따라 종결형 접속형, 규정형이 갈라짐을 알 수 있다.

용언에서 피동형과 사역형이 쓰이는 경우에는 용언 어간의 바로 뒤에(결합 모음 자리에) 피동형, 사역형의 형태가 들어간다.

- 예: 그 분이 신문을 읽히시었겠소?(종결형)
 그 분이 신문을 읽히시었는데 또 읽히랍니까?(접속형)
 그 분이 신문을 읽히시었던 학생입니다(규정형).

이상은 종결형과 접속형 규정형 토들이 다만 한 번씩만 나타나는 경우들이다.

그러나 이 세 개 류형의 토들은 경우에 따라 두 번 이상 겹쳐서 나타날 수 있다.

- 예: 나는 학교에 가러다.
 금강산은 경치가 매우 아름답다.

여기서 <가러다>는 <가려>라는 접속형에 <다>라는 종결형이 겹친 것으로서 본래 <가려고 한다(말한다)>는 말을 요약하여 나타낸 것이며 <아름답다>는 <아름답다>라는 종결형에 <다>라는 종결형이 겹친 것으로서 본래 <아름답다고 한다(말한다)>라는 말을 요약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처럼 조선어에는 남의 말을 전달하는 방식이 아주 간결하

고 문리 정연한 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 때 앞의 종결토에는 식은 나라나나 계칭의 차이는 나라나
지 않으며 뒤의 토에는 그것이 종결토인 경우에는 식도 계칭도
다 나타난다.

이제 이와 같은 결합 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ㄱ. 종결형+종결형.

례: 언제 간답니까?

놀러 가잔다.

ㄴ. 접속형+종결형

례: 어디 가렵니까?

그것도 환경에 따라서지요

ㄷ. 종결형+접속형

례: 힘을 합친다면 못할 일이 없다.

같이 가자니까 가지 않고

4. 접속형+접속형

례: 함께 떠나려다가 그만두었다.

집을 나서려는때 박 동무가 찾아 왔다.

5. 종결형+규정형.

례: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다.

같이 가자던 동무가 왜 여태 안 올가?

6. 접속형+규정형.

례: 그것은 끝까지 혁명에 충실하려는 태도다.

그는 하려던 일을 중도에 그만둔 태가 없다.

[연습 1] 다음 문장에서 용언을 찾고 그의 문법적 형태들을 분석하여
보시오.

ㄱ. 영옥이네 세 형제를 보시자 원수님께서서는 그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살아 가는 형편을 또 다시 자세히 물으셨습니다. 그
다음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물으시였습니다.

ㄴ. 앞으로 너희 형제들끼리 살아 가겠느냐?)

영옥이네 형제들이 초등 학원으로 가겠다는 말을 들으시자
원수님께서서는 9월을 기다릴 것 없이 5·1절이나 쇠고는 곧 가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口. 그리하여 그 후 동만으로 떠나신 부모님을 따라 나라를 찾기 전에는 다시 돌아 오지 않으려는 굳은 뜻을 품고 김 일생 원수님은 사랑하는 고향 만경대를 리별하셨던 것이다.

누구나 나서 자란 고향을 잊을 수 없다. 선조들의 백골이 묻혀 있고 사랑하는 부모 형제와 친척, 친우가 있으며 가지가지 아름다운 추억을 남긴 고향을 떠나는 원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절하셨겠는가 하기에 그이께서는 간고한 항일의 15 정상에 언제나 고향을 잊으시지 않으셨다.

[연습 2] <밝다>라는 단어에 <습니다>, <였>, <시><히>를 결합시켜 말을 만들어 보시오.

[연습 3] 다음 동사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문법적인 의미를 말하시오.

[참고]

읽	으	시	였	느	나
	결	존	과	의	낮
	합	거	시	문	춘
	모	칭	식	계	칭
	음	칭	칭	칭	칭

(미역을) 뜯으면서, 뜯을망정, 뜯겠으면, 뜯으시겠습니까? 뜯으시도록,

(고기가 많이) 잡히느냐,

(바다가) 그리워지겠습니다.

제 8 장.

관형사.

관형사란 새, 온갖, 모든, 여러 등과 같이 어떤 특징을 규정하는 형식으로만 나타내는 단어들을 말한다.

예: 새 교실, 온갖 방법, 전 세계, 모든 나라, 여러 동무, 딱 일, ...

우에서 밑줄을 그은 단어들은 (새, 온갖, 전, 모든, 여러, 딱) 다음에 오는 단어들의 특징을 규정하면서 항상 규정어로만 쓰이는 단어들이다. 이런 단어들을 **관형사**라 한다.

제 1 절. 관형사의 종류.

관형사는 그 의미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

1) 성질 관형사.

성질 관형사란 대상의 성질을 특징짓는 관형사이다.

예: **새**: 우리는 새 나라의 새 세대다.

딱: 딱 일이 생겨서 좀 늦었습니다.

별: 아주머니는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여니: 여니 때 같으면 몰라도 지금은 안 됩니다.

이까짓: 이까짓 바람이다 뭐요.

2) 분량 관형사.

분량 관형사란 대상의 수 또는 량의 범위를 갈라서 나타내는 관형사다.

예: **모든**: 모든 것은 우리들의 노력에 달려 있다.

여러: 여러 동무들의 사업에서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다.

온: 온 정신을 집중하여 연습 문제를 풀고 있다.

온갓: 온갓 힘을 조국에 바치자!

전: 전 세계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

각: 각 학급에서 한 사람씩 나오시다.

매: 매 사람마다 한 장씩 써 내시오.

제: 학습할 제 조건들이 갖추어졌다.

근: 근 3년 동안이나 연구한 것입니다.

단: 단 이들도 못 되어서 싹이 나기 시작하였다.

제 2 절. 관형사와 접두사의 차이.

관형사는 품사의 하나며 접두사는 한 단어의 내부를 분석할 때 얻을 수 있는 형태부의 한 종류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그 성질이 아주 다르다.

그러나 실제 언어 생활에서는 이것들이 혼돈되기 쉽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갈라 낼 줄 알아야 한다.

례를 들어 <외아들>에서 <외>가 관형사라면 <아들>과 띄어 써야 할 것이며 접두사라면 <아들>과 붙여 써서 한 단어로 잡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띄어 쓰기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이를 가르는 문제는 실천적 의의를 가진다.

7. 관형사와 다음에 오는 단어와의 사이에는 다른 단어가 들어 갈 수 있다.

례: 온 세계—온 인류의 세계

새 교실—새 아름다운 교실

그러나 접두사와 어근 사이에는 다른 단어들 끼우지 못한다.

례: 못사람(× 못...사람), 맨손(× 맨...손), 꿏고추(× 꿏...고추)

2. 관형사는 넓은 범위의 많은 단어와 결합할 수 있다. 그러나 접두사는 상당히 좁은 범위의 어근과만 결합한다.

례: 관형사: <온>—온 세계, 온 마을, 온 망안, 온 산, 온 나라...

접두사: <울>—울사과, 울벼, 울콩...

ㄷ. 발음 상에서도 관형사와 다음에 오는 단어와의 사이에는 약간의 휴식이 있지만 접두사와 어근 사이에는 휴식이 없이 한 단어로 발음한다.

례: 관형사: 맨 소나무

접두사: 맨발, 맨주먹.

[연습 1] 다음 문장에서 관형사를 찾고 그 종류를 말해 보시오.

ㄱ. 명경 동무는 비지땀에 온 몸을 적시면서도 아랑곳 하지 않고 뜬 눈으로 날을 밝혔다.

ㄴ. 모든 사람들은 새 생활을 창조하기 위하여 자기의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연습 2] 다음의 괄호 안에 다 적당한 관형사를 써 넣으시오.

[여느, 천, 탄, 새, 모든]

ㄱ. □ 국제 정세에 대하여 강연이 있었다.

ㄴ. □ 책도 몇 권 주시오.

ㄷ. □ 벽들은 그 열에 견디지 못합니다.

[연습 3] 다음의 밑줄을 그은 부분이 관형사인가 아닌가를 설명하시오.

강(추위), 되(풀이), 별(생각), 탄(기별), 맥(시간).

[연습 4] 다음의 관형사를 가지고 단문을 지어 보시오. 그리고 그 사이에 다른 말을 끼워 말이 되도록 하시오.

온갖, 여러, 단, 전.

제 9 장.

부 사.

부사란 매우, 자주, 높이, 더욱 등과 같이 어떤 행동의 진행 방식이나 어떤 상태의 정도를 나타내는 단어를 말한다.

례: 정말 멀리, 툇툇히, 훌륭히, 훨씬, 깊이, 잘, 오래, 벌써, 오히려, 출렁출렁...

제 1 절. 부사의 종류.

부사는 그 의미와 문장론적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

1) 상황의 부사.

상황 부사는 행동이나 상태의 상황을 설명하는 부사로서 문장에서 상황어로 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이 각종 의미를 가진 부사들이 포함된다.

ㄱ. 행동이 일어난 모양과 방법을 나타내는 것.

예: 깊이, 길이, 널리, 높이, 반가이, 속히, 급히, 은은히, 은근히, 절절히, 도로, 고루, 바로, 마주, 거꾸로, 비꾸로, 따로, 이루, 힘껏, 기껏, 정성껏, 나란이, 꼼꼼이, 날날이, 이래저래, 그러저러, 이리저리...

이와 같은 부사는 주로 동사와 관련을 맺는다.

ㄴ. 성질이나 행동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

예: 가장 지극히, 극히, 심히, 대단히, 아주, 전혀, 자못, 훨씬, 매우, 몹시, 무척, 더욱, 더, 더욱더, 좀더, 상당히, 여간, 꼭, 꽤, 세법, 약간, 조금, 좀, 별로, 덜, 이다지, 그다지, 이만저만.....

여기에는 정도가 더한 것을 나타내는 것과 덜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 있다. <가장, 지극히, 극히...>들은 정도가 더한 것을 나타낸다. (덜, 좀, 조금...)들은 정도가 덜한 것을 나타낸다.

이런 부사는 성질이나 행동과 관련되는 것이 많으므로 보통은 형용사 동사에 두루 관련을 가진다.

<지극히, 아주, 무척, 사뭇, 조금, 덜, 약간...> 등 대부분의 부사가 그러하다.

예. 그는 무척 기쁜 모양이다(형용사와)

그는 무척 뛰었다(동사와)

ㄷ. 행동이 일어난 시간을 나타내는 것.

예: 이미, 벌써, 이까, 방금, 금방, 곧, 앞으로, 있다가, 어느덧, 어느새,

이런 부사에는 이야기하는 순간을 기준으로 하여서 볼 때, 과거를 나타내는 것과 현재를 나타내는 것이 있으며 또 미래를 나타내는 것도 있다.

과거: 이미, 아까, 벌써.

현재: 방금, 금방.

미래: 앞으로, 있다가.

<이미>, <벌써>는 비교적 오래 된 과거에도 쓰인다. 그러나 <아까>는 보통 날이 바뀌지 않은 정도의 조금 전을 말한다. <방금>은 현재를 나타내지만 때로는 현재를 중심으로 하여서 아주 가까운 과거나 미래도 나타낸다.

예: 방금 왔습니다(과거)

방금 올 터인데요(미래)

<금방>은 (곧)과 함께 어떤 기준점에 아주 가까운 시간을 나타내는 수가 많다.

예: 가더니 금방 왔어,

가자 곧 돌아 왔어,

<앞으로>는 비교적 훨씬 미래에 속하는 시간을 나타낼 수도 있다. —그러나 <있다가>는 보통 날이 바뀌지 않은 범위에서의 미래를 말한다.

ㄷ. 행동이 일어나는 정도와 방향을 나타내는 것.

예: 멀리, 가까이, 곳곳이, 도처에, 점점이...

2) 접속의 부사.

접속의 부사는 주로 문장을 접속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부사로서 접속어의 역할을 한다.

예: 또, 또한, 혹은, 곧, 즉, 겸, 및, 하물며, 더구나, 도리어, 오히려, 고로...

이런 부사가 접속의 구실을 할 때는 병렬적으로 되는 것과 종속적으로 되는 것이 있다. 그리고 병렬적인 경우는 합동, 분리, 대립의 구분이 있다.

- **병렬**
 - 합동—또, 및, 겸, 또한, 곧, 즉…
 - 분리—혹은, 또는…
 - 대립—하물며, 더구나, 도리어, 오히려…
- **종속** 원인—고로

3) 양태의 부사.

양태의 부사는 어떤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사람의 태도를 나타내는 부사로서 문장에서 삽입어의 역할을 한다.

이런 부사는 문장에서 주로 삽입어로 쓰이는 부사인바, 말하는 사람이 문장 전체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과 같은 각종 태도를 나타낸다.

- 예: 물론, 결코, 정말, 사실, 과연, 정녕, (확실히)
 만약, 만일…(가정함)
 가령, 설사, 비록, 아무리(양보함)
 부디, 제발, 아모조록, 어서…(요구나 희망)
 설마, 대판질, 도대체, 글썽…(의문스러움)
 반드시, 꼭, 마땅히, 응당, (의무성, 필연성)

4) 부정의 부사.

부정의 부사는 행동되지 않거나 진행될 수 없음을 나타내는 부사다.

여기에는 《아니(안), 못》 등 부사가 있다.

- 예: 저는 아니(안)가겠습니다.
 단결한다면 못 할 일이 없습니다.

제 2 절. 의성—의태어.

부사 가운데는 의성—의태어가 있다.

의성—의태어란 어떤 소리나 동작 또는 상태의 특징을 직감적으로 본따서 나타낸 말이다.

예: 멍멍, 싱싱, 덜크덜크덜크덕, 흔들흔들, 거웃둥거웃둥, 짹짹, 사뿐사뿐…

의 성—의태어는 조선어에서 아주 풍부하게 발달되어 있다.

번쩍번쩍, 꾸글꾸글, 회끗회끗(시각)

뼈꿍뼈꿍, 땡땡, 우르릉(청각)

엇구수, 퀴퀴(후각)

시큼시큼, 달크므레(미각)

결깃결깃, 반들반들, 몽클(촉각)

이와 같은 의성—의태어는 아주 풍부한 형상성을 가지고 있다.

례: 바람이 휙휙 불어 온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온다)

일이 적적 되어 간다.

(일이 순조로히 되어 간다)

이 뿐만 아니라 사물 현상의 미세한 차이까지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차이를 구별하여 사용해야 한다.

이제 그의 사용에서 특징적인 것을 말하면 다음과 같다.

1) 소리, 동작 또는 어떤 상태가 한번 나타날 때:

례: 땡, 적, 땡, 반짝, 왈각, 와당탕...

이처럼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음절로 된 어음을 단 한 번만 사용한다.

2) 같은 소리, 동작 또는 상태가 여러 번 연달아 나타날 때:

례: 땡땡, 적적, 땡땡, 짹짹, 둥실둥실, 푸룻푸룻, 불긱 불긱, 중얼중얼, 방실방실, 즐즐즐.....

이처럼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음절로 된 어음을 두 번 이상 반복하여 나타낸다.

3) 비슷한 소리, 동작, 또는 상태가 동시에 어울려서 나타날 때:

례: 툭탁, 땡땡, 우락부락, 오롱조롱, 울긱불긱.....

이처럼 비슷한 음절끼리 어울려서 이루어진다.

이 밖에도 의성—의태어는 그 일부 어음이 바뀌면서 조금씩 의미를 달리하는 것이 많다.

례: 둥당둥당—땡땡땡땡—툭탕툭탕, 사분사분—사뿐사뿐—사뿐사뿐.

이것은 <ㄷ—ㅌ—ㄷ, ㅂ—ㅍ—ㅍ>의 차례로 자음이 바뀐 례

들이다.

여기서 순한 소리로부터 된소리, 된소리로부터 거센 소리로 갈수록 소리, 동작 또는 상태가 촉박하거나 심도가 강함을 나타낸다(그러나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반짝반짝(반더 불)—번쩍번쩍(번개 불)

깔깔(소녀의 웃음)—결결(어른의 웃음)

팔랑팔랑(기'발이)—펼렁펼렁(기'발이—)

환하다(날이—)—훤하다(날이—)

끄불끄불(길이—)—꾸불꾸불(길이—)

이것은 모음이 바뀐 예들이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모음은 일반적으로 <ㅏ—ㅑ>, <ㅓ—ㅕ>, <ㅗ—ㅛ><ㅜ—ㅠ>가 잘 어울린다. 그리고 모음이 바뀐 경우에 <ㅏ, ㅑ>의 소리는 작은 것, 밝은 것, 가벼운 것을 나타내며 정서적이며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반면에 <ㅓ, ㅕ, ㅗ, ㅛ>소리는 큰 것, 어두운 것, 무거운 것을 나타내며 강경하고 의지적인 느낌을 자아 내게 한다.

자음이 바뀌는 것과 모음이 바뀌는 것은 서로 엇섞일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의미의 차이들을 실제 언어 생활에서 잘 갈라써야 한다.

예: 땡땡—땡땡—렝렝—렝렝—땡땡—렝렝—땡땡—땡땡
—땡땡—땡땡—땡땡

잘잘—잘잘—질질—질질—줄줄—줄줄—줄줄—줄줄—질질
—질질.

[연습 1] 다음의 문장에서 부사를 찾아 내고 그의 종류를 말해 보시오.

7. 자동차는 진달래 살구꽃이 활짝 피고 버드나무들이 뽕뽕히 들어 선 어느 정원으로 들어 섰습니다.

8. 원수님께서서는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에 대하여 자세히 물으시고 당에서는 아이들을 위하여 고운 천을 많이 짜고 신발도 더 많이 만들게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9. 그러나 아직 나이 어린 영옥이는 원수님께서 왜 갑자기 동물원 이야기를 물으셨는지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10. 제발 이 일을 멈추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버지의 살을 다라도 좋으니 하수에게 붙여 주십시오. 아버지는 다시 한번 되쳐었다. 그리고 고개를 번쩍 쳐들고 학생의 손을 힘껏 잡아 흔들었다.

[연습 2] 다음 문장의 빈 자리에 다음의 부사를 적당히 가려서 넣으시오.

높이, 혹은, 한결, 이미, 더욱, 졸졸

아침 노을이 길이면서 푸른 하늘이 □□ 드러나기 시작했다.

소슬한 바람이 진홍빛 단풍'잎을 □□ 질게 물들이며 어디서나 무르익은 곡식 냄새가 풍겼다. 벼 가을은 □□ 시작되었다.

[연습 3] 다음의 외성-외태어 중에서 적당한 것을 골라서 빈 자리에 넣으시오.

△ 도란도란, 소근소근, 중얼중얼,

ㄱ. 긴장된 얼굴로 귀 가까이에 대고 무슨 말인지 □□□□ 지껄었다.

ㄴ. 온 가족들이 저녁 상에 둘러 앉아 □□□□ 이야기를 하여 즐겁게 식사를 한다.

ㄷ. 무엇이 마땅치 않은 모양이었다. 령감은 혼자서 □□□□ 지껄이면서 밖으로 나왔다.

[연습 4] 웃음과 관련된 외성-외태어를 다섯개 이상 들어보시오.

[연습 5] 다음의 부사를 가지고 단문을 지어보시오.

좀더, 너무, 날날이, 여전히, 끝내.

제 10 장.

감 동 사.

감동사란 아, 글썄, 아차 등과 같이 말하는 사람의 느낌, 요 구 등을 직감적으로 나타내는 단어를 말한다.

예: 오, 조선! 천리마의 나라여!

자, 이걸 가지고 가지오.

헛, 조용하시오.

감동사는 조선어에서 아주 풍부하게 발달되어 있다.

제 1 절. 감동사의 종류.

감동사는 의미로 보아서 아래와 같이 나눈다.

1) 감정을 나타내는 것.

아, 오, 어, 야, 아차, 에그머니, 예구, 아빨사, 피, 흥,
헛, 후유, 얼씨구나……

이런 것들은 기쁨, 반가움, 놀라움, 두려움, 아까움, 슬픔,
우스움, 미움, 부끄러움, 등 여러 가지 감정을 나타낸다.

례: 아, 이게 누구야?

오, 너였구나.

아이구, 꽤 무거운데.

이키, 손을 배였구나.

체, 지도 모르면서!

예라, 그만두겠다.

원,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아차, 책을 두고 왔구나.

에그, 창피해타.

에, 부끄러워!

2) 요구를 나타내는 것.

자, 아서, 옛다, 여보, 여보집시오.

헛, 이라, 어기어차, 영차……

례: 자, 이길 가지구 가거타.

아서, 그럼 못 썩.

옛다, 가져타.

여보, 여기 좀 오우!

헛, 누가 온다.

이봐, 내 말 좀 들어!

이라, 썩 썩(소 모는 소리)

3)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것.

예, 암, 원, 아무렴, 오냐, 응, 그래, 아니, 천만에……

례: 예, 같이 가겠습니다.

응, 나도 가.

오냐, 사주마.

암, 오구말구.

아무렴, 어떤 젊은이 타구!

그럼, 아주 가까이서 봤어.

그래, 오지.

미안합니다. 원 천만에

이 부류의 감동사들은 이야기하는 사람의 상대방에 대한 사회적 관계에 따라 어느 정도 구별들이 있다.

ㄱ. 높힐 자리: 예, 글세 을시다. 아닙니다.

ㄴ. 보통 자리: 예, 그래요, 아니요, 그래, 천만에.

ㄷ. 낮출 자리: 응, 오냐, 암, 아니다. 그래, 천만에……

제 2 절. 감동사의 억양.

감동사는 쓰이는 장면과 문맥에 따라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감정과 여러가지 태도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러므로 감동사를 사용할 때는 특별히 억양에 주의해야 한다.

례: 아, 네가 왔구나!(반가움).

아, 저게 뭐가?(놀라움).

아, 나도 기사가 될 수 있겠구나(기쁨).

아, 언제나 다시 만나려는지(섭섭함).

아, 좀더 일찍 왔더라면(유감).

아, 이젠 다 틀렸군, (실망).

[연습 1] 다음의 문장에서 감동사를 찾고 그의 종류를 말하십시오.

ㄱ. 에그머니, 저게 무얼가?

ㄴ. 체, 별 일을 다 보겠네.

ㄷ. 그만 가거라, 응?

ㄹ. 예, 말씀 대로 하겠습니다.

[연습 2] 다음의 글에서 밑줄을 그은 부분과 뜻이 가까운 감동사를 가려서 대진 사용하여 보시오.

ㄱ. 하지 말아라, 그러면 못 쓴다.

ㄴ. 굉장하구나, 정말 상품이 많기도 쌓였구나!

ㄷ. 깜짝 놀랐구나, 이게 무엇일가?

[연습 3] 다음의 감동사 중에서 적당한 것을 빈 자리에 넣으시오.
오냐, 예, 응,

ㄱ. <잘아버지!><[] 왜 그러니?>

ㄴ. <애, 이삼 일 내에 우리 마을에 또 프락포르가 온다지?>
<[], 바로 온다나 봐>

ㄷ. <영숙 동무, 피마잡을 치고 있지요?> <[], 많이 치고
있습니다>

[연습 4] 다음의 감동사를 넣어서 단문을 지어 보시오: 오오, 그럭,
아서.

[연습 5] 감동사 <야>가 기쁨, 슬픔, 놀람, 반가움, 섭섭함 등을 나타내는 경우의 예문을 들고 그것을 발음하여 보시오.

제 3 편

문 장 른

제 1 장.

문장과 문장 종류.

제 1 절. 문장이란 무엇인가.

어떤 생각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려면 그 생각을 몇 개의 토막으로 끊어서 한 토막씩 이야기 하여 간다.

○가십니까?

○조선은 아름답다.

○투사는 피곤을 모른다.

○대동강의 얼음이 풀리기 시작한다.

○공화국 북반부는 우리 혁명의 기지이다.

위의 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 한개의 단어, 두 개의 단어, 세 개의 단어, 네 개의 단어, 다섯 개의 단어로서 각기 완결한 하나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다. 즉 우에서는 다섯 개의 내용을 이야기한 것이다. 즉 하나의 완결된 사상은 하나의 단어로써, 혹은 두 개 이상의 단어로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장이란. 이와 같이 한 개의 단어 또는 몇 개의 단어들 이 려 연결되어 완결된 하나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문장의 마지막에는 종결도가 붙으며 문장을 글로 썼을 때에는 그 끝에 반드시 《●》《?》《!》 등의 부호를 쓴다.

제 2 절. 문장의 종류.

1) 모든 문장들은 이야기하는 목적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나

눌 수 있다.

서술문, 의문문, 권유문, 명령문, 감동문,

ㄱ) 서술문, 어떠한 사실, 현상 또는 사건을 알려 주는 문장이다.

○공화국 북반부는 사회주의 꽃동산으로 되었다.

○우리 아버지는 제강소의 로동자입니다. •

서술문은 보통 서술식의 형태로 끝난다. 서술문의 어조는 첫 부분에서는 낮고 가운데로 갈수록 차차 높아지며 끝에서는 조용히 낮아진다.

○김 동무는 어제 평양에 도착하였습니다.

서술문과 서술문 사이에는 휴식이 온다.

ㄴ) 의문문. 어떤 사실을 물어 보거나 의문을 제기하는 문장이다.

○동무는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원입니까?

○너는 김 일성 원수님의 유격대를 직접 보았느냐?

의문문에는 의문을 제기하였으나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의문문이 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경치입니까?

○그 이의 전사들에 대한 깊고도 뜨거운 사랑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의문문은 보통 의문식의 형태로 끝난다. 의문문에서 어조는 보통 마지막 부분이 높아지며 또는 자기가 의문을 제기하는 단어에서 높아진다.

김 동무는 오늘 출발합니까?(언제)

김 동무는 오늘 출발합니까?(무엇합니까).

그러나 의문문이라 해서 반드시 의문식의 형태로 끝나지 않는다.

어더?

대동강?

ㄷ) 권유문. 어떤 행동을 함께 수행할 것을 권유하는 문장이다.

○모두다 기술을 배웁시다.

○여러분, 혁명을 위하여 우리와 함께 싸웁시다.

권유문은 권유식의 형태로 끝난다. 그러나 모두 권유식의 형태로 끝나지 않는다.

○ 자, 학교에 가지.

권유문의 어조는 권유하는 단어에서 가장 높다.

적명을 위하여 우리와 함께 싸웁시다.

적명을 위하여 우리와 함께 싸웁시다.

적명을 위하여 우리와 함께 싸웁시다.

㉒) 명령문. 어떠한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문장이다.

○ 이 책을 읽으시오.

○ 미체는 남조선에서 당장 물러가라!

명령문은 보통 명령식의 형태로 끝난다. 그러나 반드시 이러한 단어로 끝나지 않는다.

○ 모두다 공산주의를 향하여 앞으로!

○ 전투 준비!

○ 어깨 총! 앞으로 갔!

명령문의 어조는 보통 문장 전체가 높으며 그리고 빠르다.

㉓) 감동문. 이야기하는 사람의 강한 감정을 나타내는 문장이 서술문, 의문문, 권유문, 명령문에 이야기하는 사람의 강한 감정이 표현될 때 이 문장들은 감동문으로 된다.

○ 조선은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

○ 어찌 조국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 우리는 오늘부터 김 일성 장군부대에 들어가 싸우자!

○ 미제국주의자들을 타도하라!

감동문은 보통 감탄부호 <!>로써 표현된다.

2. 문장의 어조.

단어의 음절들 사이에 높기와 길이의 차이가 있는 것과 같이 문장에는 그것이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인가에 따라 문장의 첫머리, 중간, 끝 등에 있어서 높기와 길이가 여러 가지로 달라진다.

례를 들어,

(1) (나는) 학교에 가요. (긍정의 어조).

(2) (누가) 학교에 가요? (의문의 어조).

(3) (어서) 학교에 가요! (명령의 어조).

(4) (함께) 학교에 가요. (권유의 어조).

에서 (1)의 문장은 <나는 학교에 간다>는 뜻을 나타내는 문장으로

로서 뒤'부분인 <가요>를 높이지도 않고 낮추지도 않는 보통 높
이로 발음한다. (2)의 문장은 <학교에 가는가?>하는 의문을 나
타내는 문장으로서 뒤'부분을 높이 발음한다. (3)의 문장은 학
교에 가라고 명령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문장의 뒤'부분을 약간 높
이면서 짧게 끊는다. (4)의 문장은 <같이 학교에 가자>고 권유하
는 뜻을 가진 문장으로서 뒤'부분을 높이지 않고 짧게 끊는다.

이와 같이 똑 같은 문장이라도 그것을 발음할 때의 여러 가
지의 높이와 길이의 차이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2) 모든 문장은 그 구성에 따라 단일문과 복합문으로 나눌
수 있다.

단일문이란 다만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 문장을 말한다.

○ 나는 대학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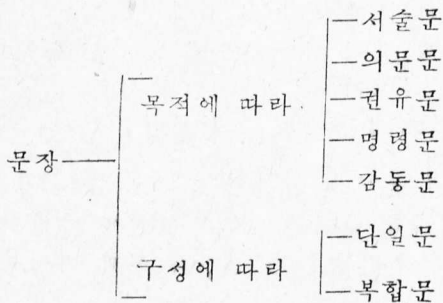
○ 노동자들은 적선의 불길을 높이고 있다.

단일문은 만약 그 이상 나누면 문장으로서의 특성을 잃는다.

복합문이란 두 개 이상의 단일문이 련결되어서 크게 하나의
문장을 이룬 것이다.

○ 꽃이 피고 새가 운다.

○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으므로 하여 오늘과 같은 천리마
대 진군이 이루어진 것이다.



제 2 장.

문장에서 단어들의 연결 방식.

문장은 그것이 단 하나의 단어로만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이 두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단어들은 문장을 이룰 때 어떠한 형태를 갖추고 나타난다. 이리하여 문장은 문법적으로 형태를 갖춘 단어들의 연결로써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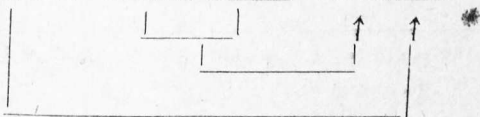
단어들의 연결이란 문장을 이루기 위하여 단어들이 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일정한 순서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 조선 인민은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였다.

위의 문장은 《조선 인민》《위대 하다》《승리》《쟁취하다》 등 네 개의 단어로써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은 서로 연결되기 위하여 일정한 토를 갖추고 있다. 《인민+은》《위대하+니》《승리+를》《쟁취하+였다》.

위의 문장은 일정한 토를 가지고 연결된 네 개의 단어 결합으로서 하나의 문장을 이루고 있다.

조선 인민은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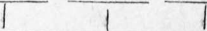


그런데 단어들이 연결될 때에는 모두 같은 방식으로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 즉 병렬적인 방식과 종속적인 방식으로 연결된다.

1) 병렬적인 연결.

병렬적인 연결이란 단어들이 서로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연결되는 방식이다.

○ 공산주의적으로 일하며 배우며 생활하자.



○ 기쁘고 즐거운 나의 일터는 얼마나 좋은가,

병렬적 연결은 토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다(이 때는 매 단어 사이에 받침을 찍는다).

○ 씨름에서는 노래, 춤, 연극을 준비하고 있다.

2) 종속적 연결.

어떤 단어가 다른 단어에 종속되어 있는 연결 방식을 종속적 연결이라고 한다. 이 때 한 단어는 다른 단어를 설명하면서 의존되어 있으며 다른 단어는 자립적이다.

○ 로동자들이 우리의 교과서를 많이 찍는다.

우의 문장의 연결 방식을 보면

1) 로동자들이 찍는다

2) 우리의 교과서를

3) 교과서를 찍는다

4) 많이 찍는다

즉 로동자들이 우리의 교과서를 많이 찍는다

우의 레문에서 《찍는다》는 《로동자들이》에 종속되었고 《교과서》는 《찍는다》에 종속되었다.

종속적 연결은 보통 토로 표현된다. 그러나 토가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다.

○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실로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 아름다운 조국이어! 영원히 번영하라!

[연습 1] 병렬적 연결과 종속적 연결 방식으로 된 문장을 각각 두 개씩 지으시오.

[연습 2] 다음 문장들에서 단어 연결 방식을 밝히시오.

1. 우리 나라의 모든 곳에서 기적이 창조되고 있다.

2. 장성하는 민족 해방 운동을 막을 자는 이 세상에 없다.
3. 천리마 기수들은 당과 수령 앞에 언제나 충실한 붉은 전사들이다.
4. 그들은 우선 자기들이 사는 기숙사를 깨끗하게 청소할 것을 결의했다.
5. 평양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6. 우리의 도시와 마을은 변하였고 생활은 흥겨워진다.

제 3 장.

문장 성분.

제 1 절. 문장 성분이란 무엇인가?

문장은 보통 두 개 이상의 단어나 또는 단어 결합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이루어진다.

문장성분이란 문장 속에서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 일정한 질문에 대답하는 단어 또는 단어 결합을 말한다.

○ 어제 우리는 웅장한 평양 대극장을 구경하였다.
이 문장에서 단어들은 다음과 같이 결합되어 있다.

어제 → 구경하였다.

우리는 ← 구경하였다.

웅장한 → 평양 대극장을

평양 대극장을 → 구경하였다.

이 경우에 매개 단어들에 대한 질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어제 — 언제?

우리는 — 누가?

웅장한 — 어떠한?

평양 대극장 — 무엇을?

구경하였다 — 무엇하였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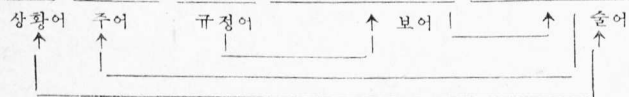
이 문장에서 모든 단어들은 각기 다른 단어와 연결되어 있으며 또 일정한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문장 성분이다.

그런데 다섯 개의 단어는 그의 결합 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꼭 같은 문장 성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문장 성분으로 된다. 여기에 따라 여러 종류의 문장 성분으로 나누인다.

그런데 조선어의 문장 성분에는 어떠한 문장 성분이 있는가.

조선어의 문장 성분에는 **주어, 술어, 보어, 규정어, 상황어** 다섯 가지가 있다.

어제 우리는 웅장한 평양 대극장을 구경하였다.



그러나 문장에는 문장 성분이 아닌 단어들도 있다.

○ 김 동무, 어제 우리는 웅장한 평양 대극장을 구경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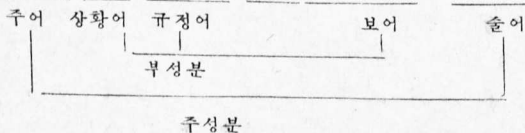
○ 아, 동해 바다는 얼마나 아름다우ng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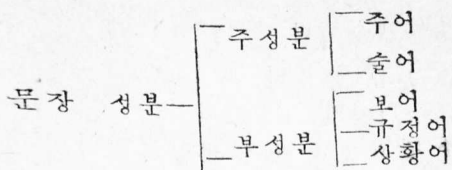
우의 문장들에서 《김 동무》, 《아!》 등은 문장에 다른 단어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아무런 질문도 할 수 없다. 이런 것을 독립적 문장 성분이라 한다.

제 2 절. 문장의 주성분과 부성분.

조선어의 문장 성분에는 다섯 개의 성분이 있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의 문장 성분에는 보다 기본적인 중요한 성분이 있고 또 부차적인 성분이 있다. 이 기본적인 중요한 성분을 **주성분** 이라고 하고 부차적인 성분을 **부성분** 이라고 한다. 다섯 개의 성분 가운데서 주어와 술어는 주성분으로 된다. 보어 규정어, 상황어는 부성분으로 된다. 부성분들은 반드시 주성분의 어느 한 성분과 이리저리하게 결합하면서 그를 설명하여 준다.

우리는 어제 웅장한 평양 대극장을 구경하였다.





문장은 주성분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 우리는 전투원이다.

그러나 보통 부성분으로서는 문장을 이루지 못한다.

제 3 절. 주어와 그의 표현.

주어란 문장에서 다른 성분에 문법적으로 의존되어 있지 않는 성분이며 술어의 설명을 받는 대상을 나타내는 주성분이다.

○ 이 로동자가 어제 저녁 모란봉 극장에서 훌륭하게 노래 불렀다.

위의 문장에서 《로동자》는 다른 성분인 《이》와 《불렀다》 등과 각각 문법적으로 련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로동자》는 다른 성분 《이》와 《불렀다》에 의존되어 있지 않고 그들의 설명을 받는다. 즉 술어 《불렀다》의 설명을 받는 대상으로 되고 있다. 따라서 《로동자》는 주어이다.

주어는 《무엇이?》 《누가?》 《몇이?》 등의 물음에 대답한다.

○ 김 동무가 학습과 로동에서 항상 모범이다(누가?)

○ 프락도르가 전야로 달린다(무엇이?)

○ 셋이 적 화점을 까부시는 습격 전투에 참가하였다(몇이?)

주어의 표현

주어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1, 주격로 《-가, (-이)》(명사, 대명사, 수사)에 의하여 표현 된다.

○ 적명의 승리가 보인다.

○ 항일 빨찌산들이 보천보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 우리가 동무들을 방조하겠습니다.

○ 둘에서 하나를 빼면 하나가 남는다.

ㄴ, 도움토 《-는(一은)》에 의하여 표현된다.

○ 나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고 충을 들었다.

○ 조국은 생명보다 귀중하다.

ㄷ, 도움토 《도》 《조차》 《께서》 《이런》 《부터》 《까지》 《마저》 《만》 등이 첨가되어 표현된다.

○ 동무들도 이번 전투에서 정말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 아버지께서 재미 있는 이야기를 하여 주었습니다.

ㄹ, 토 없이 표현된다.

○ 우리 한번 용감하게 싸웁시다.

○ 너 좀 가 보아라

ㅁ, 위격토 《에서》가 어떤 집단적 조직체의 뜻을 나타내는 단어와 결합될 때

○ 오늘 우리 대학에서 이겼다.

○ 당과 정부에서 우리 농민들에게 땅을 주었다.

[연습 1] 다음 문장에서 주어를 찾고 그것이 어떤 품사의 어떤 격으로 표현되었는가를 말하십시오.

ㄱ, 경찰에서 지주놈들을 도우려 나섰다. 그리고 그들은 온 부락을 싸 다니며 농조 선진원들을 탄압하려 들었다.

ㄴ, 때가 되면 령이 내리고

령만 내리면

성문이 좌악 열리고

성문만 열리면

용사들이 벼락 같이 쏟아 나오고

용사들만 쏟아 나오면

이 땅에 해방진이 일어 난다고

왜놈들을 쳐부시리라고

ㄷ, 조국 통일 의 새벽은 밝아 오고야 말 것이다. 그 날이 오면 어찌 나만 기쁘겠는가! 남녘 땅에 계시는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도 기뻐하시리라.

[연습 2] 다음 단어들을 주어로 만들면서 문장을 지으시오.

우리 대학, 다섯, 최우등생.

로동을 사랑하는 것, 민족 해방 투쟁, 너조차, 우리도, 나까지, 동생만

제 4 절. 술어와 그의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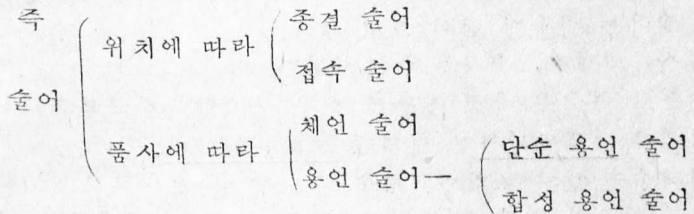
1) 술어.

문장에서 주어(主語)를 설명하는 주성분(主成分)을 말한다. 술어는 《무엇이냐?》 《누구나?》 《얼마냐?》 《어떠하냐?》 《무엇하느냐?》 등의 물음에 대답한다.

- 조선 인민은 천리마의 기세로 진진한다(무엇하느냐?)
- 저 분이 저의 아버지입니다(누구나?)
- 대동강은 아름답다(어떠하냐?)
- 우리 집에는 대학생이 세 명이다(얼마냐?)
- 당은 우리의 어머니며 심장이며 뇌수이며 기'발이다(무엇이냐?)

술어는 그가 문장에서의 위치에 따라 **종결 술어**와 **접속 술어**로 나누며 술어를 표현하는 단어가 어떤 품사인가에 따라 **체언 술어**와 **용언 술어**로 나누인다.

또한 용언 술어는 그의 구성에 따라 **단순 용언 술어**와 **합성 용언 술어**로 나누인다.



2) 술어의 표현.

가. 종결 술어와 접속 술어.

종결 술어란 하나의 문장을 끝 맺는 술어를 말한다.

접속 술어란 하나의 단일문의 술어가 종결되지 않고 다른 단일문과 연결될 때 그 술어를 접속 술어라고 한다.

○ 밤은 깊었으나 학습에 열중하고 있는 그들의 방에서는 불이 아직 꺼지지 않고 있다.

종결 술어는 종결토르씨 표현되며 (H니다, 는 군요, 네, 는 군, 니다, 터라 H니까? 는지, 나요, 근가요? H시오 H시다) 등 접속 술어는 접속토르씨 표현된다(코, 며, 고서, 면서, 아, 아서, 니, 니까, 지만, 건만, 거나, 든지, 무료, 러, 려고)

○ 그는 어부의 손자였으며 농민의 아들이었다.

○ 우리는 화점을 까부시고 고지 우에 기'발을 꽂읍시다.

[연습 1] 다음 문장들에서 술어를 찾고 종결 술어인가 접속 술어인가를 말하십시오.

1, 우리는 노동당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 시대의 특징은 창조와 기적, 기쁨과 행복, 생활의 광만으로 충만된 시대이다.

2, 남녘 땅은 오늘날 미제의 식민지로 변하였고 남녘 땅 우리 형제들은 갖은 억압과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루 속히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우리 형제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야 하며,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북반부의 민주기지를 각 방면으로 강화하여야 합니다.

L, 체언 술어와 용언 술어.

체언 술어 체언 술어란 명사, 수사, 대명사로써 표현된 술어를 말한다.

체언 술어는 다음과 같이 표현 된다.

① 명사, 대명사, 수사로써 표현된다.

○ 백두산 부근은 유격 활동에 매우 중요한 지대였습니다.

○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모란봉입니다.

○ 성적증을 펼쳐 보았다. 점수는 모두 《5》였다

○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을 잘 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과업들 중의 첫째다.

② 체언의 용언형 《一口(입)》으로 표현된다.

○ 기상 시간은 다섯시임

○ 그는 모범 전투원임.

○ 오늘은 휴일임

용언형에 의한 술어의 표현은 보통 구두어에서는 사용하지 않으며, 일기, 공식 문건 등 문체의 간결성을 요구하는 서사어에서 많이 사용한다.

③ 아무런 토 없이 표현 된다.

○ 이 형태의 술어는 특수한 경우에 쓴다. 특히 시, 논문의 표제에서 많이 쓴다.

○ 당이여, 그대는 샘물.

그대는 끊임 없이 샘솟는 위대한 샘물의 원천

○ 우리는 삼천만 인민의 아들딸.

○ 《로동당의 조직 사상적 강화는 우리 승리의 기초》

[연습 1] 다음의 문장에서 체언 술어를 찾아 내고 그것이 어떤 품사로 표현되었는가를 말하시오.

1) 우리들이 밀영에 도착한 것은 벌써 새벽이었다.

2) 젊었을 때 그는 밤낮을 헤아리지 않고 공부만 할 뿐이었다.

3) 협동 농장 관리 위원장이 저 분이십니다.

4) 이 전투 가방은 누구의 것입니까?

5) 공화국 영웅 상봉' 모임 장소는 대학 강당임.

○ 열의 절반은 다셋이다.

○ 어제 동무를 찾아 간 친리마 작업반장이 바로 그였습
니다.

[연습 2] 다음의 문장들에서 접선의 부분을 적당한 체언 술어로 보충하시오(뒤에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1. 우리는 씩씩한 공화국의……

2. 라후한 성적은 조국과 인민 앞에 진……

3.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은 청년들의……

4. 나의 조국은……, 이는 나의 생명보다 귀중한 것이다.

5. 조국 보위는 공화국 인민의 영예스러운……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다, 의무다, 유일 조직이다, 소
년이다).

[연습 3] 《미제는 전 세계 인민의 칠천지 원수다》라는 제목으로 작문을 짓고 거기에서 체언 술어를 지적하시오.

용언 술어.

용언술어란 동사 또는 형용사로써 표현된 술어를 용언 술어라고 한다.

용언 술어에는 단순 용언 술어와 합성 용언 술어가 있다(간단히 합성 술어, 또는 단순 술어라고도 한다).

용언 술어는 그가 몇 개의 단어로 이루어졌는가에 따라 단순 용언 술어와 합성 용언 술어로 나눈다.

단순 용언 술어는 하나의 단어로 이루어진 용언 술어를 말하며 합성 용언 술어는 여러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술어를 말한다.

○ 우리는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쌍마로 전진한다.

○ 로동자들은 새해에 들어 서면서 더욱 더 증산 열의에 불
라고 있네.

우의 예문에서 《전진한다》는 단순 용언 술어이며 《들어 서면서》 《불라고 있네》는 합성 용언 술어이다.

합성 용언 술어에서, 두 단어들은 병렬적으로 결합하거나 또는 종속적으로 결합한다.

합성 용언 술어를 이루는 용언들이 그 의미에 있어서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결합할 때 이것을 병렬적인 결합이라고 한다.

○ 나는 진천 박물관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의 야수적 만행을 직접 보고 왔습니다.

우의 예문에서 합성 용언 술어 《보고 왔습니다》에서 단어《보다》와 《오다》는 완전히 그 의미상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결합되어 있다.

조선어에는 이러한 병렬적 결합 형식의 합성 술어가 많다.

먹고 가다, 들고 가다, 가지고 오다, 잡아 가다, 꺾어 오다,
보고 오다.

합성 용언 술어를 이루는 용언들 중 하나가 의미상 다른 것에 의존하는 결합 형식을 종속이라고 한다. 이 때 뒤에 오는 용언은 본래의 의미가 희미하여지고 보다 많이 문법적 의미를 나타낸다.

○ 나는 오늘까지 소설 《두만강》을 완전히 읽어 버렸다.

합성 술어 《읽어 버렸다》에서 뒤에 오는 용언 《버리다》는 본래의 뜻을 잃어 버리고 《읽다》는 행동이 완전히 끝났음(마지막—페이지까지 모두 읽었다)을 나타내는 과거 완료의 문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 전설장으로 자동차가 달리고 있다.

합성 용언 술어 《달리고 있다》에서 뒤에 오는 용언 《있다》는 자기 본래의 뜻을 잃어 버리고 동작이 현재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현재 지속의 문법적 의미만을 가진다.

이 외에도 합성 용언 술어에서 다른 용언의 뒤에 붙어서 문법적 변화를 나타내는 용언으로서는 《말다》《내다》《가지다》《가다》《하다》《보다》《주다》《드리다》《바치다》《싫다》 등이 있다.

말다—가고 말다, 먹고 말다, 뛰고 말다, 하고 말다, 잃고 말다, 서고 말다, 떠나고 말다……

내다—이저 내다, 걸더여 내다, 빼여 내다, 찾아 내다……

가다—되여 가다, 먹어 가다, 지어 가다, 세워 가다, 빼여 가다……

보다—먹어 보다, 물어 보다, 말해 보다, 뛰여 보다, 생각해 보다, 읽어 보다, 짚아 보다, 닦아 보다, 길어 보다, 앉아 보다……

주다—보여 주다, 말해 주다, 먹여 주다, 읽여 주다, 받아 주다……

[연습 1] 다음 문장들에서 단순 용언 술어와 합성 용언 술어를 지적하십시오.

1, 출발 준비를 갖춘 어선들이 가득한 부두는 이른 새벽부터 활기를 띠었다. 정각 여섯시 출발을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배를 기다리던 어선들은 일제히 바다로 향하여 달려 갔다.

2, 지난해 어로 계획을 성과 있게 달성한 이곳 전체 로동자들은 이미 달성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인민들에게 보다 많은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꾸준한 투쟁을 전개하여 왔다. 어장이 가까와 왔다. 어장 우에는 술한 갈매기 떼가 떠 돌고 있다. 고기 떼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배는 벌써 어장을 돌기 시작한다. 고기 잡이는 시작되었다.

[연습 2] 다음 문장들을 읽고 합성 용언 술어를 지적하고 그 결합 형식을 말하십시오.

1, 보천보 거리 거리에서는 아직도 삼단 같은 연기가 여기서 솟아 올랐다.

2, 주재소 저 쪽에서 요란스럽게 종 소리가 일어나며 탄환

이 비'발 같이 날아 왔다.

L. 용언 술어의 표현

(1) 용언 술어는 기본적으로 동사, 형용사의 어간에 종결로, 접속로가 붙어서 표현된다.

○ 우리는 더 절약하며 증산하자.

○ 온 나라, 온 강산에 새 힘, 새 기상이 약동하고 포전마다 직장마다에 창조의 불길, 혁신의 파도가 굽이치고 있다.

○ 무한한 번영의 시대로 힘차게 출달을 치는 이 영광의 길, 승리의 길은 더욱 찬연하리라.

(2) 용언 술어는 용언의 체언형《一口(음)》에 의하여 표현된다.

○ 조국을 위하여 복무함.

○ 이 기념비는 1958년 9월 9일 건립함.

○ 땅 없는 농민들에게 땅을 분여함.

○ 그는 품행이 바르고 학습과 로동에서 꾸준함.

(3) 《하다》로 끝나는 동사가 《하다》 없이 술어로 표현된다.

○ 각지 근로자들 년간 계획 속속 완수.

○ 우리 나라 문화 대표단 평양을 출발.

[연습 3] 다음 문장들에서 용언 술어가 어떻게 표현되었는가를 말하십시오.

1. 우리의 생활은 오늘도 흥겨우지만 래일은 더 흥겨우리라.
2. 날씨가 몹시 더우니 부디 건강에 주의 하십시오.
3. 이 동무는 학습과 생활에서 우수함.
4. 사회주의 경쟁 운동의 새롭고 높은 형태인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이 나라의 일터와 마을마다에 활짝 꽃피었다.

제 5 절. 보어와 그의 표현.

보어란 행동이 옮겨지는 대상을 나타내며 술어의 뜻을 정밀하게 설명하여 주는 부성분을 말한다.

○ 나는 신문을 읽는다.

이 문장에서 《읽는다》라는 행동은 이 행동이 미치는 대상(신문을)이 없으면 수행될 수 없다. 아무 것도 없이 《읽는다》라는 행동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위의 문장에서 《신문을》은 《읽는

다》는 행동이 미치는 대상 즉 보어다.

보어에는 직접 보어, 간접 보어, 전성의 보어, 비교의 보어 등이 있다.

1) 직접 보어

라동사에 의하여 표현된 행동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대상을 나타 내는 보어다. 그러므로 《무엇을?》 《누구를?》의 물음에 대답한다.

○ 인민 군대 형님들에게 편지를 쓴다(무엇을?)

○ 김 일성 원수님은 우리를 행복한 길로 인도하신다(누구를?).

직접 보어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현된다.

가, 명사, 대명사, 수사의 대격로 《(를) (을)》 형태와 토 없는 형태로 표현된다.

○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자기가 믿는 진리를 굽히지 말아야 한다.

○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안다.

○ 원수님이 나를 찾으신다는 연락이 왔다.

○ 동무들, 나 좀 보시오.

○ 어제 저녁에 영화 보셨습니까?

나, 도움로 《는(은)》, 《도》, 《만》 《까지》 《나마》 《링》 등이 결합된 형태로써 표현된다.

○ 그리하여 나는 사회주의 노동 청년 동맹원의 영예도 지니게 되었다.

○ 벌써 수일 동안 남알 구경은 전혀 못하고 눈'길을 헤치며 행군은 계속하여야 하였다.

○ 어머니는 우리들에게 사과랑 배랑 주셨다.

○ 모란봉만 보아도 기쁨이 절로 난다.

2) 간접 보어

동사가 표현하는 행동이 간접적으로 미치고 있는 대상을 표현하는 보어를 말한다.

○ 나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쓴다 (누구에게?)

간접 보어는 《누구에게?》 《무엇에?》의 물음에 대답한다.

간접 보어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현된다.

ㄱ, 명사, 대명사의 여격 《-에게》 《-께》 형태로 표현된다.

○ 그녀는 이 때 나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여 주셨습니다.

○ 이 기쁜 소식을 집에 빨리 알려야 했습니다.

○ 어린이가 꽃밭에 물을 주고 있다.

ㄴ, 명사, 대명사에 로 없는 형태 또는 도움로 《더러》, 《한테》

《께》, 《해서》 등이 결합된 형태로 표현된다.

○ 꽃 물 주었니?

○ 그 사람은 우리더러 이 일을 부탁했다.

○ 군대 간 오빠한테 새해 인사 편지를 썼다.

○ 정치 위원 동지가 원수님께 나를 소개하였다.

ㄷ, 명사, 대명사의 대격 형태로 표현된다.

○ 어머니는 아이를 젖을 먹이고 있다.

○ 아버지가 아들을 책을 주었다.

3) 전성의 보어

전성의 보어란 술어로 표현된 행동의 결과에 이루어지는 대상을 표현하는 보어를 말한다.

ㄱ) 명사의 조격로 《-로 (으로)》로 표현된다.

○ 장철의 혁명군으로 육성 단련된다.

○ 모두가 최우동생으로 되었다.

ㄴ, 명사의 주격 또는 로 없는 형태로 표현된다.

○ 우리는 난관 앞에서 굴할 줄 모르는 혁명 투사가 되어야 한다.

○ 올챙이가 개구리 된다.

4) 비교의 보어.

비교의 보어란 다른 대상과 비교되어 그들이 같거나 또는 다르다는 것을 가리키는 보어를 말한다.

비교의 보어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ㄱ, 명사, 대명사, 수사의 구격로 《-와(-과)》로 표현된다.

- 우리의 의지는 강철과 같다.
- 작업반장은 김 동무와 오래 동안 담화하였다.
- 우리 조선 인민 혁명군은 적과 싸움만 하는 군대가 아니라 인민도 교양하는 군대입니다.

ㄴ, 명사, 대명사, 수사의 구격도 《-와(과)》와 다음에 《함께, 같이》등의 단어들에 결합되어 표현된다.

- 그이께서는 참모장과 같이 우리 방에 들어 오시었다.

- 그는 김 동무와 함께 대학 건설장에 나갔다.

ㄷ, 명사, 대명사, 수사의 절대격 형태에 도움으로 《하고》, 《보다》, 《처럼》 등이 결합되어 표현된다.

- 너 동생하고 어디 갔다 왔니?

- 그들 사이의 친선의 정은 산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깊었다.

- 우리 박 동무처럼 용감해야겠소.

ㄹ, 여격도 《-에》 형태의 명사 뒤에 보조적 단어들인 《판하여》 《대하여》 등이 결합되어 표현된다.

- 위원장 동지는 우리의 학습에 대하여 말씀하시었다.

- 선생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여러 번 말씀하시었다.

[연습 1] 다음 문장에서 직접 보어, 간접 보어, 절정의 보어, 비교의 보어를 찾으시오.

1, 정숙이는 학교에 갔다 오겠다고 어머니에게 말씀 드린 다음 집을 떠났다. 그리고 순회를 찾아 가서 같이 갔다. 가면서 순회터로 이렇게 물었다. 《너처럼 네 동생이 무어라고 말하던? 항일 유격대의 이야기 해 달라고 하던? 그 아이는 참 좋은 아이야, 교양을 잘 해 주어 응?》

2, 원쑤에게 죽음을!

원쑤에게 죽음을! 죽음을!

우리가 받은 말할 수 없는 원한과 고통보다

천백 배 만백 배 죽음과 저주를!

3, 우리는 수령께서 배풀어 주시는 이 자유와 이 행복을
저 야수들에게

어떻게 빼앗길 수 있겠습니까?

제 6 절. 규정어와 그의 표현.

1. 규정어와 그의 표현

규정어란 문장에서 어떤 대상의 성질, 표식, 특성을 규정하는 문장의 부성분을 말한다. 그리고 《어떠한》 《누구의》 《무슨》 《어느》 《무엇의》 《몇 개의》 《몇째번의》 등과 같은 질문에 대답한다.

○ 근로자들은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

우의 문장에서 《어떤?》이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행복한》은 단어 《생활》을 규정해 주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규정어다.

규정어는 항상 규정 받는 단어(피규정어) 앞에 온다.

규정어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ㄱ, 명사, 대명사, 수사의 축격이나 토 없이 표현된다.

○ 우리 시대의 하루하루는 기적적인 사변으로 충만되어 있다.

○ 시내 청년들과 시민들이 민주 수도 건설에 떨쳐 나섰다.

○ 누구의 지시로 갔습니까?

○ 다섯의 두 배는 열이다.

ㄴ, 관형사에 의하여 표현된다 (관형사는 언제나 규정어로 된다.)

○ 우리는 새 나라의 새 세대들이다.

○ 희망과 기쁨이 온 나라에 차 넘쳤다.

○ 전 세계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

ㄷ, 규정형도 《-ㄴ》 《-는(은)》 《-던》 《-고(을)》으로, 또는 《적》 등이 붙어서 표현된다.

○ 우리 조선 인민에게는 조선 노동당의 탁월한 명도로 하여 광활한 앞길이 열리었다.

○ 그는 이미 준비해 가지고 왔던 혁명 가요를 불렀다.

○ 그들은 계획을 기한 전에 완수할 결의를 다지였다.

○ 영웅적 조선 인민은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 제국주의자들을 패배시켰다.

ㄹ, 보조적 단어에 의하여 표현된다(～에 대한, -에 관한, -에 의한, -에 향한다).

- 어제 우리는 국제 정세에 관한 강연을 들었다.
- 저의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완전히 청산되었다.
- 그것은 조국에 향한 첫 발'자국이였다.

2, 동격어와 그의 표현

동격어란 어떤 대상(피규정어)에 또 하나의 다른 명칭을 주어서 그 뜻을 더 분명히 설명하여 주는 성분이다.

ㄱ, 규정어와 규정 받는 단어 사이에 아무런 토 없이 표현된다.

○ 미국친 《사만호》는 조선 인민의 손에 의하여 대동강에서 불타 버렸다.

○ 나는 잡지 《조선 문학》을 애독한다.

○ 어머니—조국으로 돌아 와서 나는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ㄴ, 규정어와 규정 받는 사이에 토《인》이 들어 오면서 표현된다.

○ 공화국 영웅인 리 수복은 가슴으로 적의 화구를 막았습니다.

○ 조국의 미래인 너희들이 한없이 부럽구나.

○ 칠리마 거수들인 우리들이 못할 일이 있단 말인가?

ㄷ, 동격어는 다른 규정어와 같이 언제나 피규정어의 앞에 온다.

예술 작품, 신문, 잡지, 통신사, 공장, 기업소, 기선, 도시, 항구……등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와 직업, 직무, 칭호……등을 가리키는 보통 명사들이 동격어로 된다.

소설 《땅》, 시 《조선은 싸운다》, 가극 《춘향전》, 신문 《로동청년》, 잡지 《근로자》, 항구 《원산》, 작가 박 연암, 직일판 박 일호, 영웅 장 호영.

〔연습 1〕 다음 문장들에서 규정어와 동격어를 찾아 내고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었는가를 밝히시오.

1, <국군> 장병들이여! 당신들의 손에 쥔 총뿌리를 인민의 원수들에게 돌리라.

2, 사람들의 정신 생활마저도 하나의 커다란 전변이 일어났다.

3, 우리는 이 영광, 이 행복을 생각할 때마다 원수님의 믿음직한 붉은 전사로 되리라는 맹세를 굳게 다지게 된다.

○ 당의 령도 아래 우리 인민의 물질 문화 생활은 몰라 보리만큼 그 수준이 높아졌다.

○ 우리는 오늘 영화 <분계선 마을에서>를 보았다.

○ 나의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요.

○ 더욱 더 찬연할 우리의 미래를 머리 속에 그려 본다.

○ 김 일성 원수님이 지피신 조국 광복회의 화'불을 우려했고향을 지키며 그 이가 오실 날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 당신들은 로동자, 농민, 근로 인테리들의 아들딸들이다.

○ 미제와 그 주구들의 온갖 잔악한 전쟁 정책을 단호히 폭로 파탄시키어야 한다.

제 7 절. 상황어와 그의 표현.

상황어란 행동 또는 상태가 어떠한 환경에서 또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또는 행동, 상태의 정도, 수단, 조건, 원인, 목적 등을 나타내는 문장의 부성분을 말한다.

상황어는 행동 또는 상태가 수행되는 장소, 시간, 원인, 수단, 양태(양상)들을 표현하는 만큼 다음과 같은 종류로 나누어진다. 즉 장소의 상황어, 시간의 상황어, 원인과 수단의 상황어, 양태와 정도의 상황어, 조건의 상황어, 목적의 상황어.

1, 장소 상황어.

장소 상황어란 행동 또는 상태가 수행되는 장소, 방향, 출발점, 목표 등을 나타내는 상황어다. 장소 상황어는 <어디에?> <어디서?> <어디로부터?> <어디까지?> <어디로?> 등의 질문에 대답한다.

7, 장소 상황어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멀리, 가까이, 곳곳이, 집집이……).

- 당은 멀리 천리를 내다 본다.
 - 반장 동무는 집집이 돌아 다니며 연락을 했다.
- ㄴ, 명사, 대명사의 여격, 위격, 조격, 대격, 또는 토 없이 표현된다.

- 평양 대극장에서 무용극 《유격대의 딸》이 공연되었다.
- 그 때 비행기가 조국의 하늘을 날고 있었다.
- 조국으로 돌아 가자, 부모 형제들이 기다리는 고향으로 돌아 가자.

- 평양 가는 마음 끝 없이 행복하구나.
- ※ 《-에》로 나타낸 대상에 미치는 행동이 타동사로 표현되었을 때에는 그 대상은 보어로 되고 그 이외의 경우는 상황어로 된다.

보어로 되는 경우.

- 꽃에 물을 준다.
- 벽에 초상화를 걸었다.
- 눈에 물을 채웠다.

상황어로 되는 경우.

- 꽃에 나비가 앉았다.
- 벽에 초상화가 걸려 있다.
- 눈에 물이 가득차 있다.

2. 시간의 상황어.

시간 상황어란 행동 또는 상태가 수행되는 시작, 계속, 종말 또는 기간 등을 표현하는 상황어다. 시간의 상황어는 《언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 동안?》 등의 질문에 대답한다.

시간 상황어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ㄱ, 시간 부사로 표현된다(곧, 미리, 방금, 벌써, 이미, 일찌기, 잠깐, 차차, 항상……)

- 먼동이 트기 시작한 때부터 농민들은 벌써 들에 나와 있었습니다.

- 그 동무는 방금 도서관에 갔습니다.

ㄴ, 명사, 대명사의 여격, 위격, 조격, 토 없는 형태로 표현된다.

- 오후에 우리는 혁명 박물관에 갔다 왔다.
 - 어제 우리는 청산리를 견학하고 많은 것을 배웠다.
 - 그날 우리는 밤으로 목적지까지 도착하여야 했다.
- ㄷ, 도움토 《부터》《까지》가 붙어서 표현된다.
- 우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두 강의씩 받는다.

3) 원인 수단 상황어.

원인 수단 상황어란 행동 또는 상태의 원인과 수단, 재료와 방법 등을 나타내는 상황어를 말한다.

원인 수단 상황어는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인하여?》 《무엇으로써?》 《무엇에 의하여?》 등의 질문에 대답한다.

원인, 수단 상황어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현된다.

ㄱ) 명사, 대명사의 조격, 어격, 위격과 동사 형용사의 체언형 《기》에 의하여 표현된다.

○ 그는 1211 고지 전투에서 영웅적 위훈으로 세 번이나 표창받았다.

○ 우리 대학을 우리 손으로써 아름답게 꾸리자.

○ 우리는 덱기에 나무 그늘 밑으로 가 앉았다.

○ 원수님을 맞이하는 기쁨과 감격에 모두들 눈물을 흘리었다.

ㄴ) 접속형토 《-아서》《-므로》에 의하여 표현된다.

○ 아이들은 기뻐서 날뛰었다.

○ 어두워졌으므로 부대는 이 산림에서 하루'밤 숙영하기로 하였다.

ㄷ) 일부 부사 《왜, 어찌》 또는 《때문에, 까닭에, 말미암아, 인하여, 바람에……》 등의 단어들과 결합하여 표현된다.

○ 바람 때문에 말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4) 양태와 정도의 상황어.

양태와 정도의 상황어란 행동 또는 동작의 성질, 방식, 정도 등을 나타내는 상황어를 말한다. 양태 정도의 상황어는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 만큼?》 《어느 정도?》 등의 질문에 대답한다.

양태와 정도의 상황어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현된다.

ㄱ) 양태와 상황의 부사로 표현된다(꼭, 마땅히, 반드시, 빨리, 천천히, 스스로, 정말, 정확히, 진실로, 능히, 가장, 거의, 너무, 대단히, 매우, 아주, 조금, 전혀, 많이, 피끌피끌, 파릇파릇, 좌좌).

○ 학생들이 말음을 아주 똑똑히 합니다.

○ 피쁘리는 피끌피끌 노래를 한다.

○ 이 말씀을 듣는 나는 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환히 내다.

볼 수 있었다.

ㄴ) 용언의 어간에 토 《-게》가 결합되어 표현된다.

○ 그리고 그이처럼 생활하고 싸울 것을 굳게 결심하였다.

ㄷ) 명사에 조격토 《-로(으르)》와 《없이, 처럼, 동안, 도록, 만큼》 등이 결합되어 표현된다.

○ 우리는 사회주의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쌍마로 전진한다.

○ 따뜻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이 앞에 나는 말 없이 앉아 있었다.

○ 산골짜기로 흘러 내리는 물은 수정처럼 맑았다.

○ 그는 밤 늦도록 공부한다.

5) 목적 상황어.

목적의 상황어란 행동의 목적을 나타내는 상황어를 말한다. 목적의 상황어는 《무엇을 위하여?》라는 질문에 대답한다.

목적의 상황어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ㄱ) 동사의 접속형 《-러, -려, -려고, -고서》 형으로 표현된다.

○ 그는 도서관에 공부하러 갑니다.

○ 우리는 모두가 최우등하려고 노력하였다.

ㄴ) 《위하여》가 붙어서 표현된다.

○ 우리는 오직 조국을 위하여 복무한다.

○ 조국 통일을 위하여,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우리는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절약해야 한다.

6) 조건, 양보 상황어.

조건, 양보 상황어란 행동 상태가 진행되는 조건, 행동 상태가 대립되는 사실을 나타내는 상황어를 말한다.

이 상황어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ㄱ) 접속토 <—면> <—거든>에 의하여 표현된다.

○ 밤이면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 조선에 도착하거든 꼭 편지를 해라.

ㄴ) 접속형 <—더라도> <—지언정> <—리지라도> 등에 의하여 표현된다.

○ 우리는 조선을 떠나더라도 이 나라를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 우리는 죽을지언정 철천지 원수인 너의 왜놈들 앞에서 굴복하지는 않는다.

[연습 1] 다음 문장들에서 각종 상황어를 찾아 내고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었는가를 말하시오.

1) 나는 너무 기쁘기에 눈물까지 흘렸소.

2) 동무께 있는 책을 잠깐 빌려 왔습니다.

3) 1929년, 단오 명절을 며칠 앞둔 어느 날이었다. 열길현 각지 농촌들에서는 조밭 두 벌 김매기가 한창이었다. 싱싱히 자라 오른 옥수수들은 푸른 잎들을 짙게 내뿜고 불어 오는 따사로운 봄바람에 너울 너울 춤을 추고 있었다. 노고지리가 하늘 중천에서 지중지중 울어 대고 있다.

해가 솟는다. 찬란한 아침 해'살이 어둠을 해가르며 선록이 무르익어 가는 누리를 비치기 시작한다. 아침 해'발을 함뿍 받으며 일'군들은 더욱 일손을 다그친다.

4) 신의주를 가는 길입니다.

5) 순회야! 어서 학교 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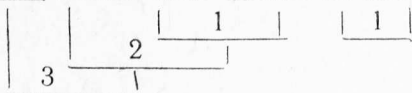
6) 원수의 폭격에

불타는 거리에서

이 글을 쓴다.

성하였다.

휴식한 우리의 포병 부대는 또 다시 행군을 계속하였다.



제 2 절. 동종의 문장 성분과 총괄어.

1. 동종의 문장 성분.

전개된 문장 성분 가운데 어떤 것은 같은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 어린이들은 우리 나라의 희망이며 꽃봉오리들이다.

여기서 문장 성분 《희망이며》《꽃봉오리들이다》는 다 같이 슬어가 되면서 주어 《어린이들은》에 대하여 같은 질문에 대답하는 단어들이다.

우리는 (희망이며(무엇이냐?)
 (꽃봉오리들이다(무엇이냐?)

이 경우에 같은 질문에 대답하는 문장 성분을 동종의 문장 성분이라 한다. 그러므로 동종의 문장 성분은 항상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

동종의 성분은 그것이 어떠한 성분으로 되어 있는가에 따라 동종의 주어, 동종의 슬어, 동종의 보어, 동종의 상황어, 동종의 규정어로 나누인다.

○ 행복과 기쁨이 우리의 생활에서 흘러 넘치고 있다(동종의 주어) (무엇이?).

○ 공산주의적으로 일하며 배우며 생활하자(동종의 슬어) (무엇하느냐?).

○ 항일 빨찌산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간고하고도 영웅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동종의 보어)(무엇을?).

○ 기적과 창조의 하루가 시작한다(동종의 규정어)(어떻게?).

○ 그들은 용감하고도 대담 무쌍하게 온갖 위험을 극복하여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였다(동종의 상황어)(어떻게?).

동종의 문장 성분들은 아래와 같이 서로 연결된다.

ㄱ) 명사, 수사, 대명사들로 표현된 문장 성분들은 구격 또는 로 없이 연결된다.

○ 상점마다 질 좋은 일용품과 식모품이 다양하게 진열되어 있다.

ㄴ) 동사, 형용사들로 표현된 문장 성분은 접속로 <고>, <며> <거니와>들로 연결된다.

○ 크고 붉은 태양이 거연히 솟아 오른다.

○ 배우며 일하는 우리들의 행복한 생활을 보십시오.

○ 꽃이 아주 크거니와 붉고 아름답다.

ㄷ) 동종의 성분들은 접속의 의미를 가진 단어로서 연결된다.

○ 깨끗하고 또 넓은 거리가 보입니다.

○ 평양은 크기도 하거니와 또 깨끗하기도 합니다.

○ 그는 학습과 그리고 운동을 잘 한다.

【연습1】 다음 문장들에서 동종의 문장 성분을 찾아 내고 그것이 어떠한 종류의 동종의 성분인가를 말하십시오.

○ 우리 당의 령도 밑에 로동 계급을 선두로 하여 협동 농장원도, 교원도, 예술인도 천리마를 타고 공산주의적으로 일하며, 배우며 생활하면서 공산주의를 향하여 내달리고 있다.

○ 우리 시대의 특징은 창조와 기적, 기쁨과 행복, 생활의 량만으로 충만된 시대이다.

○ 벌에, 산 기슭에, 해변'가에 오막살이는 없어지고 아담하고도 깨끗한 벽돌 문화 주택이 들어 앉았다.

【연습2】 다음의 문장에서 동종의 문장 성분을 찾아 내고 그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었는가를 말하십시오.

○ 깊고 맑은 강물에는 산과 하늘이 비끼고 고기들이 피리를 치며 뛰고 있었다.

○ 제비야, 더 멀리, 더 빨리, 더 높이 날아 남녘 땅 어미님과 아버지께 이 편지를 전해다오.

- 저 동무는 일하면서도 공부한다.
- 회고, 불고, 누르고, 파란 옷—
거리는 무지개에 휩싸인듯
모두 감격과 기쁨에 어리였다.

2. 총괄어.

동종의 문장 성분을 가진 문장에는 총괄어가 있을 수 있다. 동종의 문장 성분을 합쳐서 한마디로 표현한 것을 **총괄어**라 한다. 총괄어는 동종의 문장 성분들의 앞에 올 수도 있고 뒤에 올 수도 있다.

○ 모든 것을—생명도, 사랑도 청춘도 조국에 바치여 인민은 싸운다.

○ 평양의 시민들—로동자, 사무원, 예술인, 학생, 교원들이 일요일이면 이 유원지를 찾아 옵니다.

○ 뛰다, 노래한다, 웃는다—아이들이 유쾌히 놀고 있다.

○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님, 동생—전 가족이 타지오 곁에 모여 앉아 수상님의 신년사를 들었다.

【연습1】 다음 문장들에서 총괄어를 찾아 내시오.

○ 나에게 연필이든지 만년필이든지 철필이든지—아무것도 나 주시오.

○ 작업에 필요한 도구들—삽, 팽이, 호미, 곡괭이, 낫들을 가지고 청년들은 떠났다.

○ 로동자들은 건설장에서 한참 바쁘게 돌아 간다—나르며, 이기며, 부르며…….

【연습2】 다음의 단어들을 총괄어로 하고 그 속에 포괄되어 동종의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는 단어들을 다섯 개씩 쓰시오.

예. 인민, 로동자, 사무원, 농민, 학생, 소년단원.
의복, 새, 기계, 농기계, 나무, 학용품, 학과목.

제 3 절. 제시어.

자기가 이야기하려는 것들 중에서 보다 중요하다고 인정하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어떤 성분에 앞서 미리 내세워 놓는 말을 **제시어**라고 한다.

○ 조선 로동당—이는 우리의 심장이다.

여기서 《심장이다》에 대한 주어는 《이는》이다. 그리고 《이는》에 앞서 내세워 놓은 것은 《조선 로동당》이다. 이 때 《조선 로동당》이 **제시어**다. 위의 글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는 제시어를 놓은 것보다 글이 덜 강조된다.

○ 조선 로동당은 우리의 심장이다.

제시어를 내세워 놓으면 다음에 그것을 받는 성분은 보통 대명사를 사용한다. 문장의 모든 성분에 제시어가 올 수 있다.

○ 우리 인민의 최대의 민족적 념원은 조국 통일—그것이 다(술어의 제시어).

○ 무상 치료—이것은 우리 생활에서의 또 하나의 자랑이다(주어의 제시어).

○ 조국—이를 위하여 돌도 없는 목숨을 바치지 않았던가(보어의 제시어).

○ 김 일성 종합 대학—여기에서 나는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던가!(상황어의 제시어).

○ 청년들—이들의 앞길은 참으로 휘황하다(규정어의 제시어).

【연습1】 제시어를 가진 문장을 세 개 지으시오.

제 5 장.

독립적 문장 성분과 그 표현.

문장에는 위에서 말한 문장 성분 곧 주어, 술어, 규정어, 보어, 상황어 이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다.

○ 모여라, 동무들아! 붉은 기 아래.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 들어라.

우의 문장에서 《동무들아》를 제외한 모든 단어들은 어느 한 성분으로 되면서 다른 단어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동무들아》는 문장 내의 어느 단어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이 문장의 어느 단어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문장 전체와 일정한 관계를 가진 단어 또는 단어 결합을 독립적 문장 성분이라고 한다.

독립적 문장 성분의 종류에는 호칭어, 감동어, 삽입어, 접속어 등이 있다.

1 절. 호칭어와 그 표현.

호칭어란 이야기가 향하여 지는 대상(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단어 또는 단어 결합을 말한다.

호칭어는 사람 뿐만 아니라 사물을 나타내는 단어로도 된다.

○ 노래를 부르노라 나의 조국이여!

호칭어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ㄱ) 명사의 호격도(《-여(이여)(아)》)로써 표현된다.

○ 삼천만이여! 오늘은 나도 말하련다.

○ 바다여! 여름이 오면 또 다시 너의 품 속에서 마음껏 해염치리랴.

ㄴ) 명사의 토 없는 형태로 표현된다.

○ 당 위원장 동지, 이 번 들격대에 저를 참가시켜 주십시오.

ㄷ) 호칭어는 단 하나로 뿐만 아니라 단어 결합의 형태로도 표현된다.

○ 세기를 주름 잡으며 공산주의를 향해 질풍 같이 내달리는 천리마 기수들이여! 전체 조선 인민은 당신들에게 새해의 인사를 드린다.

호칭어는 보통 반점(,) 또는 감탄표(!)를 찍는다.

호칭어와 다른 말과의 사이에는 약간의 휴식이 온다.

제 2 절. 감동어와 그 표현.

감동어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자기의 감정을 직접 표현하거나 질문에 대한 긍정 또는 부정의 대답을 표현하는 독립적 문장 성분을 말한다. 감동어는 대부분이 감동사로써 표현된다.

○ 아아, 우리의 조국 산천은 참으로 아름답다.

○ 오, 번영하라, 조국이어!

○ 예, 그게 정말입니까?

○ 아니요, 이제 처음 들었습니다.

○ 응, 그래, 그런걸 나는 모르고 있었구나.

○ 헛, 저기 누가 오신다.

감동어 다음에는 반점(,)을 두는 것이 보통이다. 감동어가 강한 감정을 가지고 발음될 때는 감탄표(!)가 온다.

제 3 절. 삽입어와 그 표현.

삽입어란 이야기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하는 사람의 각종 판계를 나타내며, 이야기 내용에 여러 가지의 의미적 색채를 첨가해주는 단어 또는 단어 결합을 말한다.

○ 저의 생각에는 그 동무가 이번 학기 시험에서 반드시 최우등을 할 것입니다.

○ 우리 가정은 행복스럽게도 이번에 새 아파트로 이사하게 됩니다.

우의 문장들에서 단어 결합 《저의 생각에는》은 《그 동무가 이번 학기 시험에서 반드시 최우등을 할 것입니다》—이 문장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하는 사람의 판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단어 《행복스럽게도》는 《우리 가정은 이번에 새 아파트로 이사하게 됩니다》—이 문장에 대한 이야기하는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삽입어들이다.

삽입어는 그 의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1) 이야기된 내용의 원천을 표현하는 삽입어.

《생각컨대》 《내 생각 같아서는, 내 생각에는, 듣건대, 소문에 의하면, 그의 의견에 의하면, 내가 보건대……》

○ 소문에 의하면, 래년에도 틀림 없이 풍년이 들 것이다.

○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금년 겨울은 래년보다 따뜻할 것이다.

2) 이야기의 내용에 대한 확신성을 표현하는 삽입어.

《과연, 실로, 마땅히, 물론, 정말, 의심할 바 없이, 거어코, 정녕, 진정……》

○ 적명은 실로 피어린 투쟁으로서만 승리할 수 있다.

○ 곤난 앞에 우리는 결코 일보도 후퇴하지 않는다.

3) 이야기 내용에 대한 불확신성, 추측, 가정, 양보 등을 표현하는 삽입어.

《아마, 글썄, 만약, 왜, 설마, 만일, 설사, 혹시, 비록, 아무리……가령, 마치……》

○ 아마 래일은 꼭 날씨가 개일 것입니다.

○ 만약 적이 항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를 격멸할 것이다.

○ 우리는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투지만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것이다.

4) 이야기된 내용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는 삽입어.

《기쁘게도, 행복스럽게도, 다행히도, 유감스럽게도, 유감히도, 놀랍게도, 재미스럽게도, 수치스럽게, 시원하게도, 부디, 아무쪼록》.

○ 유감스럽게도 어제는 비가 와서 대성산 공원에 가지 못하였다.

○ 기쁘게도 나는 이번에 인민 군대에 입대할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 아무쪼록 사업에서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5) 이야기된 내용의 순서를 표현하는 삽입어《첫째로, 둘째

로, 세째로, 마지막으로, 끝으로...》

○ 우리는 첫째로 당'적 사상 체계로 무장하는 것이다.

○ 끝으로 동무들의 학습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삽입어의 전후에는 휴식이 오며 좀 낮은 어조로 빠르게 발음한다.

【연습1】 다음 문장에서 호칭어, 감동어, 삽입어를 찾아 내고 삽입어의 각종 의미를 말하십시오.

○ 나아가는 곳에 광명이 있나니

젊은 그대여, 나아가자.

오직 앞으로, 앞으로

가지 덤불을 뚫고

비록 모든 사람이 주저할지라도.

젊은 그대여, 나아가자.

○ 동무들, 나는 동무들이 꼭 자기 대오로 찾아 오리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 예, 첫째로 학생은 학습을 잘 하는 것입니다.

○ 라디오가 보도하는 바에 의하면 아마 태일은 비가 오다가
개일 것 같습니다.

○ 부디 조국을 위하여 분투하십시오.

【연습2】 다음의 단어를 넣어서 문장을 지으시오.

○ 듣건대, 내가 보기에는, 간단히 말하면, 바꾸어 말하면, 마지막으로, 비결하게도.

제 4 절. 접속어와 그 표현.

접속어란 이야기하는 사람이 문장에서 어떤 부분과 부분을 이
러저러하게 접속시켜 주기 위하여 넣는 단어나 단어 결합이다.

《따라서, 또한, 허나, 그리고 하물며, 첫째로, 끝으로》

○ 로동자, 농민 그리고 학생, 청년,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모두가 미제를 반대하여 항쟁의 봉화를 들었다.

○ 비가 온다, 하지만 떠나야 한다.

○ 호칭어는 단어 또는 단어 결합으로 표현된다.

○ 맨 먼저 습격조원 세 명이 투쟁의 길을 떠났다.

【**연습1**】 다음의 접속어를 가지고 문장을 지으시오.

그리고, 첫째로, 더구나, 하지만.

제 6 장. 문장 성분들의 자리.

제 1 절. 문장 성분들의 정상적인 자리.

조선어에서는 많은 경우에 같은 문장이라도 그 성분의 순서를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다.

○ 지금 우리는 신문을 읽는다.

○ 우리는 지금 신문을 읽는다.

○ 우리는 신문을 지금 읽는다.

○ 우리는 신문을 읽는다 지금.

○ 지금 우리는 읽는다 신문을.

이렇게 문장 성분의 자리가 바뀐다하더라도 조선어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정상적인 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조선어에서 정상적인 어순은 다음과 같다.

1) 주어—술어.

2) 주어—보어—술어.

3) 주어—상황어—술어

4) 규정어—규정되는 성분.

1) 주어는 술어 앞에 온다.

○ 우리는 조선 인민의 불구 대천의 원쑤인 미제 첩탁 군대가 남조선으로부터 즉시 철거할 것을 다시금 강경히 요구함

니다.

○ 바다는 피끓는 청춘을 부른다.

2) 술어는 문장의 맨 뒤에 온다.

○ 우리 나라에서는 아세아에서 맨 선장으로 중등 의무 교육제가 실시되었다.

○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에 대한 침략과 략탈의 원흉이다.

3) 보어는 주어와 술어 사이에 놓인다.

○ 우리는 사회주의를 건설한다.

○ 우리는 우리 시대의 영웅들인 천리마 기수들을 자랑한다.

4) 상할어는 보어와 함께 주어와 술어 가운데 놓인다.

○ 붉은 기'말이 건설장에서 휘날린다.

○ 그는 가요 중에서 조선 민요를 가장 즐긴다.

5) 규정어는 규정 받는 단어(피규정어)의 바로 앞에 놓인다.

○ 맑고 맑은 5월의 하늘.

○ 우리는 붉은 대학생이다.

6) 같은 종류의 문장 성분끼리는 임의의 순서로 놓는다.

○ 그들은 참으로 용감하고 대담한 청년들이었다.

○ 그들은 참으로 대담하고 용감한 청년들이었다.

○ 꽃이 아름답고 향기롭다.

○ 꽃이 향기롭고 아름답다.

제 2 절. 성분의 자리 바꿈.

문장에서 문장 성분들의 자리는 원칙적으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야기할 때 또는 글을 쓸 때 같은 내용을 표현하면서도 어느한 성분 또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하여 성분들의 자리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정상적인 자리를 바꾸어서 다른 자리로 옮기는 것을 성분의 자리 바꿈이라고 한다. 이것은 회화어, 시, 가요, 정론 등에서 많이 볼 수 있다. 그런데 규정어는 항상

그것을 받는 성분의 앞에 오며 자리를 바꾸는 일이 없다. 그러나 다른 성분들은 일정한 목적 밑에 자리가 바뀔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특별히 강한 어조와 일정한 휴식이 있다. 순서가 바뀐 성분들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술어가 주어보다 앞에 올 수 있다.

○ 싸워 이겼다 우리는.

○ 정말 아름답구나, 대동강은

2) 보어가 주어의 앞에 올 수 있다.

○ 창조와 기적의 위대한 승리를 나는 노래한다.

○ 어제 아버지에게 나는 편지를 썼다.

3) 술어가 보어의 앞에 올 수 있다.

○ 수령은 설계하였다 조국 광복의 위대한 강령을.

○ 밀림의 긴긴 밤아, 이야기하랴,

만고의 빨찌산이 누구인가를

절세의 애국자가 누구인가를.

4) 상황어가 술어 뒤에 올 수 있다.

○ 혁신의 불길 일어 난다, 용광로와 선반기 앞에서, 지하 막장과 원시림 속에서, 전야와 바다에서, 학교와 병원에서.

○ 우리는 살고 있다. 오늘 영광에 찬 로동당 시대에.

5) 상황어가 주어 앞에 올 수 있다.

○ 풍만한 생활의 허전 위에 문화는 찬란히 꽃핀다.

○ 당과 수령의 따뜻한 배려와 보살핌 속에서 우리는 행복하게 공부하고 있다.

[연습1] 다음 단어를 넣어서 여러 가지 문장을 지으시오.

레; 읽다, 아침, 신문, 나.

○ 나는 신문을 아침에 읽는다.

○ 나는 아침에 신문을 읽는다.

○ 아침에 나는 신문을 읽는다.

1) 대학, 나, 입학하다, 매년.

2) 미제, 당장, 조선, 물러가다.

3) 우리 집, 맑다, 흐르다, 앞 강물.

4) 농촌, 우리, 왔다, 풍년, 가을,

5) 누나, 나, 평양, 다니다, 학교.

[연습2] 다음 문장에서 문장 성분들이 어떻게 바뀌어졌는가를 말하십시오. 그리고 정상적인 순서로 고쳐 놓으시오.

○ 괜찮아요? 하루'동안 늦어도.

○ 어서 이야기 하시오, 미국놈 잡던 이야기를.

○ 바로 이 동무입니다. 내가 어제'밤에 만났다는 대학생이.

○ 보냈어요? 편지를 조국에다.

○ 마음에 듭니까? 이 호실이.

○ 이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를 누가 사 왔습니까?

○ 어제 우리 대학에서 체육 대회가 있었습니다.

[연습3] 다음 시문장에서 바뀐 성분을 찾아 내고 그것이 어떻게 바뀌어졌는가를 말하십시오.

○ 동무들아, 준비하라, 손에다 든 무장.

제국주의 침략자를 때려 부시고

용진 용진 나아가세 용감스럽게

억척 한번 죽더라도 원수를 치자.

제 7 장.

문장에서 단어들의 맞물림.

문장에서 어떤 단어나 또는 어떤 토를 가진 단어가 사용되면 그것에 대응하는 어떤 단어나 어떤 토를 가진 단어가 맞물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문장에서 단어들의 맞물림이라 한다.

○ 나는 항일 빨찌산들이 얼마나 잘 싸웠는가를 알고 있다.

여기서 《얼마나》라는 의문을 나타내는 의미의 단어가 오면 반드시 그 뒤에 《싸웠는가》와 같은 의문식의 토가 붙어야 한다.

그러므로 위의 문장을 《나는 항일 빨찌산들이 얼마나 잘 싸운 것을 알고 있다》로 하면 그것은 틀린다.

문장에서 맞물림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존경하는 말의 맞물림.

ㄱ) 주어에 존경하는 말이 왔을 때 술어의 맞물림.

○ 김 일성 원수께서는 일일이 우리들의 생활을 돌보시였다.

○ 나의 어머니는 참으로 자애롭고도 엄격한 분이시였지요.

조선어에서는 《계시다》 《주무시다》 《잡수시다》와 같이 《있다》 《자다》 《먹다》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면서도 존경의 뜻이 더 있는 단어가 있다. 그러므로 존경하여야 할 분이 주어로 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이 단어를 써야 한다.

○ 원수님께서는 지금 대원들과 함께 계십니다.

○ 아버님께서는 지금 주무십니다.

○ 아저씨, 진지 많이 잡수세요.

ㄴ) 존경하는 사람에게 관계되는 말일 때 맞물리는 현상.

○ 아버지의 진지를 차려다 드렸다.

○ 원수님께 이 말씀을 드렸다.

여기서 《진지》 대신에 《밥》, 《드리다》 대신에 《주다》를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ㄷ) 자기에게 대한 이야기를 할 때의 맞물림.

자기에게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높이는 말을 하는 것은 잘못이다.

○ 나는 1948년에 탄생하였다. (《탄생하다》는 《출생하다》와 달리 존경의 뜻을 가진 단어다.)

다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에서와 같이 자기 말이면서도 《말씀》이라 하는 것만은 쓸 수 있다.)

2) 계칭의 맞물림.

이야기 듣는 사람이 존경할 대상인가 아닌가에 따라 종결 술어에서 계칭이 구분된다.

○ 아버지, 저에게 항일 빨찌산 이야기를 하여 주십시오.

○ 영철이, 너 어디 가니?

○ 영수, 자네가 가게.

3) 특수한 단어들의 맞물림.

ㄱ) 《결코》 《조금도》 《도저히》 등의 다음에는 부정의 의미를 가진 표현이 맞물린다.

○ 우리 앞에는 극복하지 못할 난관이란 결코 있을 수 없다.

○ 적의 야수적 고문 앞에서도 그는 조금도 비굴한 태도가 없었다.

○ 우리는 새로운 혁명 과업이 제기될 때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ㄴ) 《만일》 《만약》 다음에는 가정의 뜻을 가진 토가 맞물린다.

○ 만약, 원수들이 우리 조국을 침범한다면 우리는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 만약, 제국주의자들이 새 전쟁을 도발한다면 그들은 멸망을 면치 못할 것이다.

ㄷ) 《부디》 《아무쪼록》 다음에는 명령이나 소원의 의미를 가진 표현이 맞물린다.

○ 부디 안녕히 가십시오.

○ 아무쪼록 자기 맡은 일을 잘 하여라.

ㄹ) 《아마》 《아마도》 다음에는 추측의 의미를 가진 표현이 맞물린다.

○ 아마, 그 동무도 혁명 박물관에 갔겠지.

○ 아마도, 그는 내가 도서관에 온 것을 모르는가보오.

ㅁ) 《어찌》, 《왜》, 《어찌서》, 《무엇》, 《어디》, 《-뻬》, 《언제》, 《무슨》, 《웬》, 《얼마》 《어떻게》 등과 같이 의문의 뜻을 가진 단어의 뒤에는 의문식의 토가 맞물린다.

○ 어찌 내가 이 영광스러운 과업을 수행하지 않으랴!

○ 일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알아 보시오.

○ 우리는 누가 남조선을 암흑의 땅으로 전변시켰는가를 잘 알고 있다.

[연습1] 다음의 문장에서 단어가 서로 맞물린 관계를 찾아 내시오.

1) 원수님께서서는 손수 대원들에게 채과 학습장을 마련해 주시었다.

2) 만약, 언제를 쌓자면 어느 지점에 어떤 규모로 쌓을 것인가? 그 이론적 근거는 어디 있느냐? 하는 문제를 골똘히 생각하였다.

3) 눈앞에 죽음의 위협이 다가설망정, 유격대원들은 조직의 비밀을 팔지 않았다.

[연습2] 다음의 괄호 안에 알맞은 단어나 토를 맞물려 넣으시오.

- 1) 그 날 누가 왔던□ 기억하십니까?
- 2) □□ 비가 오더라도 우리는 일을 계속해야 하오.
- 3) 다만 나는 조국을 생각할 □□□
- 4) 조국은 응당 통일되□□ 한다.
- 5) □□ 책상에는 책만 있었소.

[연습3] 다음의 문장에서 단어들의 맞물린 관계가 잘못된 것을 고쳐보시오.

- 1) 존경하시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 2) 선생님, 그 일은 내가 꼭 하겠습니다.
- 3) 순옥아, 선생님은 교실에 있어.
- 4) 그래 저도 가겠네.
- 5) 저는 동물원에 가 본 일이 없다.

[연습4] 다음의 문장에서 단어들의 맞물림이 틀린 것을 지적하고 맞게 고쳐 보시오.

- 1) 우리는 기어코 최우등을 쟁취할 것이다.
- 2) 우리는 결코 이 작업을 10 일 내로 끝내겠다.
- 3) 비단 사람의 수는 적을망정 단결하면 못할 일이 없다.
- 4) 비록 그가 없으면 랑패될 게 있겠소?
- 5) 아마도 비가 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제 8 장. 단일 구성문.

문장들 중에는 주어와 술어가 갖추어지지 않은 것도 있다.

조국.

그리운 조국.

나 꿈속에서도 항상 잊지 못하던 조국.

이제야 나는 너의 품 속으로 돌아 왔구나.

이 시에서 《조국》 《그리운 조국》 《내 꿈 속에서도 항상 잊지 못하던 조국》은 그것으로서 완전한 문장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주어 술어가 없다. 이런 문장을 단일 구성문이라 한다. 단일 구성문 앞에는 명명문, 단어 문장, 주어 없는 문장들이 있다.

제 1 절. 명명문.

명명문이란 어떤 대상이나 현상 상태가 존재한다는 것을 명명할 뿐 그 이상의 사실에 대하여서는 말하지 않는 문장이다.

○ 1941년,

우리에게는 보다 어려운 투쟁의 시기가 닥쳐 왔다.

○ 제비, 언니, 제비가 벌써 왔어요.

○ 그 다음……

그다음 홍산골이 터졌다.

총소리, 작탄 소리, 기관총 소리, 늑들의 아우성 소리;

우의 레문들에서 《1941년》 《제비》 《총소리, 작탄 소리, 기관총 소리, 늑들의 아우성 소리》는 명명문이다.

명명문은 한 개 단어로 될 수 있고 또는 여러 개 단어로 될 수 있다(단어 문장은 거기에 어떤 다른 단어가 붙지 못하는 것이 특징이다). 즉 명명문은 그것에 규정어들이 붙어서 전개될 수 있다(《그리운 조국》 《내 꿈 속에서도 항상 잊지 못하던 조국》).

명명문은 간결하고 힘차기 때문에 시, 기라 문예 작품에서 잘 쓰인다.

제 2 절. 단어 문장.

단어 문장이란 감동사, 의성 의태어 등의 단 한 단어로 이루어

어진 문장이다.

여기에는 명명문에서와 같이 규정어가 올 수 없다.

○—집에 손님이 오셨습니까?

—예!

—침실에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형님은 이번에도 최우등생이 되셨지요?

—응,

○—아저씨 태일은 명절날이지요.

—그렇다.

위의 문장들에서 《예》 《아닙니다》 《응》 《그렇다》는 단어 문장이다.

제 3 절. 주어 없는 문장(무주어문).

주어로 될 대상을 특별히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때 종종 문장에서는 주어를 쓰지 않는다.

즉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일반적인 이야기일 때나 구체적인 인물, 사물을 밝힐 필요가 없을 때는 원래 주어를 쓰지 않는다. 이러한 문장을 주어 없는 문장이라고 한다.

○ 행군 도중의 어느 날 아침이었다. 잠시 휴식하는 때에 우리는 배낭을 털어 모은 미시'가루를 원수님께 권하였다.

○ 어두워졌다. 유격대원들은 저'마다 전투 준비를 갖추고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 날씨도 따뜻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어서 몸을 좀 쉬십시오》.

주어가 없는 문장은 주어가 생략된 불완전문과는 다르다. 위의 문장과 아래 문장의 내용을 서로 연결하여 주어가 회복될 수 있는 문장은 주어가 생략된 불완전문이다. 그러나

주어 없는 문장은 원래부터 주어가 없는 문장이다.

○ 《네 나이는 몇 살이냐?》

《일곱살》(내 나이는 일곱살입니다).

○ 밝아 온다. 전투원들은 또 다시 원수들에게 무리 죽음을 주리라.

우의 문장들 중에서 《일곱살》은 그 우의 문장을 통하여 《내 나이는 일곱살입니다》라는 문장이 생략된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문장 《밝아 온다》에서는 주어를 짐작할 수 없다 (날이 밝아 온다. 새벽이 밝아 온다. 동녘이 밝아 온다.……).

[연습1] 다음 문장에서 단일 구성문을 찾고 그것이 어떤 단일 구성문인가를 말하시오.

1) 우거진 수풀, 금시 온 비에 씻겨서 나무·잎들이 싱싱하다. 밝은 해·별이 나무·가지 사이로 스며 든다. 버서석! 다람쥐가 한 마리 바위 틈에 숨는다. 그리고는 아무 소리도 없다. 다만 나무잎에서 비·물이 드문드문 떨어진다. 툭……툭.

2) 아아 삼지연!

태고연한 백두의 밀림 속에서 김 대장의 영상 고이 안은 채 영원히 젊어 싱싱한 삼지연, 삼지연!

3) 그래 울 봄엔 야간 대학에 입학할 작정이요?

—그렇소.

4) 남녘 땅 동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증산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시다!

—웁소.

[연습2]. 명명문. 주어 없는 문장, 단어 문장을 각각 두 개씩 지으시오.

제 4 절. 불완전문.

연속되는 문장이나 또 이야기할 때 앞뒤의 장면이나 문맥에 의하여 알아 낼 수 있는 문장 성분들은 생략할 수 있다.

휘황한 불빛을 누가 켜나?

로동당이 주었지.

경애하는 우리 수령

원수님이 주셨지.

이 시에서 두 번째 문장 《로동당이 주었지》와 세째 문장 《경애하는 우리 수령 원수님이 주셨지》에는 《불빛을》이라는 직접 보어가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어느 문장 성분이 생략된 문장을 불완전문이라 한다.

문장에서의 문장 성분의 생략은 글의 앞뒤 관계나 이야기의 장면에 의해서 그것을 알 수 있을 때 일어난다.

우의 문장에서는 《불빛을》이 첫째 문장에서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에 대답하는 둘째 및 세째 문장에서는 다시 《불빛을》을 말하지 않아도 능히 알 수 있으므로 생략한 것이다. 이 문장들에서 이러한 앞뒤 관계가 없다면 《로동당이 주었지》 《경애하는 우리 수령 원수님이 주셨지》만 가지고는 《무엇을》 주었는지 모른다. 때문에 이런 글은 쓰지 않는다.

또한 다음과 같은 장면에 의해서 생략된다.

《오시니?》

아버지를 기다리는 장면에서 이런 문장으로 말하였다고 하면 《누가》 온다는 이야기인지 듣는 사람도 알 수 있다. 그것은 아버지를 기다리는 장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버지》라는 주어가 생략된 《오시니?》라는 불완전문으로 되었다. 만일 이러한 장면 관계가 없이 다만 《오시니?》라고 한다면 《누가》 온다는 이야기인지 모르게 된다.

불완전문에서는 주어, 술어, 규정어, 보어, 상황어, 중의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이 생략될 수 있다.

1)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

○—동무는 언제 조선에 왔습니까?

—지난 9월에 왔습니다.

(주어《나는》이 생략되었다).

○ 철수는 일과포에 제시된 대로 규칙 있게 생활하였다.

(1) 아침 여섯시에 일어나서 반 시간 체조를 하였다. (2)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는 학교에서 배운 것을 복습하였다.

2) 술어가 생략되는 경우.

○—동무는 어디에 갑니까?

—도서관에 좀……

○ 여기 새 마을 어구에 우리는 나무를 심는다. 우리는 사
식장칠 푸르려 좋은 전나무, 이깔나무를.

ㄷ) 주성분이 다 생략되고 부성분만 남는 경우.

○ 오늘도 우리는 길을 닦는다.

공산주의로 통하는 길을

○ 나는 어 땅에서 나고 이 땅에서 자랐다.

삼천리 금수 강산 기름진 땅에서.

ㄹ) 보어가 생략되는 경우.

○ 벗들이여, 다 같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자.

너도 나도 부르자.

○ 동무는 복습을 어떻게 합니까?

○ 매일 세 시간씩 합니다.

ㅁ) 규정어가 생략되는 경우.

○ 옥회는 붉은 기'발을 들었다.

기'발은 새찬 바람에 펄럭이었다.

ㅂ) 상황어가 생략되는 경우.

○ 동철이는 유격 근거지로 갔습니다.

그는 식량을 실고 갔습니다.

[연습1] 다음 문장들에서 불완전문을 지적하고 어떤 문장 성분이 생략
되었는지를 말하십시오.

1) 《동무 신진 박물관에 가 보았습니까?》

《가 보았습니다》

《언제?》

《금년 봄에》

《많이 느꼈겠지요!》

《네, 정말 치솟는 분노를》

○ 이 나라 사람들의 낮을

땀땀이 쳐다보라

그 엄숙하고도 타끓는

싸움의 정신을!

그 엄숙하고도 높은

애국의 마음을!

[연습 2] 다음 불완전 문장을 완전문으로 고쳐 보시오.

《편지라구?》

《응, 편지야》

《어디서 왔어?》

《어머니께서》

《왜?》

《우리들이 언제 도착했느냐구》

《회답을 쓰지, 이제라구》

《내 쓸까?》

《그래, 빨리》

제 9 장.

구를 가진 문장.

문장 성분은 보통 단어나 또는 단어들의 결합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런데 때로는 문장 성분 자체가 주어와 술어를 가진 단어들의 결합으로써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루어진 문장 성분을 구라고 한다.

○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자기가 하던 일에서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

위의 문장에서 《자기가 하던》은 《어떤?》이라는 질문에 대답하면서 일이라는 명사의 규정어로 되고 있다. 그런데 《자기가 하다》라고 종결형의 토를 붙이면 그 자체도 하나의 문장이 된다. 그러나 《하였다》라는 술어가 종결형으로 되지 않고 《하던》이라는 규정형으로 되었기 때문에 독립적 문장을 이루지 못하고 《일》이라는 명사의 규정어 역할 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문장과 대비하면 규정어구가 더욱 명백해진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려운 일에서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

위의 문장에서 《어려운》은 역시 《일》의 규정어이다. 따라서

《어려운》이나 《자기가 하던》이나 다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어려운》은 문장으로는 될 수 없다. 구는 그가 문장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가에 따라 주어구, 술어구, 규정어구, 보어구, 상황어구로 나누인다.

구는 다음과 같은 형태에 의하여 표현된다.

(7) 구는 보통 용언의 체언형 접미사《□(음), 기》로.

○ 당신들이 돌아 오를 우리는 손뼉아 기다렸소.

○ 위원회에서는 성철 동무가 선동 사업을 맡아 보기로 결정하였다.

ㄴ) 불완전 명사로 표현된다.

○ 우리가 속히 돌아 갈 것을 동무들이 기대하고 있소.

○ 항일 빨찌산들이 싸운 것처럼 우리도 온갖 난관을 박차고 싸우렵니다.

○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해결할 밤에 다른 도리가 없다.

ㄷ) 규정형태, 접속토, 또는 종결토에 의하여 표현된다.

○ 학생들이 만든 기계가 전시되어 있소(규정형태에 의하여).

○ 아기가 눈매가 아주 예쁘다.

(종결형태에 의하여).

○ 날이 세도록 그들은 토의하였다(접속토에 의하여).

ㄹ) 구가 의문을 나타내는 경우에 거기에 토들이 붙어서 표현되는 경우.

○ 어떻게 우리가 싸웠는가를 사람들은 잘 알고 있소.

○ 누가 이기는가가 문제다.

ㅁ) 보조적인 성질을 가진 《하다》 또는 그것이 생략되어 표현되는 경우.

○ 빨찌산들이 온다 하는 소문을 듣고 마을 사람들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 빨찌산들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마을 사람들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제 1 절. 주어구를 가진 문장.

구가 문장에서 주어의 역할을 할 때 이를 **주어구**라고 한다.
주어구는.

ㄱ) 체언형 접미사로 표현된다.

○ 우리들이 이 계획을 9월 9일 전으로 완수함은 우리의 신성한 당'적 의무이다.

○ 남반부 인민들은 그날 그날 살아 가기가 고통이다.

ㄴ) 불완전 명사로 표현된다.

○ 우리가 외적을 반대하여 싸우는 것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이며 후손 만대의 번영을 위해서이다.

○ 내가 그 집을 찾아 낸 것은 그날 저녁 무렵이었다.

○ 동무들이 구경을 떠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

ㄷ) 구가 의문을 나타내는 경우에 구에 직접 주격토들이 붙어서 표현된다.

○ 어떻게 성과적으로 이 사업을 보장할 것인가 회의에서 로의 결정되었다.

○ 삼각 경쟁에서 어느 편이 승리하는가 바로 문제다.

제 2 절. 술어구를 가진 문장.

구가 문장에서 술어의 역할을 할 때 그 구를 **술어구**라고 한다.
술어구는.

ㄱ) 용언의 종결형으로 표현된다.

○ 투사들은 입을 다문 채 말이 없었다.

○ 우리 나라는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다.

○ 실로 그 곳 터위는 참기가 어려웠다.

ㄴ) 용언의 체언형 접미사 **《□(음)기》**로 표현된다.

○ 그의 우점의 하나는 성품이 바름이고 다른 하나는 그의 학습이 우수함이다.

○ 경쟁 조항은 로동과 학습에서 그들이 서로 방조하기였

습니다.

ㄷ) 불완전 명사로 표현된다.

○ 당면 목표는 우리가 더 잘 단결하는 것이다.

○ 룡타도는 요즈음 경치가 더 좋을 것이다.

ㄹ) 구가 의문의 뜻을 가지는 경우 종결형토가 붙어서 표현된다.

○ 승리의 초'점은 누가 인민을 더 많이 쟁취하는가다.

제 3 절. 규정어구를 가진 문장.

구가 문장에서 규정어의 역할을 할 때 그 구를 규정어구라고 한다. 규정어구는.

ㄱ) 규정형 토로 표현된다.

○ 오곡이 무르익은 무연한 협동벌이 눈 앞에 보인다.

○ 김 일성 원수께서 직접 지도하신 이 전투는 우리 전투원들에게 대담성과 영예감과 승리에 대한 신임을 주었다.

○ 우리가 소년이었던 시기는 가난과 주림 때문에 허덕이는 시기였다.

ㄴ) 용언의 체언형 접미사 《□(음), 기》로 표현된다.

○ 내가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배우기의 운동을 제의하였다.

ㄷ) 구가 의문을 나타내는 경우에 토가 붙어서 표현된다.

○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화를 더 잘 할 것인가의 문제만 남아 있다.

ㄹ) 《하다》 또는 그가 생략된 형태에 의하여 표현된다.

○ 난공 불타의 요새는 없다는 말이 있다. 우리는 이 말의 참 뜻을 투쟁을 통하여 알고 있다.

○ 우리 전투원은 한 사람이라도 살아 남아서 끝까지 싸워 이겨야 한다는 굳은 결의를 가슴에 품고 서슴 없이 투쟁의 길에 나섰다.

○ 얼마 안 가서 왜놈들이 패망하리타 하는 소문이 떠돌기

시작하였다.

제 4 절. 보어구를 가진 문장.

구가 문장에서 보어의 역할을 할 때 그 구를 보어구라고 한다.
보어구는.

ㄱ) 용언의 체인형 접미사 <ㄴ(음), 기>에 의하여 표현된다.

○ 세계 선량한 사람들은 조선이 미제를 타도하였음을 무한히 통쾌하게 생각하고 있다.

○ 우리는 동무들이 학습에서 큰 성과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 그는 순간 얼굴이 붉어짐을 느꼈다.

ㄴ) 불완전 명사에 의하여 표현된다.

○ 나는 동무들이 나의 마음을 양해해 줄 것을 믿습니다.

○ 그는 말이 없으나 항상 앞장서 일한다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다.

○ 결국 그것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ㄷ) 구가 의문을 나타내면서 그 아래에 토들이 붙어서 표현된다.

○ 우리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를 주의 깊게 기다리고 있다.

○ 너무나 긴장되고 흥분하여 토론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자기도 판단할 수 없었다.

○ 우리 인민은 누가 이 행복을 주었는가를 잘 알고 있다.

ㄹ) <하다> 또는 <하다>가 생략되어 표현된다.

○ 나는 오늘 저녁 꼭 유격대가 이 마을에 도착하리라 생각하였습니다.

○ 우리들은 모여 앉아서 더 빨리 조선 말을 배우기 위한 방법이 없을가 하고 진지하게 토론하기 시작하였다.

제 5 절. 상황어구를 가진 문장.

구가 문장에서 상황어의 역할을 할 때 그 구를 **상황어 구**라고 한다. 상황어 구는.

ㄱ) 접속형로 《계, 도록》 등에 의하여 표현된다.

○ 조합원들은 비가 잘 되게 거름을 아주 많이 내였다.

○ 우리들은 밤이 깊도록 항일 유격대의 이야기를 들었다.

ㄴ) 용언의 체언형 접미사 《□(음)기》에 의하여 표현된다.

○ 일의 성공은 동무들이 노력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 우리는 비가 좀 멎기에 곧 행군 준비를 하였다.

○ 지금 우리의 사업은 초보적 성과가 달성되었음에 지나지 않소.

ㄷ) 불완전 명사에 의하여 표현된다.

○ 날이 쌀 무렵에 빨찌산은 떠났소.

○ 비가 막 쏟아질 적에도 우리는 작업을 중지하지 않았소.

○ 그의 마음은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하는 듯 항상 당을 찾아 따랐다.

○ 자기가 찾아 올 것처럼 명철이는 이야기하고 갔다.

○ 당의 붉은 학자가 되기 위하여 선진 과학을 섭취하는 동시에 선조들의 과학적 성과를 연구하기에 전심 전력하였다.

ㄹ) 의문을 나타내면서 거기에 토가 붙어서 표현된다.

○ 문제는 누가 더 잘 만드는가에 달려 있다.

○ 사람들의 시선은 기계가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집중되었다.

[연습] 다음의 문장들에서 구를 찾고 1) 그것이 어떤 구이며, 2) 그 구는 어떻게 표현되었는가를 말하시오.

○ 김 일성 동지께서 현지에 나오셔서 지도하신 후 사람들은 중심 고리란 무엇이며, 그것이 왜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었다.

○ 농사가 풍작인 까닭에 농촌 생활은 더욱 흥겹게 되었다.

○ 그 폭발 소리는 천지가 진동하는 듯 요란하였다.

○ 그는 명령이 떨어지기가 바쁘게 총을 들어 잡고 적진으로 돌진하였다.

○ 장군께서 가리키신 그 길을 따라 조국이 해방되는 그 날

까지 우리는 굴함 없이 싸워 왔다.

○ 《원쑤 미제를 타도하자》라는 구호를 들고 남반부 청년
이 학생들 일어났다.

○ 그들 형제들도 서로 경쟁을 하는 것이 좋겠소.

○ 비가 올런지가 문제다.

○ 그 부대는 전투 경험이 있어 적과 아주 잘 싸웠다.

○ 승리의 요인의 하나는 누가 인민을 더 쟁취하는가다.

○ 실제 공장파 농촌에 나가 보면 조국이 참으로 위대하고
강대하다는 것이 자연 알려진다.

〔연습2〕 다음 문장들을 결합하여 구를 가진 문장으로 만드시오

○ 물론 어려운 일이다. 말한 대로 한다.

○ 원수님이 돌아 오시다. 우리는 몹시 기다리다.

○ 우리는 결정하였습니다. 동무가 그 동무를 방조하다.

○ 이 지대는 좋았다. 유격대들이 활동하다.

○ 나는 그만 쓰러지다. 힘이 진하다.

○ 우리는 공부한다. 밤이 깊다.

〔연습3〕 다음의 용언의 체언형 접미사로 표현된 주어구를 가진 문장,
보어구를 가진 문장을 각각 두 개씩 지으시오. 용언의 체언형 접미사 《-
□(음), 기》

〔연습4〕 불완전 명사 《-것》으로 표현된 주어구를 가진 문장, 보어구
를 가진 문장을 각각 두 개씩 지으시오.

〔연습5〕 규정형로 《-ㄴ(는)》에 의하여 표현된 규정어구를 가진 문장
을 두 개 지으시오.

〔연습6〕 의문을 나타내면서 거기에 토가 붙어서 된 주어구를 가진 문
장, 술어구를 가진 문장, 규정어구를 가진 문장, 보어구를 가진 문장을 각
각 두 개씩 지으시오.

〔연습7〕 접속로 《개, 도록,》에 의하여 표현된 상황어구를 가진 문장
을 두 개 지으시오.

제 10 장.

복 합 문.

앞에서 우리는 문장을 구성상으로 보아 단일문과 복합문으로 구분한다는 것을 학습하였다.

어떤 문장은 두 개 이상의 단일문들이 서로 접속되어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산이 높고 물이 맑다.

- 1, 산이 높다. } 접속
- 2, 물이 맑다. }

○ 바람이 불면서 비가 많이 오진만 그들은 작업을 계속했다.

- 1, 바람이 분다. — } 접속
- 2, 비가 많이 온다. — }
- 3, 그들은 작업을 계속했다. — } 접속

이렇게 몇 개의 단일문끼리 접속되어서 큰 한 문장이 되었을 때 이를 복합문이라 한다. 그런데 이 복합문은 구를 가진 문장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비가 오지만 우리는 걱정하지 않는다. (복합문)

○ 비가 옴을 우리는 걱정하지 않는다. (구를 가진 문장)

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1) 복합문은 문장과 문장이 결합한 것이며 구를 가진 문장은 구로 되어 있는 단어들의 결합이 문장의 한 성분으로 된다. 2) 복합문의 부분(비가 오지만)은 주문(우리는 걱정하지 않는다) 전체의 의미를 보충 설명하나 구를 가진 문장에서 구는 다만 한 개 단어의 의미를 보충한다. 3) 복합문의 문장들은 서로 접속형의 토(—지만)에 의하여 련결되나 구를 가진 문장에서는 용언의 체언형에 의하여 련결된다.

그러므로 구를 가진 문장은 단일문에 포함된다.

복합문은 그안의 문장들이 어떻게 이어졌는가에 따라 **병렬 복합문**, **종속 복합문**, **합성 복합문**으로 나누인다.

제 1 절. 병렬 복합문.

병렬 복합문이란, 그 안의 문장들이 서로 동등한 관계를 가지고 이어진 문장을 말한다. 우에 든 례에서 문장 《산이 높고 물이 맑다》에서 문장 《산이 높다》와 문장 《물이 맑다》는 서로 동등한 차격적으로 이어져 있다. 따라서 이 복합문은 병렬 복합문이다.

병렬 복합문은 그것을 구성하는 단일문들이 가지는 의미의 호상 관계에 따라 **합동적 병렬 복합문**, **분리적 병렬 복합문**, **대립적 병렬 복합문** 등으로 나눈다.

1) 합동적 병렬 복합문.

합동적 병렬 복합문이란 그것을 구성하는 단일문들에서 이야기된 내용이 **연이어** 일어남을 나타내는 병렬 복합문을 말한다.

1) 합동적 병렬 복합문은 다음과 같은 접속사로 표현된다.
 -고, -며, -는바, -바, -나 데, -되, -자, -니, -거든, -로서, -다가, -더니, -건데, -면서, -고서, -노니, -거니, -던바, -거니, 와.....

- 하늘이 높고 물이 맑다.
- 조선의 산수는 참으로 아름다우며 사람들의 마음도 역시 아름답지요.
- 나는 성공 못하고 죽거니와 너희들은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끝까지 싸워라.
- 우리는 지금 천리마를 타고 달리고 있는데 낡은 것이 우리의 꿈무니에 매여 달리고 있어야 됩니까.
- 오늘 영화는 대학생 생활을 주제로 한 작품인바 주인공들의 성격은 아주 적극적이며 용감하며 또 락천적이고 유쾌하다.
- 사람들은 서로 돕고 서로 이끌거니 이는 우리 시대의 자랑이다.

ㄴ) 접속의 뜻을 가진 단어들로 표현된다(또, 또한, 혹은, 또는, 동시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 바람이 부는 동시에 비가 몹시 쏟아졌다.

○ 피로써 쟁취한 한 자루의 무기는 더 많은 무기를 쟁취하게 하였으며 그리고 그것은 우리 유격대를 더욱 발전시켰다.

○ 일용품의 질이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그 품종도 결정적으로 확대되었다.

2) 대립적 병렬 복합문.

대립적 병렬 복합문이란, 그것을 구성하는 단일문들에서 이야기된 내용이 서로 반대됨을 나타내는 병렬 복합문이다.

ㄱ) 대립적 병렬 복합문은 접속토에 의하여 표현된다.

—건마는, —나, —나마, —는, 대신, —다, —다가, —더니, —도, —되, —려니와, —지라는(지만), —언마는

○ 비는 계속 내렸으나 들격대는 일보도 물러서지 않았다.

○ 늑들을 강으로 업어 건너 주다가 깊은 물속에 치박아 죽이고 무기를 빼앗아 내기도 하였다.

○ 계획했던 일이 쉽사리 않았 지만 청년들은 밤에 낮을 이어 끝내 해 내고 말았다.

○ 때는 겨울이 건마는 이 풀은 눈속에서도 파릇파릇하다.

○ 조선 사람은 어렵게 살았지만 실상 유식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ㄴ) 접속의 뜻을 가진 단어들에 의하여 표현된다.

○ 그들도 능히 만들거늘 하물며 내가 왜 못 만들겠느냐.

○ 날씨는 추웠으나 오히려 유격대원들은 기세 높이 전진하여 갔다.

○ 취침 시간이 이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공부하고 있었다.

3) 분리적 병렬 복합문.

분리적 병렬 복합문이란 그것을 구성하는 단일문들에서 이야기

된 내용 가운데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거나 이야기된 내용들이 분리적인 관계를 가질 때 이를 **분리적 병렬 복합문**이라고 한다. 이 병렬 복합문은;

접속도에 의하여 표현된다.

—거나, —든지, —나, —거나, —다가, —느니.

○ 내가 올거나 내가 올겠지.

○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는 한 번도 결석하지 않았다.

○ 그는 감독 시험을 치르든지 회화 시험을 치르든지 언제나 최우등의 성적을 쟁취한다.

○ 눈이 내리거나 바람이 불거나 우리는 걱정이 없다.

접속의 뜻을 나타내는 단어들에 의하여 표현된다.

○ 편지가 오든지 또는 사람이 오든지 어떤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 할머니가 오시든가 또는 어머니가 오시겠지.

[**연습1**]: 다음 문장에서 병렬 복합문을 찾아 내고 어떤 형식의 병렬 복합문인지 말하십시오.

(1) 강산도 변하였고 사람도 변하였으며 일하는 솜씨도 변하였다.

(2) 우리의 인민 경제는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인민들은 천리마의 기세로 전진하고 있다.

(3) 말자국 소리가 나거나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릴 것이다.

(4)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행동하였다.

(5) 비가 많이 왔건마는 공사가 철저하므로 홍수가 나지 않았다.

(6) 이 음식이 별별치 못하나 동무들은 많이 잡수시오.

(7) 그러므로 노루는 네가 잡았으니 노루 가죽은 너에게 주겠으나 규률을 지키지 않았으니 털을 받아야 되겠다.

[**연습2**] 다음의 단일문들을 결합하여 병렬 복합문을 만드시오.

○ —우리는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다.

—남반부 인민들은 가난에 쪼들리고 있다.

○ —전체 조선 인민들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념원하고

있다.

— 미제와 그 압잡이들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극력 반대하고 있다.

○ —그는 나이가 어리다.

— 공부를 잘 한다.

○ —봄철이 왔다.

—아직 날씨는 쌀쌀하였다.

제 2 절. 종속 복합문.

종속 복합문이란 복합문을 구성하는 한 문장이 다른 문장에 종속되어 그를 설명하여 주는 복합문을 말한다.

○ 일기가 좋으면 우리는 아침 여섯시부터 일을 시작합시다.

우의 복합문에서 문장 《일기가 좋으면》은 다른 문장 《우리는 아침 여섯시부터 일을 시작합시다》에 종속되어 그 의미를 설명한다. 따라서 이 복합문은 종속 복합문이다.

이 종속 복합문은 주문과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속 복합문에서 종속되는 문장을 **부문**이라고 하며 다른 단일문(주문)을 종속시키며 설명을 받는 문장을 **주문**이라고 한다.

부문은 그 의미에 따라 원인의 부문, 목적의 부문, 시간의 부문, 조건의 부문, 양보의 부문으로 나누인다.

1) 원인의 부문.

원인의 부문이란 주문에서 이야기된 내용의 원인을 나타내는 부문을 말한다. 원인의 부문은 질문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인하여?》등에 대답한다.

원인의 부문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접속로에 의하여 표현된다.

—는 즉, —아, —아서, —므로, —때, —니, —니까, —는, —지라, —기에, —기로, —거든, —라, —어니, —거니.

○ 70 년 래의 대 풍년이 들었으므로 농민들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난다.

-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니까 잘 알아야 합니다.
- 시내' 물이 맑아ㅁ 목욕하기가 좋다.
- 손님들이 도착하셨으니 곧 환영 대회가 열리겠다.

2) 목적의 부문.

목적의 부문이란, 주문의 술어가 나타내는 사실의 목적을 표시하는 부문을 말한다. 목적의 부문은 《무엇을 위하여?》라는 질문에 대답한다.

목적의 부문은 접속도에 의하여 표현된다.

—려고, —려, —고자……

- 나는 그것을 연구하려고 많은 책들을 읽었다.
- 노동자는 계획을 완수하고자 밤낮을 가리지 않고 투쟁한다.

3) 시간의 부문.

시간의 부문이란, 주문에서 이야기된 내용의 시간적 관계를 나타내는 부문을 말한다. 시간의 부문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접속도에 의하여 표현된다.

—자, —면서, —며, —고서, —고, —다, —다가.

- 그들이 주석단 앞을 지나자 수 많은 고무 풍선이 하늘을 폭 덮어 놓았다.
- 공장이 생기면서 이 지방은 갑자기 흥성거리게 되었다.
- 기차가 통과하고서 자동차가 건너갔다.
- 비가 오자 눈이 오기 시작했다.
- 날씨가 아침부터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가랑비가 내린다.
- 나는 대학 청사에 가다가 도서관에 들리었다.

4) 조건의 부문.

조건의 부문이란, 주문의 술어에 의하여 표현되는 행동이 어떤 조건 밑에서 수행될 수 있는가를 나타낸다.

조건의 부문은 《어떤 조건에서?》라는 질문에 대답한다.

조건의 부문은 접속도에 의하여 표현된다.

—면, —거든, —아야야—어야, —라면,

○ 조국이 통일되면 저 호남 평야에도 트랙토르가 달리게 될 것이다.

○ 기계가 많으면 그만큼 일이 쉼해진다.

○ 날이 새거든 우리 같이 떠납시다.

○ 기술 혁명이 일어나야 일이 쉬워진다.

○ 사람들은 동무가 스무살이라면 놀랄 것입니다.

5) 양보의 부문.

양보의 부문이란, 주문의 내용을 긍정하면서 그와 반대되는 생각을 표현하는 부문이다. 양보의 부문은 《어떠한 사실에도 불구하고?》라는 질문에 대답한다.

양보의 부문은 접속토로써 표현된다.

—니들, —더라도, —던들, —군망정, —군지라도, —군지언정, —어도.

○ 그가 조금만 일찌기 도착하던들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 목숨이 끊어질지언정 우리는 뒤로 물러 서지 않으리.

○ 꺾이는 한이 있을망정 굽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 눈이 올지라도 예정된 건설 사업은 계속된다.

○ 눈이 오고 눈보라쳐도 빨찌산 대원들은 행군을 계속하였다.

[연습1] 다음 문장들에서 종속 복합문을 찾고 부문의 종류를 말하십시오.

1, 어머니!

저도 싸우겠습니다.

그놈들을 쳐부시려!

2,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으므로 하여 천리마 대진군이 일어 난 것이다.

3, 불멸의 위훈, 영웅의 모습을 알려거든,

청춘의 웃음, 아름다운 사랑을 찾으려거든,

새 조선의 꺾을 수 없는 높은 뜻을 찾으려거든, 《나의

고지》로 오르라.

4, 열음판이 미끄러우니까, 각별히 주의하세요.

5, 그는 항상 본문을 많이 읽었으니 랑독에서도 최우등을 할 수 밖에 없다.

6, 어떠한 난판이 있을지라도 계획은 끝까지 관철하여야지요.

7, 날씨가 추워와도 우리는 가야 할 길을 기어코 가야 한다.

[련습2] 다음의 접속토로 표현된 원인의 부분을 가진 복합문을 각각 두 개씩 지으시오.

—므로, —니, —니까, —아,

[련습3] 다음의 접속토로 표현된 목적의 부분을 가진 복합문을 각각 두 개씩 지으시오.

—려고, —려, —고자,

[련습4] 다음의 접속토로 표현된 조건의 부분을 가진 복합문을 각각 두 개씩 지으시오.

—거든, —면, —라면,

[련습5] 다음의 접속토로 표현된 양보의 부분을 가진 복합문을 각각 두 개씩 지으시오.

—들, —더라도, —근망정,

제 3 절. 합성 복합문.

우에서 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학습한 복합문들은 두 개의 단일문들의 결합이었다. 그러나 보다 더 복잡한 사상을 표현하기 위하여 세 개 혹은 그 이상의 단일문들이 필요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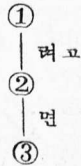
즉 합성 복합문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합성 복합문이란, 한 복합문 안에 세 개 이상의 단일문들이(병렬적 접속 또는 종속적 접속으로 또는 병렬적 접속과 종속적 접속이 결합되어 있는 형식으로 이 세 개 이상의 문장들은 결합되고 있다) 접속한 것을 말한다.

① 당의 지도 밑에 우리 인민들이 대대적인 관개 공사를 해놓았으므로 ② 농민들은 물 걱정이 없게 되었으며 ③ 논밭의 곡식은 어떤 가물에도 싱싱 자란다.

여기서 ①과 ② ③과는 서로 종속되어 있으며 ②와 ③은 서로

세째 단일문에 대하여 원인적 관계로 연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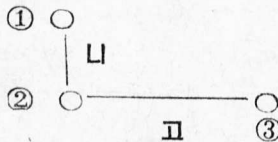
우리가 최우등의 성적을 재취하려고 ① 노력만 한다면 ② 반드시 훌륭한 열매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③



이 복합문에서 세 개의 단일문들은 연속적으로 종속되어 있다. 첫째 단일문은 둘째 단일문에, 둘째 단일문은 세째 단일문에 종속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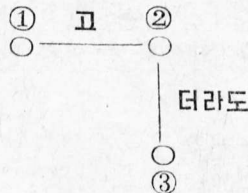
3, 세 개 이상의 단일문들이 병렬적인 관계와 종속적인 관계를 동시에 복잡하게 가지고 있는 합성 복합문.

기계화 비중이 높아지니 ① 일은 훨씬 험해지고 ② 로력 문제도 완전히 풀렸다.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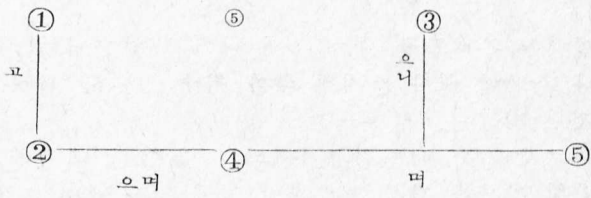
첫 단일문과 둘째 단일문은 원인의 종속적 관계를 가지고 결합되었으며 둘째와 세째 단일문들은 서로 합동적 병렬의 관계로 결합되었다.

아무리 글 배우기 어렵고 ① 조건이 곤란하더라도 ②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꾸준히 학습해야 한다.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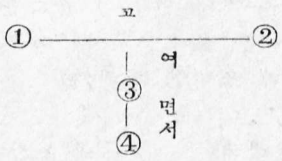


첫째와 둘째 단일문들은 서로 합동적 병렬의 관계로 결합되었고 첫째와 둘째는 다시 세째 단일문과 양보적인 종속 관계로 결합되었다.

더우기 과거에 주권을 가져 보지 못한 우리 인민이 자기 수
 ①
 ②
 ③
 ④
 ⑤



이와 함께 당은 사회주의 건설의 매 시기에 중심 고리를 정
 ①
 ②
 ③
 ④



[연습1] 다음의 합성 복합문들을 읽으면서 단일문이 어떤 형식으로
 연결되었으며 또 어떠한 접속로들에 의하여 연결되었는가를 말하시오.
 1, 김 일성 원수께서 지도하신 항일 빨찌산 대원들은 이 간
 약한 일제놈들을 반대하여 어떤 곤난도 무릅쓰고 영웅 무쌍하게
 싸웠다.
 2, 어머니의 말씀을 저는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니! 인민군
 창건 네 뜻을 래일로 맞이하게 되면서 이 밤 저는 지난 날을 돌
 이켜 보고 우리를 항상 승리에로 인도해 주시는 김 일성 장군님
 께 조선 로동당 앞에 더욱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어머니! 저는 반드시 조국의 참된 아들로서 사랑하는 내 고

향과 부모 형제들의 행복을 위하여 더욱 용감히 싸우겠습니다.

3) 조 영길 동무는 밤낮 없이 등뼈가 휘도록 일을 했어도 두꺼의 강낭죽도 변변히 입에 대지 못하였으며 엄동설한에도 입을 것이 없어 남아 빠진 포대로 몸을 가리웠다.

4) 만약 내 한 몸으로 저 놈의 불아가리를 막는다면 전우들의 목숨을 구할 것이고 우리의 승리를 보장할 것이 아닌가! 부소대장이 전사하였고 분대장이 기'발을 들고 올라가니 인제 불아가리를 까부실 임무가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김 용택 상등병은 깨달았습니다.

5) 숙영하는 부대들을 돌아 보러 나가신 원수님께서서는 밤이 펴 깊었으나 좀처럼 돌아 오시지 않아 원수님이 안 계신 천막 안은 텅 빈 것만 같았다.

6) 농촌 경리의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에 대한 조선 로동당의 정확한 정책을 받들고 전체 인민들이 옮겨 투쟁하면 일은 빨라지고 더욱 쉽고 흥겨워질 것이며 지난 날에는 메마르던 땅에서 무르익은 오곡이 쏟아 질 것이다.

[연습 2] 다음 합성 복합문의 빈 자리에 적당한 접속어를 적어 넣으시오.

1, 날마다 실업자, 반실업자의 수는 늘어 가() 그들은 입을 것도 못 입() 먹을 것이 없() 거리를 헤매고 있다.

2, 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을 자기들의 식민지로 삼켜 버리() 나아가서는 중국과 소련을 침략하() 리 승만 도배를 추겨 전쟁을 일으켰다.

3, 정치 사업이 선행되() 이에 조합원들의 물질적 관심성이 배합되() 그들 속에서 일대 로력적 양양이 일어났다.

제 11 장.

담 화 법.

제 1 절. 담회법이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의 말이나 글을 다시 옮겨서 누구에게 전하는 방법을 담회법이라고 한다.

《어머니! 저는 반드시 조국의 잡된 아들로써 내 고향과 부모 형제들의 행복을 위하여 더욱 용감히 싸우겠습니다》하고 동철이는 고향을 떠나 전선으로 가면서 어머님께 맹세 드렸습니다.

여기서 《 》안의 말은 사실 동철이가 직접 어머님께 한 말이다. 그런데 이 글을 쓴 사람은 동철이의 그 말을 다시 옮겨다가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다.

담화법에는 두 가지 즉 직접 담화법과 간접 담화법이 있다.

제 2 절. 직접 담화법.

직접 담화법이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조금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정확히 보존하면서 전달하는 방법을 말한다.

형님은 나에게 《너는 커서 훌륭한 기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우의 문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접 담화법에는 반드시 인용표가 있어서 전하려는 말이나 글이 다른 말이나 글과 분명히 구별된다.

직접 담화법에는 전달해야 할 내용을 리해시킴에 있어서 도움을 주기 위하여 누가,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떤 태도로 말하는가 하는 설명을 할 수 있다. 이를 전달자의 말이라고 한다.

우의 레문에서 《하고 동철이는 고향을 떠나 전선으로 가면서 어머님께 맹세드렸습니다》는 전달자의 말이다.

직접 담화법에서의 전달자의 말(설명)에는 다음과 같은 형식들이 있다.

1, 직접 담화의 뒤에 《하고 말하다, 라고 하다, 고타다》등의 술어가 붙는다.

아버지께서는 《공부를 잘 해야 당의 훌륭한 전사가 된다》고 말씀하셨다.

2, —하고, —라, —고, —라고, 등이 생략되고 《말한다》, 《한다》등의 동사만 붙는다.

《그렇지만 나도 무기를 들고 원수놈들에게 죽음을 줄테야》하였다.

3, 전달자의 설명 없이 전달되기도 한다.

그런데 보초는 그 자리에 꼼짝하지 않고 서 있었다.

《무슨 일이나?》

《좋은 무엇 때문에 쓰았느냐?》

리 두익 소년은 환참 동안 머뭇거리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저것을 잡았습니다》

이 문장들에서 《무슨 일이나》, 《좋은 무엇 때문에 쓰았느냐》 등의 문장들은 설명 없이 전달되었다. 이것은 문맥과 장면에 의해서 필요 없게 되었다.

전달자의 설명은 문장에서 다음과 같은 위치에 놓인다.

1, 전달자의 설명이 담화의 뒤에 오는 경우.

《나의 심장이 뛰는 한 침략자들을 때려 부시겠습니다》 하고
젊은 리 수복 영웅은 불같은 심정을 뽐냈다.

2, 전달자의 설명이 담화의 앞에 오는 경우.

원수님은 곁에서 있던 전령병에게 나직이 말씀하셨다.

《우리에게 있는 담'요를 가져 오시오》.

3, 전달자의 설명이 담화의 앞뒤에 오는 경우.

리 정수 분대장은 《불속을 헤치고라도 꽂아야지》하면서 굳게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직접 담화법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그대로 전달하기 때
문에 간접 담화보다 더 생동하다.

제 3 절. 간접 담화법.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그 내용만
자지고 자기의 말로서 전하는 방법이다.

명철이는 참으로 씩씩한 청년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명철이는 참으로 씩씩한 청년입니다》하고 그는 말하였다)

나는 조선 로동당의 붉은 전사라고 말하였다.

(《나는 조선 로동당의 붉은 전사요》하고 말했다).

간접 담화법에는 인용표가 없다. 그리고 련이어 《고 말한다》,
《고 물었다》, 《고 명령하였다》……등과 같은 설명어가 붙는다.

제 4 절. 직접 담화를 간접 담화로 고치는법.

담화를 진행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에 따라 직접 담화로 말할 수 있고 간접 담화로 말할 수 있다. 또 직접 담화를 간접 담화로 고칠 수 있다.

직접 담화를 간접 담화로 고치기 위해서는

1, 직접 담화에 표현된 계칭은 다《해타》의 계칭으로 바꾼다.

○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결심입니다》하고 우리는 말했습니다(직접 담화).

○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결심이라고 말했습니다(간접 담화)

○ 《학교에 좀 일찌기 갑시다》 그는 말했다(직접 담화).

○ 학교에 좀 일찌기 가라고 그는 말했다(간접 담화).

2, 직접 담화에 있는 인용표를 풀고 《고 하다》, 《고 말하다》를 붙인다.

○ 《우리들은 사회주의 건설자요》하고 청년들은 말했다(직접 담화).

○ 청년들은 자기들이 사회주의 건설자라고 하였다(간접 담화).

○ 아저씨는 《어렵고 힘이 많이 드는 일부터 기계화해야 하네》하고 말씀하였다(직접 담화).

○ 아저씨는 어렵고 힘이 많이 드는 일부터 기계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간접 담화).

3, 직접 담화에 있는 인칭을 바꾼다.

○ 《나는 조선 소설들을 많이 읽었습니다》하고 그 동무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직접 담화).

○ 자기는 조선 소설들을 많이 읽었다고 그 동무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간접 담화).

4, 거리, 시간 관계를 바꾼다.

《여기가 천리마의 고향입니다》하고 수상님께서 말씀하시었습니다(직접 담화).

거기가 천리마의 고향이라고 수상님께서 말씀하시었습니다

(간접 담화).

○ 《오늘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창건 기념일입니다》
하고 그는 나에게 말하였습니다.(직접 담화).

○ 그날이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창건 기념일이라고 그는 나에게 말하였습니다.(간접 담화).

5, 호칭어, 감동어, 삽입어들은 전달하는 사람의 적당한 설명으로 바꾼다.

김 일성 원수께서는 환자들에게 《동무들! 우리들이 적과 싸우는 동안 병과 싸워 이기시오》하고 격려의 말씀을 하셨다.(직접 담화).

김 일성 원수께서는 환자들에게 대원들이 적과 싸우는 동안 병과 싸워 이겨야 한다고 격려의 말씀을 하셨다.(간접 담화).

○ 《아아, 참 모란봉은 아름답기도 하구나!》하고 순희는 말했다. (직접 담화)

순희는 몹시 감탄하면서 모란봉은 정말 아름답다고 말하였다. (간접 담화)

[연습1] 다음의 직접 담화를 간접 담화로 바꾸시오.

○ 계순 동무는 힘 있게 웨쳤다.

《여러분! 사랑하는 동포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김 일성 장군 유격대 선전원인 내 말을 진정으로 믿으십시오……》

○ 《나도 오늘부터 영웅의 어머니로서 남부끄럽지 않게 농사를 잘 지어 한 알의 쌀이라도 더 거두겠다》고 어머니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

○ 그는 《오, 번영하라, 조국이여!》 하면서 자기의 사랑송을 시작하였습니다.

○ 《아니요, 우리는 절대로 뒤로 물러설 수 없소》 하고 선동원 동무는 강경히 말했다.

《미제는 우리의 불구 대천의 원썩요》하고 그들은 웨쳤다.

[연습 2] 다음의 간접 담화법을 직접 담화법으로 바꾸시오.

○ 그때 그는 자기의 행복을 남녘땅 동포들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 토론자는 조선 민족은 언제나 하나이며 또한 조선의 주인은 조선 사람이라고 소리 높여 웨쳤다.

○ 전철 중대장은 우리들에게 타지오 보도에 의하면, 오늘부터 소낙비가 내리겠으니 모두다 전투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 12 장

띄어 쓰기와 문장 부호.

제 1 절. 띄어 쓰기.

회화어에서는 담화가 진행되는 장면, 장소, 어조의 변화, 휴식 등에 의하여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의 내용을 생동하게 알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글로 표현할 때는 이러한 수단들을 리용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글을 쓸 때에는 이야기하는 사람의 생각을 곧 알아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는 단어와 단어 사이를 적당히 띄어 써야 한다.

문장에서 그 내용을 쉽게 읽고 리해할 수 있도록 단어와 단어 사이에 적당한 간격을 두는 것을 띄어 쓰기라고 한다.

조국산야의 한포기의풀, 한그루의나무, 한마리의짐승도 우리의 귀중한보배이며 재산인것이다.

이 문장은 내용을 리해함에 있어서 오해와 혼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조국 산야의 한 포기의 풀, 한 그루의 나무, 한 마리의 짐승도 모두 우리의 귀중한 보배이며 재산인 것이다》.라고 띄어 쓰면 알아 보기 쉽고 읽기 쉽다.

띄어 쓰기는 철자법, 문장 부호와 같이 엄격히 지켜야 할 규칙이다. 띄어 쓰기 규칙은 다음과 같다.

1) 매개 단어는 각각 띄어 쓰되 토는 우의 단어에 붙여 쓴다. 예,

조선 인민은 하나며 조선은 영원히 조선 인민의 것이다.

7, 어근에 《하다》 《되다》 《시키다》가 직접 붙을 때, 어근과 《하다》 사이에 《아, 어, 여》 등의 토가 들어가 하나의 단어로 된 경우에는 붙여 쓴다.

학습하다, 건설하다, 연구하다, 좋아하다.

토의되다, 이야기되다 운동시키다, 발전시키다.

ㄴ, 그러나 어근과 《하다》 《되다》 《시키다》 사이에 다른 토가 들어 갈 때는 띄어 쓴다.

례: 학습을 하다, 건설을 하다, 연구를 하다, 운동도 되다, 연구만 시키다.

2) 어근에 직접 《지다》가 붙거나 어근 다음에 《아, 어, 여》가 들어 가고 《지다》가 붙을 때는 붙여 쓴다.

례: 기름지다, 차지다, 넘어지다, 좋아지다, 썩지다, 빨타지다.

그러나 어근 다음에 《아, 어, 여》 이외의 토가 들어 가면 띄어 쓴다.

기름이 지다, 넘어도 지다, 빨타도 지다.

3) 《아니 하다》, 《못 하다》는 용언의 어간에 토 《지》가 있는 경우에는 붙여 쓴다.

공부하지 아니하다(않다), 가지 아니하다(않다), 공부하지 못하다, 가지 못하다.

기타의 경우에는 《아니》(안), 《못》은 띄어 쓴다.

못 읽다, 아니 읽다(안 읽다)

못 뛰다, 아니 뛰다(안 뛰다)

4) 고유 명사는 매개 단어마다 띄어 쓴다.

례: 김 일성 선집, 로동 신문, 두만강, 김 일성 종합 대학, 김 책 제철소, 강선 제강소.

5) 사람의 이름과 성은 띄어 쓴다.

을지 문덕, 리 순진, 박 지원, 김 홍도.

6) 산, 강, 도, 시, 군, 리, 호수, 섬, 바다, 별 등의 이름은 붙여 쓴다.

백두산, 금강산, 태동강, 압록강, 평안남도, 보천군, 청산리, 부전호, 제주도, 동해, 화성, 목성.

7) 수'자를 국문으로 쓸 때는 십진법에 따라 띄어 쓴다. 아라비아 수'자로 쓸 때에는 모두 붙여 쓴다.

특만 칠천 삼백 팔십 오. 67,385.

삼백 오십 구만. 3,590,000.

8) 년월일은 다음과 같이 쓴다.

1948년 9월 9일.

1950년 6월 25일.

그러나 시간의 단위로서 년, 월, 일이 사용될 때에는 띄어 쓴다.

1 년은 365 일이다.

1 일은 24 시간이다.

1 시간은 60 분이다.

년, 월, 일 다음에 다른 형태부가 붙어서 하나의 단어를 이룰 때에는 년월일을 나타내어도 띄어 쓴다.

1930 년대의 항일 무장 투쟁.

1964 년도 인민 경제 계획.

9) 관형사는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띄어 쓰며 접두사는 어근에 붙여 쓴다.

각 대학, 전 인민적, 매 공장,

경공업, 종공격, 비인간적.

10) 의성-의태어는 반복되는 두 개의 어근을 하나의 단어로 보아 붙여 쓴다.

둥실둥실, 슬쩍슬쩍, 빙글빙글, 어슬렁어슬렁, 좌좌.

11) 불완전 명사는 띄어 쓴다.

공부할 것을, 가는 데가, 연구할 수.

12) 비슷한 뜻의 부사가 겹친 다음과 같은 것은 붙여 쓴다.

다같이, 모두다, 더욱더, 더더구나.

13) 보통 명사에 다시 유사한 뜻의 명사가 덧붙은 아래와 같은 것은 붙여 쓴다.

국화꽃, 전주'대, 외가집, 전구알

[연습 1] 다음 문장에서 띄어 쓰기가 틀린 곳이 있으면 고치시오.

1) 4월 5일 기다리던 그날은 돌아왔다. 때는 봄이라 하늘은 맑고 푸르고 나무 가지들에는 푸르고 싱싱한 새움이 돌아 나오고 있었다. 싱그러운 풀냄새를 실고 봄바람이 불어 왔다. 잡에서 깨어난 수림은 기채기를 쳐듯 봄바람에 살랑살랑거렸고 하늘에는 두마리의 수리개가 떴다.

2) 《참 살기 좋은 세상이 왔소. 만 아들은 김책 공대, 들 째는 김일성 종합대학, 세 째는 전문학교, 네 째는 초 중에 다니고 있으니 우리나라에서는 네사람중 한 사람이 학생이라는 데 우리 집에선 여섯사람가운데 네사람이 학생이요》.

〔연습2〕 다음 문장을 정확히 띄어 쓰시오.

삼손이는별안간설음이북바쳐올라왔다. 어린가슴에도역이막혔던것이다. 그것도그럴것이한참공부하고뛰놀나이에그는남의머슴살이를하고있는것이다. 그는여덟달동안에돈20원을받기로약속하고머슴을살고있는것이다.

2) 김일성동지는 항일빨찌산들에게우리글을가르치셨다. 글을모르는동무들에게글을배우라고학습장을매여주셨으며거기손수이름까지도써주시였다. 수령의 아버지다운극진한 사랑과배려에항일빨찌산들은무한히감동하였으며충분되였다. 이러한 배려와 고무적힘으로하여항일빨찌산들은모든것이부족하고어려운조건하에서도우리글을익혔다.

제 2 절. 문장 부호.

회화할 때에는 일정한 어조를 사용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때는 그 내용을 빨리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부호를 사용한다.

1) 점(·)

문장이 끝났다는 문장 부호이다.

점은 서술문, 권유문, 명령문, 명명문들이 끝났을 때 쓴다.

○ 번영하는 땅. (명명문)

○ 우리 농촌에 풍년의 가을이 왔다. (서술문)

○ 동무들! 우리는 공산주의적으로 생활하며 배우며 일합시다. (권유문)

○ 모두들 공원에 가서 놀아라. (명령문)

2) 두점(:)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한다.

1, 총괄어가 동종의 문장 성분 앞에 있을 때.

○ 나라의 모든 곳에서: 도시에서도 농촌에서도 새 생활이 약

동하고 있다.

ㄴ, 인용문이나 직접 담화의 앞에

○ 김 일성 원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였다: 《현 시기에 있어서 기술을 소유하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자들의 가장 영예로운 의무입니다》.

ㄷ, 총괄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쓰이는 단어나 문장 뒤에
례:

○ 김 봉 동무의 토론: ...

3) 반점(,))

반점은 의미가 중단되었거나 잠깐 휴식이 필요할 때 쓴다.

ㄱ, 동종의 문장 성분을 밝히기 위하여

당은 우리의 어머니며, 심장이며, 뇌수이며, 기'발이다.

ㄴ, 호칭어, 삽입어, 또는 감동어를 밝히기 위하여

○ 장군님, 저도 참가하게 해 주십시오.

○ 첫째로, 우리는 동무들의 학습을 방조해야겠소.

○ 오, 이 날을 위하여 우리의 투사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던가?

ㄷ, 복합문을 이루고 있는 문장들을 똑똑히 밝히기 위하여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고, 오늘도 좋고, 래일은 더욱 좋은
우리 인민의 시대.

○ 한 방의 총소리가 울리자, 여기저기서 우등'불이 활활 타
오르기 시작했다.

ㄹ, 문장 성분들이 바뀌어졌을 때 종결 술어 뒤에

○ 그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천리마의 조선을 보고.

4) 반두점(;)

반두점은 반점보다 비교적 더 중단될 때 사용한다.

○ 오늘 저녁 7 시부터 대학 강당에서 《조선어의 밤》을 시작하는바; 이것은 우리들이 조선어 학습을 위한 투쟁에서 얻은 성과를 반영하는 모임입니다.

5) 의문표(?)

의문표는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단어나 문장 뒤에 사용한다.

○ 동무는 천리마를 탔는가?

6) 감탄표(!)

감탄의 뜻을 나타내거나 강한 감동적 어조를 가지는 단어, 문장 뒤에 쓴다.

ㄱ, 감탄문의 뒤에 쓴다.

○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 미제는 당장 물러가라!

ㄴ, 호칭어, 감동어가 강한 감동적 어조를 가질 때

○ 사람들이여! 무엇이 우리에게 이 풍요한 가을을 가져다 주었는가?

○ 천리마! 이것은 오늘의 현실이다.

7) 인용표(《 》)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인용할 때 사용한다.

ㄱ, 직접 담화를 구별하기 위하여

○ 《그렇다, 남녘땅에도 반드시 승리가 올 것이다》라고 웨쳤다.

ㄴ,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할 때 《7개년 계획은 우리 나라에서의 전면적 기술 혁명의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ㄷ, 신문, 잡지, 문예 작품 기타 고유 명사들을 특별히 나타내기 위하여

《두만강》, 《로동 신문》, 《근로자》

ㄹ, 어떤 단어나 단어 결합들이 《소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 미 제국주의자들의 《원조》는 본성에 있어서 침략적이며 략탈적이다.

8) 거듭 인용표 (〈 〉)

거듭 인용표는 인용표 속에 들어 가 있는 말 가운데 또 다시 인용표를 해야 할 말이 있을 때에 사용한다.

○ 《순남아, 너 영화 〈애국자〉를 보았니?》하고 명철이가 물었다.

9) 이음표 (—)

이음표는 두 개의 단어가 서로 긴밀하게 결합하여 한 단어와 비슷하게 되고 있는 단어들 사이에 사용한다.

○ 《우리 당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면서 우리 인민을 항상 승리로 조직하고 동원하

있습니다》

10) 횡선 (—)

횡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한다.

ㄱ) 동격어, 종관어, 제지어 뒤에

○ 강철의 당—바로 그가 있으므로 하여 이 나라에 사회주의
락원이 건설되고 천리마의 새 시대가 열렸다.

○ 어머니—조국에 대한 사랑은 우리 청년들의 심장 속에
항상 살아 있다.

ㄴ) 문장에서 주어와 술어의 관계를 다른 문장 성분의 도움
없이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횡선을 사용한다.

김대—과학의 최고 전당.

김 명호—야금 기사.

ㄷ) 같은 뜻의 말을 되풀이 할 때

○ 1년전 내가 조선에 도착한 날 — 그 날도 이렇게 개인
날씨였다.

ㄹ) 장소, 시간, 수량 등을 나타내는 두 단어 사이에 사용한다.

려행 구간; 평양—보천보.

면회 시간; 오후 1시 반—4시

ㅁ) 긴 소리를 나타내기 위하여

틸림 속에서는 바람 소리만이 좌—좌—들려 온다.

11) 점선 (…)

점선은 이야기가 중단되거나 생략되었을 때 사용한다.

ㄱ) 이야기가 잠깐 끊어졌다가 다시 계속되는 경우에

○ 동무들…나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조국 보위 초소로
달려 가겠습니다.

ㄴ) 이야기가 완결되었어도 그 뒤에 여운을 남기기 위하여

○ 빨찌산 대원들은 눈보라 속을 헤치면서 앞으로 앞으로만
나아 간다…

ㄷ) 다른 문장의 일부를 인용할 때

○ 《…태우지 않고는 맑스-레닌주의 과학의 높고 위대한 봉
우리에 올라 설 수 없다…》

ㄹ) 침묵을 나타낼 때

○ 《누가 후방에 남아서 식량을 운반하겠습니까?》

《…》 대원들은 이에 대답하지 않고 오직 전전으로 갈 생각만 하고 있다.

12) 괄호 (()), ([])

괄호는 문장 가운데서 어떤 부분을 한 덩어리로 묶을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한다.

7) ()는 어떤 말에 대한 간단한 설명 또는 보충적인 말을 문장 가운데 쓸 때

○그는(이번 학기 시험에서 최우등을 쟁취하였다) 또다시 가장 뒤떨어진 동무를 방조하겠다고 나섰다.

1) []는 특히 단어를 설명할 때

○ 천리마 [명사]

○ 혁명 [형명]

13) 방점 (……) 또는 밑줄 (—), (~~~~).

방점 또는 밑줄은 문장 가운데서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있는 부분 밑에 사용한다.(보통 방점은 단어 밑, 밑줄은 문장 밑에 사용한다.)

○혁명적 동지애—이것은 항일 팔저산 투사들의 가장 고상한 품성의 하나였다.

○ 전후 짧은 기간에 우리 나라에는 강력한 중공업 기지와 정공업 기지가 창설되었다.

14) 숨김표 ○○○, ×××

어떤 사실을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한다.

○ ○○○ 고지 전투에서 그는 영웅적으로 싸워 적 중기 화재를 까부시었다.

○ ×월 ×일

[런슬] 다음 문장들을 읽으면서 문장 가운데 붙어 있는 부호들이 사용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 《형님! 이번 두 씨름에서 이겨야 해요》.

《글쎄, 어쩔런지…》

양속이는 방글방글 웃기만 했다.

《벌써부터 사람들은 형님이 이길 거라고들 하던데요. 뭐》.

《해 봐야 알지, 참 너희 소년 축구 시합은 언제냐?》

○ 원수님께서서는 로인의 이 말에 빙긋이 웃으시며 《사령판도 인민의 아들이랍니다. 인민들이 다 하는 일을 내라고 어찌 못 하

겠습니까! 사람은 일을 해야 사는 재미가 있고 밥 맛도 더 좋습
니다...»하고 말씀하시였다.

○ 동지라는 말을 보통 말 같이 쓰게까지 된 어머니, 겁이
라고는 없고 의연하고 강렬한 광채가 쏟아지는 그 두 눈'동자!
녀대원들의 눈동자와 같은 그 눈!(아, 변하셨구나, 어머니가,
어머니가!) 칠성이는 몹시 감탄하였다. 현 십장에게 매 맞고
분하나 말을 못하던 그런 약한 어머니는 옛날 이야기로 되었다.

[부 록]

제 1 장. 철자법의 주요 규칙.

제 1 절. 어간과 토 사이의 철자법.

어간과 토는 쉽게 갈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어간과 토는 서로 밝혀 적는 것이 뜻을 알아 보기에 좋다. 그러므로 조선어 철자법에서 어간과 토는 서로 밝혀 적는다.

례, 1) 국이(×구기), 국을(×구글)

 낫애(×나재), 낫이(×나지)

 부엌으로(×부어크로), 부엌에(×부어케), 닭이(×달기) 닭
 을(×달글).....

2) 웃어(×우서), 웃어타(×우서타) 젊어서(×지퍼서) 뽀아
(×보까) 얹어(×언저).....

3) 막다(×막따) 넘게(×넘께) 짚고(×짚꼬), 앉소(×안쏘)
 밭도록(×밭도록).....

4) 낫만(×난만), 집만(×집만), 짚마져(×집마저.....)

 결합 모음이 들어 가는 경우는 어간과 결합 모음 사이도 서로 밝혀 적는다.

례 접으니(×저브니), 읽으면(×일그면)

제 2 절. 합성어에서의 철자법.

두 개 이상의 어근이 어울려서 이루어진 단어를 합성어라 한다.

례, 밀'가루, 벼알, 기와집, 쌀밥, 오르내리다, 검붉다.....

 이때 합성어의 어근들은 각각 밝혀 적는다.

 어근들을 밝혀 적으면 그 뜻을 알아 보기도 쉽다.

례, 1) 집안(×지반), 붙잡다(×붓잡다) 낫잡다(×낫잡다)

2) 밤물(× 밤물), 빛나다(× 빈나다), 흙내(× 흥내)

합성어에서 어떤 경우에는 그 어느 어근의 소리가 달라지거나 또는 줄어 든다.

례, 이틀날(이틀+날), 안팎(안+팍), 부잡(불+잡), 화살(활+살), 잊저녁(어제+저녁)

이런 경우는 소리가 달라졌거나 준대르 적는다.

합성어에서 뒤'어근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거나 또는 뒤'어근의 첫소리인 모음이 <L>에 가까운 소리로 될 때가 있다. 이 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사이표(')를 한다.

1) 된소리가 날 때는 앞 어근의 끝소리가 모음이거나 <L, R, ㅁ, ㅂ>인 경우에 사이표를 한다.

례: 비'방울, 꼬기'배, 바'줄.....
손'바닥, 논'두렁.....
발'등, 불'길, 풀'방울.....
움'집, 꿈'속, 구름'장.....
등'불, 콩'국, 장'바닥.....

2) 뒤'어근의 첫소리인 모음이 <L>에 가까운 소리로 되는 경우에는 모두 사이표를 한다.

례: 속'잎, 논'일, 들'일, 밤'이슬, 발'이랑, 앞'이마, 콩'엿, 판'유리.....

제 3 절. 접두사와 어근 사이의 철자 법.

조선어 접두사는 어근과 아주 쉽게 구분된다. 그래서 접두사와 어근을 서로 밝혀 적기가 쉬우며 또 그렇게 밝혀 놓으면 뜻을 알아 보기 쉽다. 그러므로 조선어 철자법에서는 접두사와 어근을 서로 밝혀 적는다.

례: 딸'아들(× 마다들) 짓'밟다(× 지밟다)
엿'먹다(인'먹다) 빛'나가다(× 빈'나가다).

접두사와 어근 사이에서도 아래와 같은 것들에서는 합성어의 경우와 같이 사이표를 한다.

례: 새'노랑다, 덧'이, 허'일, 흙'이불...

제 4 절. 어근과 접미사 사이의 철자 법.

조성어의 접미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어떤 것은 알아 내기가 쉽지 않다.

례를 들면 《노래》《마개》들은 원래 《놀+애》《막+애》로 써 이루어진 단어이며 《애》는 접미사다. 그러나 주의 깊은 관찰을 하기 전에는 이러한 접미사《애》를 알아 내기 어렵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여 어근과 접미사의 철자법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첫째; 자음으로 시작한 접미사와 모음으로 시작한 접미사를 가른다.

둘째; 특히 모음으로 시작한 접미사의 경우는 아주 많이 쓰이는 것만을 밝히고 나머지는 밝혀 적지 않는다

이 원칙에 따라 구체적 규칙들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자음으로 시작한 접미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모두 밝혀 적는다.

- 례: ㄱ) 값지다. 꽃답다, 잎사귀………
ㄴ) 말기다, 벗기다, 끊기다, 길히다, 달히다, 막히다……
ㄷ) 놓치다. 덮치다, 빨치다, 앞치다……
ㄹ) 넓히다. 밝히다, 좁히다, 낮추다, 늦추다, 맞추다……
ㅁ) 녀녀히, 답답히, 똑똑히……

2) 모음으로 시작한 접미사의 경우

아래와 같은 접미사만 밝혀 적으며 나머지 접미사는 모두 밝혀 적지 않는다.

가) 접미사 《이》

- 례: ㄱ) 다듬이, 삼발이, 손잡이, 해돋이, 땀받이, 버쭈이
ㄴ) 많이, 높이, 곳곳이, 깨끗이, 뚜렷이, 굳이, 같이……

그러나 접미사 《이》도 《개굴개굴, 땀땀, 피끌피끌, 누덕누덕, 얼룩얼룩……》등과 같이 소리나 모양을 흉내 낸 말에서 나온 어근에 붙는 경우는 밝혀 적지 않는다.

례: 개구리(×개굴이), 매미(×땀이), 피끄리(×피끌이), 얼룩기(×어룩이)………

나) 접미사 《음》

례: 웃음, 울음, 물음, 얼음, 믿음, 졸음, 걸음……

다) 접미사 《이》

례: ㄱ) 녹이다, 먹이다, 쌓이다. ……

ㄴ) 높다.

ㄷ) 움직이다, 속삭이다, 번쩍이다……

라) 《돌우다, 일으키다, 돌이키다, 없애다》에서만 쓰이는 접미사.

《우, 으키, 이키, 애》도 밝힌다. 곧 《도두다, 이르키다, 도리키다, 업새다》로 적지 않는다.

제 5 절. 철자법의 기타 규칙들.

이제까지의 철자법 문제는 형태부들이 서로 어울릴 때의 것이었다. 그러나 철자법 문제는 기라의 경우에도 얼마간 있다.

1) 한 형태부 안에서의 철자법

(가) 한 형태부 안에서는 되도록 받침을 하여 적지 않는다.

례: 지ㄷ다(×적히다), (해'빛이) 비ㅅ다(×빛이다)

(나) 그러므로 한 형태부 안에서 나는 된소리도 받침을 하여서 적지 않는다.

례: 어ㄷ개(×억개), 오ㅅ바(×읍바), 어ㅅ지(×엇지), 어ㅅ한(×엇더한)

(다) 한 형태부 안에 있는 《ㄴ, ㄹ, ㅁ, ㅇ》 받침 다음의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으며 다른 받침 다음의 된소리는 순한 소리로 적는다.

례: 번ㅅ적(×번적) 몯ㅅ찌(×몯찌)

불ㅅ죽(×불숙) 북ㅅ씩(×북씩)

담ㅅ뿔(×담뿔) 덩ㅅ씩(×덩씩)

퐁ㅅ땡(×퐁땡)

(라) 한 토 안에서의 된소리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ㄱ가(×근까), —ㄱ수록(×근쑤록), —ㄱ지라도(×근찌라도)
—울시다(×울씨다), —ㄱ니까(×ㄱ니가), —오리까(×오리가)

2) 접미사 《이》와 《히》의 철자법.

(가) 발음이 그 어느 하나로 분명하게 나는 것은 그 발음에 따라 철자를 한다.

례: 날-날(날)

길다-걸 [걸]

받다-받 [받]

그러나 받침 <ㄷ, ㅌ> 다음에 모음이 올 때에는 모두 제대로 소리가 난다.

례: 받다-받으니 [바드니]

받아서 [바다서]

말다-말으니 [마르니]

말아서 [마라서]

3) 받침 <ㅂ, ㅍ>은 그것으로 끝나거나 또는 그 다음에 자음이 계속될 때에는 <ㅂ> 받침으로 소리난다.

례: 입-입 [입]

집-집 [집]

엮다-엮다(엮따)

그러나 받침 <ㅂ, ㅍ> 다음에 모음이 올 때에는 모두 제대로 소리가 난다.

례: 입-입이 [이비]

입을 [이블]

엮다-엮으니 [어프니]

엮어서 [어퍼서]

제 2 절. ㄱ받침<ㄱ, ㅋ, ㆁ>의 발음과 쓰기.

1) 받침 <ㄱ, ㅋ>의 발음과 쓰기.

받침 <ㄱ, ㅋ>은 그것으로 끝나거나 또는 그 다음에 자음이 계속될 때에 그 발음이 구별되지 않고 다[ㄱ]로 된다.

례: 갓[갈] —갓다[갈따]

있다[일따]—있다[일따]

맞[말]—감았다[가말따]

그러나 받침 <ㄱ, ㅋ> 다음에 자음이 아니라 모음이 올 때에는 이 소리들은 [ㄱ, ㅋ]와 같이 제대로 난다.

례: 갓-갓이[가시], 갓을 [가술]

갸다—갸으니[가쓰니], 갸어[가썸]

2) 받침 <ㅎ>의 발음과 쓰기.

가) 받침 <ㅎ> 다음에 모음이 계속될 경우

받침 <ㅎ> 다음에 모음이 올 때에는 <ㅎ>이 들리지 않는다.

례: 념다—념어[너어]

념으니[너으니]

눔다—눔아[노아]

눔으니[노으니]

눔다—눔아[조아]

눔으니[조으니]

눔다—눔어[쩌어]

눔으니[쩌으니]

나) 받침 <ㅎ> 다음에 자음 <ㄱ, ㄷ, ㅈ>이 계속될 경우.

받침 <ㅎ> 다음에 <ㄱ, ㄷ, ㅈ>이 올 때에는 <ㅎ>이 제대로 나지 아니하고 <ㄱ, ㄷ, ㅈ>와 합하여 각각(ㄱ, ㅌ, ㅈ) 등의 거센 소리로 난다.

례: 념고[너코], 념고[조코]

념다[너라], 념다[조라]

념지[너치], 념지[조치]

제 3 절. 홑받침 <ㅈ, ㅊ>의 발음과 쓰기.

받침 <ㅈ, ㅊ>은 그것으로 끝나거나 또는 그 다음에 자음이 계속될 때에 그 발음이 구별되지 않고 다 [ㄷ]로 된다.

례: 낫[낫] 낫[낫] 낫신[낫신] 낫잠[낫잠], 낫도 [낫도]

그러나 받침 <ㅈ, ㅊ> 다음에 모음이 올 때에는 이 소리들은 <ㅈ, ㅊ>와 같이 제대로 난다.

례: 낫—낫이[나지]

낫에[나제]

낫—낫이[나치]

낫을[나출]

낫다—낫으니[느즈니]

낫어서[느저서]

낫다—낫으니[쫘르니]

쫘아서[쫘차서]

제 4 절. 둘받침의 발음과 그의 쓰기.

조선어에서 두 개의 자음으로 된 둘 받침에는 ㄱ, ㄷ, ㄹ, ㅂ, ㅅ, ㅈ, ㅊ, ㅋ, ㆁ이 있다.

그러나 이 둘받침이 실지 발음에서는 제대로 다 발음되지 않는다. 둘받침은 그것으로 끝나거나 또는 그 다음에 자음이 계속 될 때에

1) 첫째 자음만이 제대로 발음되고 둘째 자음은 발음되지 않는 경우

2) 둘째 자음만이 제대로 발음되고 첫째 자음은 발음되지 않는 경우

3) 첫째 자음은 제대로 발음되고 둘째 자음은 그 다음에 오는 자음과 섞여서 발음되는 경우의 여러 가지가 있다.

1) 첫째 자음만이 발음되는 둘받침

이에 속하는 둘받침으로는 ㄱ, ㄷ, ㄹ, ㅂ, ㅅ이 있다.

이들 둘받침 다음에 아무 소리도 오지 않거나 또는 자음을 이룰 때에는 받침의 첫째 자음만 발음되고 둘째 자음은 발음되지 않는다.

례: ㅅ[ㅅ] ㅅ도[ㅅ또], ㅅ만[ㅅ만]
 ㅍ[ㅍ] ㅍ과[ㅍ과], ㅍ도[ㅍ또],
 ㅅ다[ㅅ따], ㅅ고[ㅅ꼬], ㅅ는다[ㅅ는다]
 ㅅ다[ㅅ따], ㅅ지[ㅅ찌], ㅅ는다[ㅅ는다]
 ㄱ[ㄱ] ㄱ과[ㄱ과], ㄱ만[ㄱ만]
 ㄷ[ㄷ] ㄷ도[ㄷ도], ㄷ만[ㄷ만]
 ㅎ다[ㅎ따], ㅎ고[ㅎ꼬], ㅎ는다[ㅎ는다]
 ㅎ다[ㅎ따], ㅎ지 [ㅎ찌], ㅎ는다[ㅎ는다]
 ㄱ[ㄱ] ㄱ도[ㄱ또], ㄱ과[ㄱ과]
 ㅅ다[ㅅ따], ㅅ고[ㅅ꼬], ㅅ지[ㅅ찌]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의 둘받침 ㄱ, ㄷ, ㄹ, ㅂ, ㅅ은 각각 홀받침 ㄱ, ㄷ, ㄹ, ㅂ과 똑 같은 발음으로 되어 서로 구별되

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 들발침 다음에 모음이 올 때에는 다 제대로 발음된다.

례; 앓다; 앓아 [안자], 앓으니[안즈니]

꺾다; 꺾어 [꺾찌], 꺾에[꺾찌]

핥다; 핥아 [핥타], 핥으니[핥트니]

없다; 없어 [업찌], 없으니[업쓰니]

2) 둘째 자음만이 발음되는 들발침.

이에 속하는 들발침에는 ㄹ, ㄴ, ㄷ, ㄷ이 있다.

이들 들발침은 그 다음에 아무 소리도 오지 않거나 또는 자음이 올 때에는 첫째 자음 큰 발음되지 않는다.

례; 밟다[밟따], 밟고[밟꼬], 밟지[밟찌]

얹다[얹따], 얹고[얹꼬], 얹지[얹찌]

닭[닥], 닭도[닥또], 닭장[닥짱]

박다[박따], 박고[박꼬], 박지[박찌]

삼다[삼따], 삼고[삼꼬], 삼지[삼찌]

젓다[젓따], 젓고[젓꼬], 젓지[젓찌]

읷다[읷따], 읷고[읷꼬], 읷지[읷찌]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의 들발침 ㄹ, ㄴ, ㄷ, ㄷ은 각각 홀발침 ㄹ, ㄴ, ㄷ, ㄷ[ㄹ]과 꼭 같은 발음으로 되어서 서로 구별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 들발침 다음에 모음이 올 때에는 다 제대로 발음된다.

례; 밟다; 밟아서[말바서]

밟으니[말브니]

박다; 박아서[말가서]

박으니[말그니]

삼다; 삼아[살따]

삼으니[살브니]

흠다; 흠어 [을떠], 흠으니[을프니]

3) 첫째 자음은 제대로 발음되고, 둘째 자음은 그 다음에 오는 자음과 섞여서 발음되는 들받침.

이에 속하는 들받침으로는 ㄴ, ㄷ의 두 개가 있다. 이 들받침들 다음에 자음 ㄱ, ㄸ, ㅈ 등이 올 때에는 첫째 자음 ㄴ, ㄷ은 제대로 발음되고 둘째 자음 ㅎ은 이들과 어울려서 각각 ㅋ, ㄲ, ㅌ 등으로 발음된다.

례: ㄴ다[끈^ㄴ다], ㄴ고[끈^ㄴ코], ㄴ지[끈^ㄴ치]

ㄷ다[만^ㄷ다], ㄷ고[만^ㄷ코], ㄷ지[만^ㄷ치]

흠다[을^흠다], 흠고[을^흠코], 흠지[을^흠치]

꺠다[꺠^꺠다], 꺠고[꺠^꺠코], 꺠지[꺠^꺠치]

그러나 들받침 ㄴ, ㄷ 다음에 모음이나 또는 ㄴ이 올 때에는 첫째 자음 ㄴ, ㄷ은 제대로 발음되나 둘째 자음 ㅎ은 발음되지 않는다.

례: ㄴ어[끈^ㄴ어], ㄴ으니,[끈^ㄴ으니]

꺠는다[만^꺠는다],

꺠아[만^꺠아], 꺠으니[만^꺠으니]

꺠어[꺠^꺠어], 꺠으니[꺠^꺠으니]

꺠는다[꺠^꺠는다]

흠아[을^흠아], 흠으니[을^흠으니]

뜻	의미	포함	제한	구축	개조	형성	장조	생보	양하	조건	교사	선택	추산
마	마								○				
마	저	○											
만			○										
부	러			○ 출발									
서	선	○											
조	차	○									○		
키	닝												
마	지	○		○ 종결									
아	(아아)				○		○			○			
아	탈로 (아아 탈로)						○						

정 오 표

교과서명 조선어 문법

페이지	행	를	갈	을	을
42	7	어루어진		어루어진	
70		도판(별지이로)			
74	12	내 것은		내 것은 내다	
		내다			
79	-5	해; 시도		해; 지도	
84	1	도를 더욱 강하게		같은 칼을 반복하여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것		이유 강하게 나타내는 것	
		라		[라	
97	6	어라		어라	
98	-11	-나(으니),		-나(으니),	
99	-3	속령이		속령이다.	
100	4	-	-	-더라도-	
108	11	계층		해진	
111	14	이렸는 것을		이렸는 것을	
115	3	나무 속에서		내 곁속에서도	
126	3	이 학생들		학생들이	
193	1	-아아아		-아아아	
205	-2	기재기		기재기	

KMPA-1.1.36

조선어 문법 (류학생용)

1965 년 7월 26일 인쇄 1965 년 7월 30일 발행
편집겸 고등 교육 도서 출판사 인쇄소 평양 종합 인쇄 공장
발행소 심사자 량 종 류 정 필 운 외 1 명 천 수 리 서 행

요-1-2178

값 46 전

1000 부



